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조경학석사 학위논문

창신동과 익선동의 해설 참여형
도보관광 특성 연구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Guide-Participatory Walking Tourism in
Changsin-dong & Ikseon-dong areas

2018년 8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송 경 민

창신동과 익선동의 해설 참여형 도보관광 특성 연구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Guide-Participatory Walking Tourism in
Changsin-dong & Ikseon-dong areas

지도교수 김 세 훈

이 논문을 조경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8년 4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송 경 민

송경민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8년 6월

위 원 장

孫鎬勳



부위원장

송영근



위 원

김세훈



창신동과 익선동의 해설 참여형 도보관광 특성 연구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Guide-Participatory Walking Tourism in
Changsin-dong & Ikseon-dong areas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송 경 민

위 논문은 서울대학교 및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학위논문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심사위원의 지도과정을 충실히
이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8년 8월

위 원 장 孫 鎬 勲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부위원장 송 영근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

위 원 김 세 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국문 초록

본 연구에서는 도보관광 프로그램인 종로구 골목길 탐방 프로그램의 특정 코스(창신동, 익선동)를 대상으로 참여자 관점에서 인식한 해설 참여형 도보관광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도보관광의 개념과 흐름을 고찰하고 도보관광의 관점에서 종로구 골목길 탐방 프로그램의 특징을 서술하고, 관람의 대상이 되는 주요 코스 내용을 비롯해 생활문화콘텐츠 내용을 함께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아카이브하였다.

주요 연구 진행은 현장실험을 통해 이루어진다. 총 10회에 걸친 프로그램 해설 참여 후에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도보관광에 대한 인식, 전반적인 만족도와 행동의도를 파악하고 도보관광 인식 특성을 탐구하며 각 코스별로 흥미로워 하는 공간의 특성 및 선호 해설 내용에 대해 도시공간적 관점에서 서술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참여자들은 도보관광 프로그램의 장점으로 새로운 지역 경험과 지식 습득, 그리고 도심 도보관광 프로그램의 차별성으로는 일반적인 역사문화재가 아니라 도시를 탐방한다는 점을 주된 요소로 여기고 있어 선형관광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신뢰성을 확인하였다. 만족도의 경우에는 기대했던 것 보다 좋은 경험을 했다는 의견이 가장 긍정적이었으며 행동의도는 익선동의 경우 자율 방문 의사가 가장 높았고 창신동은 타인에게 추천할 의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창신동 코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참여자들이 가장 흥미로워 하는 코스는 돌산 밑 마을, 회오리길, 이음피움 봉제박물관, 가로구간은 돌산 밑 마을, 회오리길, 실아트골목 순으로 나타났다. 익선동 코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참여자들이 가장 흥미로워 하는 코스는 익선동 한옥마을, 서순라길, 갈매기골목, 가로구간은 서순라길, 장미골목과 갈매기골목, 북측 안길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방문 선호 장소는 창신동 코스의 경우 이음피움 봉제역사관, 창신소통공작소 순으로 나타났으며 익선동 코스는 익선동 한옥마을과 서순라길 순으로 나타났다.

매력구간과 재방문 선호 장소를 비교한 결과, 참여자들은 새롭게 조성한 공간과 건축물보다는 기존에 그 지역의 도시형태와 지형적 특성을 잘 나타내는 공간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 그에 비해 재방문 선호 장소는 여가 시간을 보내기 위한 체험이나 관람 또는 카페, 음식점이 밀집한 보행자 중심의 거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음피움 봉제역사관, 창신소통공작소와 같이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건립된 거점 시설에 대한 재방문 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해당 지역의 공간적 성격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이 효과적인 지역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주민뿐만 아니라 외부 관광객을 유입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는 지역주민의 삶을 간접체험하고자 하는 관광트렌드가 반영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도보관광과 관련한 다각도의 연구 필요성에 부응하고자 하며 연구 결과는 향후 창신동 및 익선동 지역 연구 및 도심 도보관광 프로그램 계획 및 관리방안 수립 시 참고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 주요어: 도보관광, 문화관광해설, 생활문화콘텐츠, 도시공간, 인식조사

■ 학번: 2016-24844

목 차

제1장 서론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01
1. 연구의 배경	01
2. 연구의 목적	03
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04
1. 연구의 범위	04
2. 연구의 방법 및 구성	05

제2장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검토

1절. 이론적 배경	07
1. 도시관광	07
2. 도시관광 관련 연구	12
3. 도보관광	13
4. 도보관광 관련 연구	20
2절.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3

제3장 프로그램 및 대상 코스 분석

1절. 종로구 골목길 탐방 프로그램	24
1. 프로그램 개요	24
2. 프로그램 특징	28
3. 대상 코스 선정	35

2절. 창신동 봉제산업과 도시재생	37
1. 창신동 형성과정	37
2. 봉제산업과 창신동	39
3. 도시재생 과정	42
3절. 익선동 일대 주얼리산업과 도시재생	45
1. 익선동 일대 형성과정	45
2. 주얼리산업과 익선동 일대	50
3. 도시재생 과정	51
4절. 현장실험 과정	56
1. 현장실험 개요	56
2. 창신동 코스 주요 내용	58
3. 익선동 코스 주요 내용	71
4. 설문조사 개요	81

제4장 참여자 인식 특성

1절. 도보관광 인식 특성	83
1. 참여자의 인구통계적 특성	83
2. 도보관광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84
3.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및 행동의도	86
2절. 코스별 인식 특성	87
1. 창신동 코스	87
2. 익선동 코스	93
3. 선호 해설 유형 및 내용	101

제5장 결론

1절. 결론 및 시사점	103
[참고문헌]	105
[부록]	111

■ 표 목차

[표 2-1] 도시관광 프로그램 정책 요소	11
[표 2-2] 도보관광의 정의	14
[표 2-3] 도보관광 탐방로 유형	15
[표 2-4] 도심 도보관광의 유형	15
[표 2-5] 도보관광 코스와 프로그램의 차이점	17
[표 2-6] 서울시 내 상설 도보관광 프로그램 현황(2018년 기준)	18
[표 3-1] 종로구 골목길 탐방 프로그램 운영 코스	27
[표 3-2] 종로구 골목길 탐방 프로그램 이용 안내	27
[표 3-3] 2017년 참여 통계 및 평균 기온	30
[표 3-4] 코스 유형화 기준	35
[표 3-5] 코스 유형화 결과	36
[표 3-6] 도시재생사업 현황	36
[표 3-7] 설문조사 문항 분류표	82
[표 4-1] 참여자의 인구통계적 특성	83
[표 4-2] 프로그램 만족도 및 행동의도 평균	86
[표 4-3] 창신동 코스 득표 결과	89
[표 4-4] 익선동 코스 득표 결과	95
[표 4-5] 익선동 한옥마을 내 득표 결과	95

■ 그림 목차

[그림 1-1] 창신동 및 익선동 코스	4
[그림 1-2] 연구의 구성	7
[그림 2-1] 도시관광 관련 사업 특성 구분도	10
[그림 3-1] 종로구 골목길 탐방 프로그램 운영 코스 지도	27
[그림 3-2] 종로구 관광해설사 선발 과정	29
[그림 3-3] 2017년 참여 통계 및 평균 기온	31
[그림 3-4] 프로그램 접근 경로	32
[그림 3-5] 프로그램 만족도	32
[그림 3-6] 동대문 지역산업 구조	40
[그림 3-7] 창신동 봉제공장 분포도	40
[그림 3-8] 창신·승인 도시재생사업 방향	42
[그림 3-9] 창신·승인 도시재생사업 내용	44
[그림 3-10] 익선동 한옥마을 일대 전경	48

[그림 3-11]	익선동 한옥마을 상점명 및 용도	49
[그림 3-12]	창덕궁 앞 열하나 동네	52
[그림 3-13]	창덕궁 앞 역사인문재생 구역 및 내용	53
[그림 3-14]	창덕궁 열하나 동네 매거진	54
[그림 3-15]	익선다다 프로젝트: (좌) 낙원장 (우) 르블란서	55
[그림 3-16]	현장실험 사진: (좌) 창신동 (우) 익선동	57
[그림 3-17]	창신동 기존 코스	58
[그림 3-18]	창신동 최종 코스	58
[그림 3-19]	낙산삼거리 집결위치	59
[그림 3-20]	축대마을	59
[그림 3-21]	000간2	61
[그림 3-22]	뫼든지 도서관	61
[그림 3-23]	축대마을 ~ 뫼든지 도서관	61
[그림 3-24]	000간1	63
[그림 3-25]	라디오방송국 덤 / 아트브릿지	63
[그림 3-26]	000간1 ~ 라디오방송국 덤	64
[그림 3-27]	창신문화잇길: 스토리잇다	65
[그림 3-28]	돌산 밑 마을 골목길	65
[그림 3-29]	드라마 촬영지	65
[그림 3-30]	창신동 도시텃밭	65
[그림 3-31]	실아트골목 ~ 창신소통공작소	66
[그림 3-32]	창신소통공작소	67
[그림 3-33]	당고개공원 공사현장	67
[그림 3-34]	회오리길	68
[그림 3-35]	회오리마당 공사현장	68
[그림 3-36]	봉제거리박물관 조형물 위치	69
[그림 3-37]	회오리길 ~ 이음피움 봉제역사관	70
[그림 3-38]	해설사 시연	70
[그림 3-39]	설문조사 모습	70
[그림 3-40]	익선동 기존 코스	71
[그림 3-41]	익선동 최종 코스	71
[그림 3-42]	종로3가역 집결위치	73
[그림 3-43]	익선동 한옥마을 첫 번째 골목	73
[그림 3-44]	익선동 한옥마을 안길	73

[그림 3-45] 돈화문로11다길	74
[그림 3-46] 미담헌 (익선동 166-37)	74
[그림 3-47] 장미골목	75
[그림 3-48] 익선동 한옥마을 내 삼거리	75
[그림 3-49] 주민소통방 내부	75
[그림 3-50] 익선동 네 번째 골목	75
[그림 3-51] 갈매기골목 영업 전 모습	76
[그림 3-52] 갈매기골목 영업 모습	76
[그림 3-53] 피맛길 (해설 모습)	77
[그림 3-54] 돈화문로 (해설 모습)	77
[그림 3-55] 익선동 한옥마을 ~ 서순라길	78
[그림 3-56] 서순라길 ~ 돈화문국악당	80
[그림 3-57] 서순라길 (해설 모습)	80
[그림 3-58] 돈화문국악당 (설문조사 진행)	80
[그림 4-1] 관심 정도	84
[그림 4-2] 이루어진 활동	84
[그림 4-3] 장점	85
[그림 4-4] 차별성	85
[그림 4-5] 창신동 지역 인지 여부	87
[그림 4-6] 창신동 코스 순위	87
[그림 4-7] 창신동 가로구간 순위	89
[그림 4-8] 창신동 코스 재방문 선호 순위	92
[그림 4-9] 익선동 지역 인지 여부	93
[그림 4-10] 익선동 코스 순위	93
[그림 4-11] 익선동 가로구간 순위	95
[그림 4-12] 익선동 한옥마을 확대	98
[그림 4-13] 창신동 코스 재방문 선호 순위	100
[그림 4-14] 창신동 해설 선호 유형	102
[그림 4-15] 익선동 해설 선호 유형	102

제1장 서론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현대사회에서 소비자의 관광욕구가 변하면서 관광목적지의 선택도 다양해짐에 따라 도시는 주요한 관광목적지의 하나가 되고 있다. 특히 최근 도시관광은 개별관광객들이 선호하는 관광형태로 관심을 받고 있다(심창섭, 2017). 또한 개별의 다양한 욕구가 등장함에 따라 관광트렌드는 단순히 역사유적, 자연경관에 머물러있지 않고 맛집, 사진명소, 골목길에 이르기까지 확장되었다. 더 나아가 지역주민의 자연스러운 일상 자체가 관광자원화 되고 있다. 즉, 기존의 도시관광이 역사·문화재, 자연경관과 같은 개별적 장소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현대사회에서는 골목·길·마을·동네와 같은 지역콘텐츠를 중심으로 전이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리적인 관광요소뿐만 아니라 비물리적인 요소 역시 일상적 매력으로서의 관광지로 주목받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생활문화콘텐츠는 관광자원으로서 독특하거나 새로운 자원은 아니지만 차별화되고 세분화된 관광경험에 대한 욕구가 증대됨에 따라 관광자원으로서 재조명받고 있다(최경은, 2013).

한국관광공사에서 발표한 빅데이터로 살펴본 17/18 여행트렌드 중 도시재생·원도심 여행은 익히 알려진 유명 여행지가 아니라 일상적으로 걷는 거리, 골목, 시장으로 이어지는 원도심에 문화·역사·예술이 혼합된 지역밀착형 도시재생지역을 뜻한다.¹⁾ 이처럼 최근 활성화된 도시재생사업에서도 기존의 물리적 개선 형태에서 지역문화 및 산업을 기반으로 한 문화적 도시재생사업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도시재생사업에서 문화관광의 비중이 높아짐을 의미하며 관광트렌드와 그 맥락을 함께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1) 한국관광공사(2017.12.14.), ‘빅데이터로 살펴본 17/18 여행 트렌드는 S.T.A.R.T’, 보도자료

위와 같은 관광트렌드와 도시재생사업에서 관광 비중의 증대에 따라 지역콘텐츠와 문화자산의 관광화를 통한 지역활성화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지역자원이 풍부한 원도심을 중심으로 발달해있다고 정리할 수 있다.

이러한 지역활성화를 통해 도시경쟁력을 제고하는 마케팅 방안의 대표적인 유형 중 대표적인 요소는 도보관광이다. 도보관광은 슬로우, 환경친화, 감성, 건강 등을 동시에 추구하는 관광형태로 관광의 새로운 패턴으로 등장하였고(서울연구원, 2012), 이에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에서는 도보관광을 장려하는 관광코스를 개발하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도보관광이 보유하는 지역에 대한 고유성과 진정성, 지속가능한 공정관광 및 녹색 관광적 성격,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 접근이 용이한 관광 유형이라는 장점으로 인해 도보관광에 대한 수요 및 시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김소은·심연숙, 2011; 문화체육관광부, 2010; 정철·정란수·이훈, 2011). 그러나 아직까지 도시관광 및 도보관광에 대한 개념 정립은 산발적이며 이와 관련된 연구 역시 방문객의 만족도, 재방문의도 조사 또는 행태조사에 그쳐있다.

2) 연구의 목적

도보관광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현황파악 및 문제 해결방안, 개선 방안과 동시에 개발 단계에서 고려되지 않았던 수요자 특성 및 유형에 따른 도보관광지의 특성 등 다각도의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보관광 프로그램 중 종로구 골목길 탐방 프로그램의 특정 코스(창신동, 익선동)를 대상으로 참여자 관점에서 인식한 해설 참여형 도보관광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보관광의 개념과 흐름을 고찰하고 도보관광의 관점에서 종로구 골목길 탐방 프로그램의 특징을 서술한다.

둘째, 현장실험 코스인 창신동, 익선동에 대해 관람의 대상이 되는 주요 코스 내용을 비롯해 생활문화콘텐츠 내용을 함께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아카이브한다.

셋째, 해설 참여 후 설문조사를 통해 도보관광에 대한 인식, 전반적인 만족도와 행동의도를 파악하여 도보관광 인식 특성을 탐구하고 각 코스별로 흥미로워 하는 공간의 특성 및 선호 해설 내용에 대해 도시공간적 관점에서 서술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도보관광과 관련한 다각도의 연구 필요성에 부응하고자 하며 연구 결과는 향후 도보관광 프로그램 계획 및 관리방안 수립 시 참고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본 연구에서는 전국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도보관광 프로그램 중에서 종로구 골목길 탐방 프로그램을 세부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종로구의 경우 전국 지자체에서 유일하게 모든 행정동에 대한 코스가 존재하며 가장 많은 26개 코스(세부적으로 38개 코스)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 문화관광 탐방 프로그램 중 2017년 1년간 참여인원 15,330명으로 작년 한 해 시민들이 가장 많이 참여했던 지자체 주도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가장 활발하다. 뿐만 아니라 종로구가 조선시대 한양도성의 도심지에서부터 현재 서울의 도심까지 우리나라의 역사·정치·경제·문화·사회·자연환경을 대표하는 다양한 지역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위상을 고려하여 도보관광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바람직한 대상이라고 판단하였다.

세부 대상은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종로구 골목길 탐방 프로그램 코스의 유형화를 통해 도심을 중심으로 하는 관광·소비 유형과 문화 유형을 대표하는 창신동 코스와 익선동 코스로 선정하였다. 창신동과 익선동은 모두 도시재생 사업지역이며 각각 특화산업인 봉제산업과 주얼리산업이 밀집하여 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그림 1-1] 창신동 및 익선동 코스

2) 연구의 방법 및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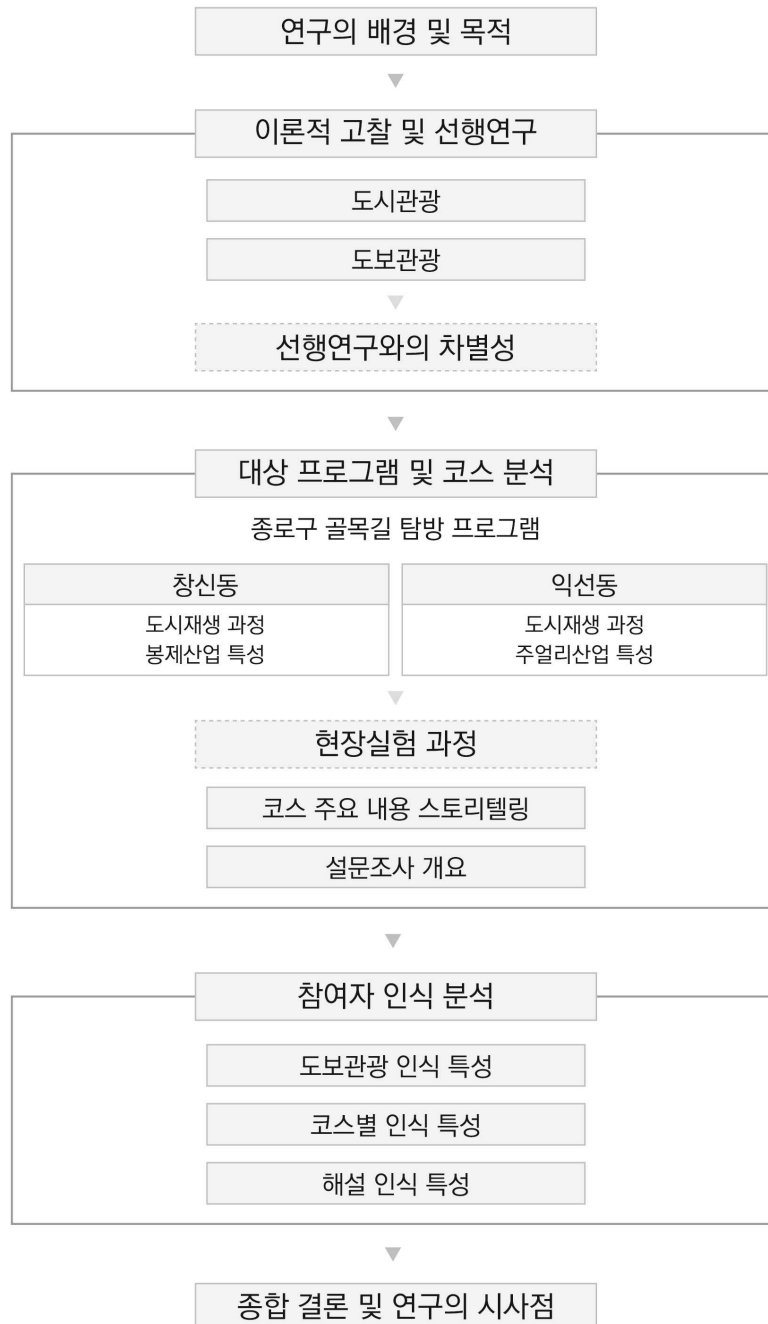
본 연구의 방법은 현장실험 및 설문조사로 이루어지며 구체적인 연구 방법은 3장 4절의 1. 현장실험 과정 그리고 4. 설문조사 개요에서 자세히 설명하였다.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2장에서는 도시관광과 도보관광에 대한 산발적인 개념을 정리하고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연구의 차별성을 제시한다.

3장에서는 연구의 대상인 종로구 골목길 탐방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과 창신동과 익선동 코스를 중심으로 도시재생사업과 특화산업을 중심으로 대상지역을 분석하였다. 또한 구체적인 현장실험 과정에서는 코스 주요 해설 내용과 설문조사 개요를 설명하였다. 주요 해설 내용에는 일반적인 관광 장소에 대한 소개뿐만 아니라 일상공간을 배경으로 하는 생활문화콘텐츠를 조명하여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정리하였다. 생활문화콘텐츠는 일상 생활공간에서 장소들이 가지는 가치로 공통의 기억과 정체성을 담고 있는 장소가 잠재된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고 이해하며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을 통해 중요한 장소자원으로 인식되기(오성훈·남궁지희, 2011) 때문에 주민이 해설하는 참여형 도보관광의 중요한 요소이다.

4장에서는 현장실험을 통해 얻은 설문조사에 나타난 인식 결과를 분석하여 도보관광에 대한 인식, 해설에 대한 인식, 각 코스별 이해도 및 흥미로운 구간의 특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이를 통해 나타나는 도보관광 프로그램의 실질적인 효과와 도시공간에 대한 해석을 제시하였다.

5장에서는 종합적인 결론과 함께 도보관광 프로그램에 대한 시사점과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방안에 대해 제시하였다.



[그림 1-2] 연구의 구성

제2장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검토

1절 이론적 배경

1) 도시관광

■ 도시관광의 정의

오늘날 도시관광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도시관광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내려지고 있지 않으며 연구의 목적에 따라서 다르게 이해되고 있다. 이는 각 도시의 관광요소들이 도시관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들이 부족하고 관련 연구 및 정책이 개별 관광자원 중심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에서 도시관광의 구성요소를 관광객, 기업, 관련 정부, 관광 상품 등 관광을 둘러싼 주체들의 상호관계라는 특성으로 한정하고 있다.

1980년대에는 본격적으로 도시관광에 대한 연구와 관심이 증대되었으며 도시관광은 도시 자체를 관광 목적지로 하여 행해지는 일련의 활동으로서 도시적 환경 속에서 발생하는 관광으로 관광도시보다 광의적이며 농촌관광과는 대비되는 개념으로 정의했다(Murphy, 1980). 관광도시는 도시관광의 활동을 담아내며 관광의 현상이 일어나는 장소적 개념으로 이해된다(김향자·유지윤, 2000).

경제학적으로 도시관광을 공급자와 수요자 측면에서 정의하기도 하는데, 공급자 측면에서의 정의는 도시에서 바라본 도시관광의 개념이며 수요자는 관광객 측면에서 바라본 도시관광의 개념이다(김향자, 2011).

문화체육관광부(1997)는 도시관광을 도시주민 혹은 외부인에 의해서 해당 도시의 형태와 기능 현상 및 기존 도시이미지를 관광대상으로 하여 발생하게 되는 도시 내의 각종 관광여가활동이라고 정의하였으며 최근 국내에서는 ‘도시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관광 행위로 도시의 역사, 문화, 산업 등 도시자산

을 토대로 하여 도시를 경험하는 관광* 으로 정의하였다(김향자, 2014).

Law(1992)은 도시관광의 구조를 공급자 및 수요자 측면에서 유형화하였다. 공급자 측면은 어떤 목적으로 도시를 방문하였는지 도시 내에서 행해지는 모든 관광적 활동을 모두 포함한 것이며 수요자 측면은 도시를 관광할 목적으로 방문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따라서 관광객의 방문목적에 따라 도시의 자연, 문화, 위락 등 다양한 도시자원을 관광, 체험하거나 소비하는 등 다양한 유형이 나타나게 된다. 즉, 도시라는 공간을 관광의 대상으로서 바라보았을 때와 관광객 측면에서 바라보는 도시로 유형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공급자 측면에서의 도시관광은 도시 내에 도입되는 시설, 도시의 관광활동 지구, 도시 자체의 관광적 특성 등 기준이 다양하며 Jansen-Verbeke(1986)은 도시환경 자체를 여가상품으로 보고 도시 내 관광요소를 1차적 요소인 활동적 장소, 여가적 구조물과 2차적 요소인 편의시설, 3차적 조건적 요소인 관광 관련 인프라로 구분하였다. 또한 Hall & Page(2006)는 역사도시, 문화도시, 야간 활동도시, 여가쇼핑도시, 업무도시, 스포츠도시 등으로 구분한 바 있다. 수요자 측면에서는 비즈니스 관광, 쇼핑관광, 이벤트관광(컨벤션관광), 문화관광, 자연(생태)관광, 위락 및 휴양관광 등의 목적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김향자, 2014).

■ 도시관광의 발전과정

역사적으로 도시관광은 도시 경제부흥 및 쇠락해진 도시기능을 회복하는 수단으로 관광산업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면서부터 도입되었다(Law, 1992). 특히, 도시관광의 배경은 제조업과 같은 도시쇠퇴와 불황에 따른 실업률 증가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관광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산업으로 인지하여 도시의 물리적 개선과 도심부의 재개발을 통한 부흥의 수단으로 관광산업을 활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Shaw & Williams, 1994). 하지만 20세기에는 도시화의 진행으로 도시개발에 초점을 두면서 관광산업은 잠시 침체되었다.

최근에 대두되는 세계도시화에 따라 국가 간 경쟁이 도시 간 경쟁으로 전환

되자 각 도시들은 도시 활성화를 위해 기존 자원들을 활용한 문화소비를 유도하고 이와 관련된 관광사업을 육성하는 등 도시를 상품화하여 마케팅하는 방식을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도시재생의 대상이 되는 원도심들은 관광차원에서도 주목받고 있는 곳으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김향자, 2014). 따라서 랜드마크, 기념비적인 건축물이나 조형물이 없어도 그 도시가 가지고 있는 문화자산을 바탕으로 도시경쟁력을 키워나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08년부 도시관광의 경쟁력을 높임으로서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시관광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였다. 초기에는 대형 이벤트 개최도시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해오다가 2011년부터는 도시의 일상을 재발견하는 관광프로그램이나 해당 지역이 보유한 고유 자원의 관광화를 주된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4년부터는 올해의 관광도시, 문화마을 문화도시, 도시재생 선도지역 등 문화·관광·도시재생이 융복합된 도시관광을 선도하고 있다.

■ 도시관광 트렌드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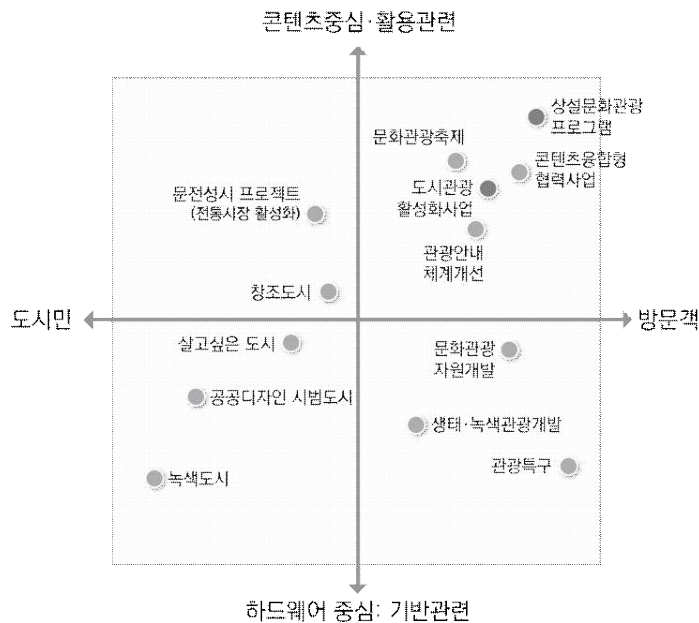
최근 도시관광 트렌드는 수요자 및 공급자 측면에서 다양한 변화를 겪고 있다. 우선 수요자 측면에서는 관광욕구 및 수요에서 개별여행의 증가, 체험형 여가시장 확대, 복합쇼핑몰과 도시형 리조트 등장으로 인한 새로운 특화시장 확대로의 변화가 나타났다. 또한 문화관광 행태 변화로 문화유산에 대한 가치 재조명으로 특히 도심 내의 근대문화유산의 관광자원화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비롯해 지속가능한 발전, 가치적 소비의 확산으로 웰빙,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공급자 측면에서는 최근에는 고유 자산이 집적된 지역이 관광대상으로 주목받고 있어 무분별한 개발을 통한 양적 생산이 아닌 질적 생산, 상품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른 지역경쟁력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도시마케팅, 활성화, 명소화 사업들은 지역의 유희시설 활용, 지역 스토리텔링 등 기존 자원

의 활용에서 시작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참여 확대에도 이바지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국내 도시관광은 양적으로 확충되었으나 질적인 면에서는 안정화단계에 들어서지 못한 상황이다.

■ 도시관광 사업(프로그램)의 유형

도시관광 사업은 도시에서 이루어지는 제반 관광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도시 공간에 적용되는 사업으로 도시관광 사업은 내용에 해당하는 하드웨어와 콘텐츠 자원과 대상에 해당하는 도시민과 방문객으로 분류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인 종로구 골목길 탐방 프로그램은 상설 문화관광프로그램이자 도시관광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2-1] 도시관광 관련 사업 특성 구분도

출처: 김향자(2011) 재작성

또한 도시관광 사업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들 중에서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형태로 운영되는 유형으로는 관람, 체험, 탐방(코스)가 있다. 이중에서 탐방 프로그램은 기존 관광자원이나 관광상품, 매력물을 연계시켜 코스(탐방경로)로 만들어 보행 및 기타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이동하면서 관광하는 프로그램이다. 탐방형식으로는 여행일정이나 이동수단에 따라 다양한 분류가 가능하며 탐방범위 및 수단에 따라 도보탐방, 자전거탐방, 버스타방(시티투어버스)으로 구분할 수 있다.

종로구 골목길 탐방 프로그램이 해당하는 도보탐방은 도시 내 특정지역, 보행권내 한정된 공간범위에서 이루어지는 보행위주의 탐방으로 도시의 골목길까지 구석구석 탐방이 가능하다.

이러한 탐방 프로그램은 관광자원 및 매력물을 연계시킨 일련의 탐방경로를 코스로 개발하여 운영하게 되며, 관광자원의 특색에 따라 역사유적, 박물관 및 미술관, 유명건축물, 식도락, 종교·순례탐방 등 다양한 테마를 가질 수 있다. 또한 지역 및 생활문화자산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탐방하거나 야간경관이 아름다운 곳을 따라 코스를 개발할 수도 있다(김향자, 2011).

[표 2-1] 도시관광 프로그램 정책 요소

구분	내용	관련요소(세부사업)
관람	보고 듣는 행위가 중심이 되는 행사 프로그램	전시 및 공연, 이벤트 도시축제 및 퍼레이드
체험	현장에서 보고 듣는 행위 외에도 관광객 스스로 손과 몸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체험 프로그램	관람형/활동형 현장답사(체험학습)
탐방 (코스)	보행 및 이동수단을 이용하여 특정 노선을 따라 이루어지는 탐방 프로그램	도보/자전거/버스

출처: 김향자(2011) 재작성

2) 도시관광 관련 연구

도시관광에 대한 연구는 지리학을 중심으로 활발히 이루어졌다(Law, 1992; Page, 1995; Shaw & Williams; 1994, Pearce, 1995; Hall & Page, 1999). 이는 지리학이 도시와 관광을 모두 포괄하는 학문이고 1980년대 후반부터 쇠락한 도시의 재생을 위한 여러 방법의 일환으로 관광이 주요 수단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Pearce, 2001).

국내 도시관광 연구는 1990년대부터 도시관광객에 대한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책적, 관광학적 측면에서 시작되었다. 문화관광연구원에서 김향자·유지윤(2000)은 도시관광에 대한 최초의 연구로 도시관광의 주요 구성요소를 파악하고 주요 도시의 관광 현황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도시관광 진흥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관광도시가 갖추어야 할 중점 관광요소를 도출하여 각 요소의 개발방향과 이에 따른 도시 관광의 진흥방안을 제시하였다. 이후 2011년에는 도시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 영역을 도출하고 체계적인 도시관광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을 제시하였다. 가장 최근으로 2014년에는 도시재생 추진에 있어서 관광의 중요성이 대두되나 실질적인 정책 추진이 부진한 실정을 배경으로 도시재생사업에서 관광사업의 영역을 도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정책적 연구에 그쳐있으며 도시관광을 진흥시켜야 한다는 당위적인 목표 아래 전략적 수단을 제시하고는 있으나, 무엇이 중요한 요소인지, 관광기능에 의한 도시의 공간적 성격은 어떠한지, 관광목적지로서의 도시는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등 보다 원론적인 접근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다(공자원, 2011).

3) 도보관광

■ 도보관광의 정의

도보관광은 도시관광의 새로운 관광 형태로 보편화되고 있으나 명확한 정의와 범주는 설정되지 않고 있으며 국내외 관련 연구도 부족한 실정이다. 유사개념으로 도보순례·도보여행·생태탐방·등산·하이킹·트레킹 등 다양한 명칭을 혼재하여 사용하고 있다(강미희·정휘, 2011).

도보관광은 탐방로(길)을 따라 자연적 또는 문화적 자원을 체험하고 감상하며 걷는 형태의 관광이다. 도보 측면에서는 등산의 개념과 비슷하지만 등산이 수직적인 형태로 도보를 진행하는 반면, 도보관광은 수평적인 이동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트레킹은 등산과 하이킹의 중간 형태로 오지를 탐방하는 것이며 하이킹은 심신의 단련과 수양을 목적으로 해변이나 산야를 걷는 행위를 뜻한다. 등산·트레킹·하이킹과 도보관광 모두 자연환경을 보고 걷는다는 동일한 속성을 공유하지만 도보관광의 대상은 도시화된 공간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다른 의미의 형태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정철·노경국·문성중, 2011). 이와 관련한 국외 연구에서 Solmit(2000)은 도보순례와 등산, 도보여행을 비교하여 도보순례는 성화된 길을 따라 목적지를 향해 걸으면서 개인의 성찰을 도모하는 것이고, 등산은 정복의 욕구가 강하여 상징적 결과를 중시하며, 도보여행은 결과가 불확실하고 도착했을 때 성취감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도보관광과 가장 유사한 개념인 도보여행은 길을 따라 종교·문화·역사자원이나 자연·생태자원 등 매력물을 체험하고 감상하며 학습하기를 즐기는 걷는 여행이다(문화체육관광부, 2010). 본 연구에서는 관광의 계획적, 체계적 형태라는 특성(관광학개론, 2017)을 고려하여 종로구 골목길 탐방 프로그램을 도보관광의 관점에서 인식하였다.

국내에서는 도보관광 관련 연구 초반에 ‘보행관광’(김현숙, 1997)이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사용되었으며 현재는 도보관광이라는 용어를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박미현, 2014). 선행연구에서 도보관광의 정의를 살펴보면

도보관광의 중심은 길을 걷는 활동이지만 연계된 관광자원과 문화적 자원을 향유할 수 있다는 점과 개인의 여유로움, 만족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서울연구원, 2012).

[표 2-2] 도보관광의 정의

연구자	정의
정철 · 박태영 · 노경국 (2010)	길을 따라 자연적 자원 또는 문화적 자원을 체험하고 감상하며 걷는 형태의 관광
김인신 · 조민호 (2011)	길과 어우러진 자연 · 생태자원을 감상하고 체험하며, 문화역사자원을 배우고 느끼고자 하는 관광객에 의한 적극적인 활동으로 신체적 · 정신적 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사색하면서 걷는 관광
김소은 · 심연숙 (2011)	길을 따라 자연적 혹은 문화적 자원을 체험하고 감상하며 걷는 형태의 관광
정철 · 정란수 · 이훈 (2011)	길을 따라 종교 · 역사 · 문화자원이나 자연 · 생태자원 등 매력물을 체험하고 감상하며 학습하기를 즐기면서 걷는 관광
최병길 · 이영관 (2011)	자연환경 및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대중관광지를 중심으로 관광객이 주로 도보를 통하여 관광자원과 지역문화 등 관광지에 대해 오감으로 느끼는 관광행동
이수창 · 정옥주 (2013)	길을 따라 자연적 혹은 문화적 자원을 체험하고 감상하며 걷는 형태의 관광
장용운 (2013)	길을 따라 걸으며 그 지역의 역사를 이해하고, 문화 및 자연환경을 체험하고 감상하면서 신체적, 정신적 활동을 하는 관광
박미현 (2014)	방문자가 관광을 목적으로 도보여행길을 걸으며 자연환경 및 역사 · 문화 · 생활 자원을 감상 및 체험하는 행위
이관표 · 권상미 (2017)	환경보호를 기본으로 하며, 자연지역, 문화지역, 역사지역을 감상하며 수평적으로 걷는 행위

선행연구를 토대로 재작성

본 연구에서 도보관광은 하루 이내의 시간 동안 일정 구간의 탐방로(길)을 따라 걸으면서(신체활동), 관광가이드를 동반하거나 개별적으로 역사 · 자연 및 생태 · 문화 · 예술적 장소들을 둘러보고(관광활동), 그 가치를 보고, 듣고, 느끼며 즐기는 형태의 정신활동²⁾으로 정의한다.

2) 반정화(2012), 「서울시 도보관광 활성화 방안 수립」, 서울연구원

도보관광의 유형

도보관광의 핵심 요소인 탐방로는 주변 맥락에 따라 자연·생태적 자원을 배경으로 하는 자연중심형 탐방로와 인근 지역의 문화·역사 자원을 배경으로 하는 문화중심형 탐방로, 그리고 자연과 문화 두 요소를 모두 중요시 하는 혼합형 탐방로로 유형화할 수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10). 종로구 골목길 탐방 프로그램의 개별 코스는 대부분 도심을 배경으로 하는 문화중심형이지만 계곡, 산을 포함하는 혼합형도 혼재하고 있다.

[표 2-3] 도보관광 탐방로 유형

유형	설명	예시
문화중심형	종교, 문화, 역사자원의 체험에 중점	서울 성곽순례
자연중심형	자연, 생태자원의 체험에 중점	제주 올레길, 지리산 둘레길
혼합형	두 가지 유형을 모두 체험할 수 있음	종로구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0) 재작성

또한 도심 도보관광의 유형은 공간적 형태에 따라 고정형, 지점연결형, 선형, 면적형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고정형은 성곽(도성)과 같이 기존에 물리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루트 및 순환형을 구간화하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한양도성 스탬프투어가 있다. 지점연결형은 관광명소를 연결하는 루트로 지점과 지점사이의 물리적 거리가 중요시 된다. 면적형은 특정한 지점보다 구역 전체를 아우르는 형태로 밀집된 산업·문화공간이 주 대상이다. 마지막으로 선형은 비슷한 형태의 길 중 대표적인 하나의 길을 구간화하여 가로의 규모에서 맥락적인 통일성을 띄며 길 자체가 관람의 대상이 된다. 종로구 골목길 탐방 프로그램은 코스별로 선형과 지점연결형이 혼재되어 있다.

[표 2-4] 도심 도보관광의 유형

고정형	지점연결형	선형	면적형
한양도성 스탬프투어	광희문달빛로드 1코스	종로구 청운효자동코스	중구 을지유람

출처: 정연중 · 조항만(2017) 재작성

■ 도보관광의 효용

도보관광은 관광시설에 집중되는 ‘점(點)’의 형태인 일반적인 관광형태와 달리 관광시설을 잇는 이동루트(탐방로) 중심의 ‘선(線)’의 형태가 강조된다. 선 형태 관광은 이미 존재하는 길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기에 환경에 최소한의 영향을 끼치며 지역주민에게는 수익활동, 관광객에게는 자연경관과 지역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더불어 도보관광을 통해 지역 내 잘 알려지지 않은 다양한 소재를 발굴 가능하다는 점도 이점이다.

또한 도보관광은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관광객에게 환경에 대한 지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고, 즐거움 및 만족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 환경에 관심을 증가시키는 기능을 지닌다고 할 수 있으며 단순한 정보전달에 그치지 않고, 다양하고 밀도 있는 문화적 경험을 제공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여러 지자체에서 기존 도심의 역사적·문화적 요소를 도보 관광 상품화하여 새로운 도시경쟁력과 도시재생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서정렬, 2015).

■ 국내 도보관광 동향

본 연구에서는 국내 도보관광 중에서 도심 및 도심 골목길을 대상으로 하는 코스 및 프로그램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도보관광 코스와 프로그램은 크게 해설사의 유무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도보관광 코스는 도보를 통해 관광하는 제안된 일련의 동선을 뜻하며 개인적으로 방문할 수 있다. 이러한 코스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해설사의 스토리텔링이라는 도구가 더해져 별도로 코스를 신청하여 참여하는 것이 도보관광 프로그램이다.

[표 2-5] 도보관광 코스와 프로그램의 차이점

코스	프로그램
도보로 관광할 수 있도록 조성한 코스로 주로 개별적으로 방문	코스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해설사의 스토리텔링이 더해져 신청을 통해 참여

국내 최초의 도심 도보관광 탐방 프로그램은 대구 중구 근대로의 여행, 골목투어이다. 골목투어는 2006년 민선4기 윤순영 구청장이 취임하면서 이상화, 서상돈고택을 중심으로하는 문화지구 조성을 구상하는 과정에서 인근 동산-계산성당-이상화·서상돈고택-약령시로 이어지는 근대문화공간디자인개선사업이 국비공모사업(2007~2009)에 선정되면서 시작되었다. 이를 계기로 20세기 근대사를 고스란히 스토리로 담아낸 근대골목이 만들어졌고, 2000년 초부터 이어진 시민단체의 원도심 역사문화발굴보존운동이 근대골목투어 프로그램(5개 코스)으로 활성화되면서 ‘대구 골목투어’로 현재까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서울시는 2009년부터 서울의 주요 관광 명소를 서울문화관광해설사의 전문적인 탐방을 들으며 도보로 탐방하는 도보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도보관광코스는 전통문화 중심지역, 근대문화 중심지역, 생태복원지역, 전통시장 지역, 고대문화 중심지역, 테마코스 등 6개 테마로 분류하여 20개 코스 및 서울시청사 통통투어, 남산골한옥마을, 전쟁기념관 등 상설운영코스 3개를 포함하여 총 23개 코스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 내 탐방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지자체로는 강남구, 서초구, 서대문구, 송파구, 중구, 종로구가 있다. 강남구는 한류스타거리·연예기획사, 봉은사·코엑스, 가로수길·강남관광정보센터, 선·정릉, 압구정로데오거리·도산공원, 강남역·국기원 등 총 6개 코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송파구는 2017년부터 한성백제왕도길1·2, 책읽는 역사길을 운영하였고 올해 추가로 석촌호수 데이트길을 신설하여 총 4개 코스를 운영하고 있다. 중구는 한양도성 스텝투어 남산구간, 광희문 달빛로드 4개 코스(조선시대 역사, 근현대사 역사, 이색 건축물, 하이라이트 투어), 탐방사와 함께하는 도보관광 5개 코스(을지유람, 장충단 호국의 길, 중구 순례역사길, 정동한바퀴, 중앙시장 먹깨비투어)으로 프로그램이 세분화되어 있으며 총 10개 코스를 운영 중이다. 서초구는 2017년 7월 말부터 탐방사를 양성하여 2018년 3월부터 윤봉길의사기념관~양재시민의 숲, 대법원 전시관~누에다리, 양재역~외교사료관, 양재역~서울행정법원, 한전 전기박물관~사도감터 등 총 5개 코스를 운영한다. 서대문구는 2018년 4월, 지역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해 탐방여행을 선호하는 트렌드에 맞춰 스토리텔링이 있는 도보관광코스를 발굴하고 대학생 해설사를 양성 및 운영한다고 밝혔다.³⁾ 2018년 5월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에 운영할 예정이며 독립운동을 테마로한 의주로, 대학문화의 메카 신촌, 무악재역에서 출발하는 힐링로드 등 총 3개 코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종로구는 한양도성 스텝투어 백악(북악)산, 낙산, 인왕산 구간 3개 코스, 골목길 탐방 26개 코스 등 총 29개 코스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정부부처 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상시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일정 시기, 회차만 진행하는 한시적 프로그램도 등장하고 있다. 2017년 봄 여행주간 동안 도시의 재발견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서울 예술통을 비롯해 전국 16개 코스를 운영했다. 또 서울시와 (사)서울도시문화연구원은 2017년 5월부터 25회에 걸쳐 서울미래유산 문화탐방을 운영하였으며 야경을 테마로 한 프로그램으로는 한양도성 달빛기행, 정동한바퀴의 야간 버전인 정동야행을 개최하였다.

3) 서대문구(2018.4.2.), ‘스토리텔링 도보 탐방여행 어때요?’, 보도자료.

[표 2-6] 서울시 내 상설 도보관광 프로그램 현황(2018년 기준)

지자체	코스명		합계
서울시	① 서울로7017 한양에서 서울로	⑬ 경희궁·사대문	23
	② 서울로7017 근현대 건축기행	⑭ 덕수궁·정동	
	③ 서울로7017 야행(야간코스)	⑮ 남산성곽	
	④ 청계천1	⑯ 낙산성곽	
	⑤ 청계천2	⑰ 한강철두산성지	
	⑥ 몽촌·풍납토성	⑱ 인사동	
	⑦ 선정릉·봉은사	⑲ 전통시장	
	⑧ 북촌 한옥마을	⑳ 서울시청사 통통투어	
	⑨ 서촌 한옥마을	㉑ 성균관 공간과 인물들	
	⑩ 창덕궁	㉒ 세종대로 한글 가온길	
	⑪ 창경궁	㉓ 대학로 건축물	
	⑫ 경복궁		
강남구	① 한류스타거리·연예기획사	④ 선·정릉	6
	② 봉은사·코엑스	⑤ 압구정로테오·도산공원	
	③ 가로수길	⑥ 강남역·국기원	
송파구	① 한성백제왕도길1	③ 책읽는 역사길	4
	② 한성백제왕도길2	④ 석촌호수 데이트길	
중구	① 한양도성 스텝프투어 남산구간	⑥ 을지유람	10
	② 광희문 달빛로드1(조선시대)	⑦ 장충단 호국의 길	
	③ 광희문 달빛로드2(근현대)	⑧ 중구 역사순례길	
	④ 광희문 달빛로드3(이색 건축물)	⑨ 정동한바퀴	
	⑤ 광희문 달빛로드(하이라이트)	⑩ 중앙시장 먹거리투어	
서초구	① 윤봉길의사 기념관 > 시민의숲	④ 양재역 > 서울행정병원	5
	② 대검찰청 박물관 > 누에다리	⑤ 한전 전기박물관 > 사도감터	
	③ 양재역 > 외교사료관		
서대문구	① 민주와 독립의 열망을 품은 길, 의주로	③ 나만의 힐링로드	3
	② 대학문화의 메카 신촌 탐방		
종로구	① 한양도성 스텝프투어 백악구간	⑮ 이화동(A,B)	29 (41)
	② 한양도성 스텝프투어 낙산구간	⑰ 혜화명륜동(A,B)	
	③ 한양도성 스텝프투어 인왕구간	⑱ 창신동(A,B,C)	
	④ 청운효자동(A,B)	⑲ 숭인동	
	⑤ 세종마을	⑳ 진경산수화길	
	⑥ 사직동(A,B)	㉑ 인왕자락 문학산책길	
	⑦ 삼청동	㉒ 인왕산자락 이야기길	
	⑧ 부암동(A,B)	㉓ 문학둘레길	
	⑨ 평창동(A,B)	㉔ 체부동 예술가길	
	⑩ 무악교남동	㉕ 종교문화유적길	
	⑪ 교남동	㉖ 세종한울길	
	⑫ 북촌(A,B,C)	㉗ 시전행랑길	
	⑬ 종로 1~4가	㉘ 소파방정환길(A,B)	
	⑭ 익선동(A,B)	㉙ 광장시장	
	⑮ 종로 5~6가		

4) 도보관광 관련 연구

■ 도보관광지 관련 연구

국내 도보관광 연구는 제주도 올레길 이후인 2000년대 후반부터 활발히 진행되기 시작해 도보관광 개발 및 활성화 연구, 방문자의 동기·만족도·재방문 의도 중에서 특히 동기 및 만족도 연구에 집중되어 있다.

도보관광 개발 및 활성화 연구에서 김현숙(1997)은 보행관광이란 용어를 처음 제시하여 보행관광 활성화를 위해 팜플렛과 지도를 통해 관광동기 유발과 관광지로의 안내 기능 강화를 도모할 것을 제안하였다. 장용운(2013)은 서울시 도보관광 코스 연구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다양한 코스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 안내체계 및 홍보 강화, 통합적 운영·관리체계의 구축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도보관광의 진흥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주로 공급자(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 및 설문조사에 그쳐 있어 수요자 특성을 반영한 방안의 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박미현, 2014).

도보관광의 동기 및 만족도에 관한 연구는 주로 제주도 올레길(김인신·조민호, 2011; 노경국, 2011; 정철 외, 2010, 2011; 최병길·이영관, 2011; 윤조훈, 2013), 지리산 둘레길(강미희·정휘, 2011), 팔공산 둘레길(윤찬수, 2015)과 같은 자연중심형 탐방로에 편중되어 있어 탐방로 유형마다 환경과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문화중심형 및 도심 도보관광지에 적용시키기에 적합하지 않다.

도시환경 분야에서는 도심 도보관광에 영향을 주는 보행환경과 보행자들의 이동특성 관련 연구들을 찾아볼 수 있으나 주로 보행공간의 물리적 특성을 밝히는데 그쳐있다(변지혜·박경훈·최상록, 2010; 서한림·박소현, 2007)

문화·역사자원을 중심으로 한 도심 도보관광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일부 진행되었다. 김준연·한영호·오상민(2011)은 종로구 20코스를 대상으로 역사·문화·휴식여가·자연생태 공간으로 분류하여 주요 특성을 분석하고 도보관광 코스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점을 시사하였다. 김소은·심연숙(2011)은 서울시 도보관광 현황을 파악하고 청계천, 인사동, 명동, 정동 방문객을 대상

으로 인지도, 수요, 이용현황 조사를 통해 도보관광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박충환(2016)은 민간주도 시민문화운동에서 정부주도 도심재개발 프로젝트로 변환되는 대구근대골목투어의 독특한 진화 궤적과 근대골목을 대상으로 형성되어온 정치적 지형을 박물관화와 스토리텔링이라는 측면에서 조명하였다.

이진아(2017)는 중구 도보관광 프로그램 코스인 「을지유람」을 중심으로 골목길 투어가 등장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고 여러 주체들의 이야기를 정리하여 그 의미를 살펴보았으며 골목길 투어는 도시를 읽는 시도, 일상공간을 낯설게 보려는 시도, 비자본주의적으로 도시를 성찰하려는 시도를 하는 사람들의 등장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정연중(2018)은 을지유람을 도심부 내 부정적 시설이 밀집한 지역이 관광의 대상으로 전환되는 급격한 인식 변화의 결과물로서 바라보고 이러한 현상에 대한 공간적 차원의 일환으로 도시형태, 산업특성으로 분류하여 관광공간의 특성을 유형화하여 고찰하였다.

■ 문화관광해설사 관련 연구

도보관광 코스는 자율적으로 방문할 수 있으나 도보관광 프로그램은 해설사의 스토리텔링이 더해져 신청을 통해 방문하는 것으로 문화관광해설사를 대상으로 진행된 선행연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문화관광해설사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침에 따라 운영되었으나 지난 2011년부터 관광진흥법에 법적 규정이 신설되면서 본격적으로 체계적인 운영이 이루어졌다. 이에 최경은(2013)은 관광진흥법 조항으로 신설된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 인증제도의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법제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실질적으로 문화관광해설사 관련 연구는 2000년대 후반부터 진행되었으며 주로 문화관광해설사 제도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와 문화관광해설사의 해설과 역량이 관광객의 만족도와 재방문 의도에 끼치는 영향에 집중되어 있으며 문화관광해설사를 대상으로는 직무만족도 연구가 있다.

진보라(2016)는 관광정책현상 연구의 일환으로 정책 발전시기에 따라 문화

관광해설사 제도가 나타내는 경로의존적 특징을 분석하였으며 엄완용(2014)은 문화관광해설사의 제도적 문제점을 파악하고 델파이 기법을 활용한 전문가 집단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제안하여 문화관광해설사 자격 제도의 필요성을 입증하였다.

이진영(2011)은 전주 한옥마을과 수원 화성을 대상으로 문화관광해설사의 역할이 방문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재방문 및 추천을 유도하는데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상관관계를 입증하였다. 손현수(2015)는 대구근대골목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문화관광해설사의 해설 요인이 진행능력, 전문지식, 해설 태도 순으로 관광객의 감정반응과 만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밝혔다. 홍수연(2012)은 전주한옥마을 문화관광해설사의 역할숙성에 대한 IPA분석을 통해 문화관광해설사의 역할숙성 요인이 만족도에 끼치는 영향관계를 파악하였다.

2절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본 연구에서는 도시관광 및 도보관광에 관한 일련의 연구를 살펴보았다. 우선 도시관광의 분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관광객의 도시관광에 대한 경험이다(김향자, 2014). 하지만 도시관광 관련 연구는 주로 정책 및 연구동향이 주를 이루고 있다. 도보관광 관련 연구 역시 관광객의 재방문의도와 행태 분석을 파악하는데 그쳐있으며 특히 도심 도보관광지를 대상으로 한 공간적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문화관광해설사와 관련된 연구는 제도 운영 방안과 함께 연구 대상은 역사적 장소, 체험마을 등 일반적인 점(點) 형태의 관광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단순한 역할 속성과 만족도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연구 방법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참여자가 실제로 인지했던 해설 내용을 파악하기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시에 위치한 도보관광지 관련 연구의 필요성에 따라 골목길을 주된 요소로 한 도보관광 프로그램인 종로구 골목길 탐방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수요자(참여자)의 관점에서 도보관광을 인식한다는 점, 그리고 단순히 도보관광지에 얹힌 스토리텔링이 아닌, 도보관광을 통해 참여자가 실제로 흥미롭게 인식하는 도시공간을 지역적 특성으로 해석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제3장 프로그램 및 대상 코스 분석

1절 종로구 골목길 탐방 프로그램

1) 프로그램 개요

■ 프로그램 연혁

종로구는 1392년 조선의 건국이후 한양천도와 함께 오늘날까지 약 600여 년 동안 서울의 중심부로 25개 구청 가운데 행정서열 1위인 문화, 행정의 심장부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오고 있다. 종로라는 명칭은 지금의 종로1가에 도성문의 개폐시각을 알려주는 큰 종을 매달았던 종루에서부터 비롯되었으며 1943년 4월 1일 구제도(區制度)를 실시할 때 종루(鐘樓)가 있는 거리라는 뜻으로 종로구가 되었다.⁴⁾ 현재에도 종로구는 서울의 중심구로 국가 주요 공공기관이 위치하여 정치·경제·문화의 중추적인 도심지역이다. 현재 종로구는 2012년에 개편된 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부암동, 평창동, 무악동, 교남동, 가회동, 종로1·2·3·4가동, 종로5·6가동, 이화동, 혜화동, 창신1동, 창신2동, 창신3동, 숭인1동, 숭인2동 총 17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종로구 골목길 탐방 프로그램은 종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주민들이 직접 골목길 구석구석을 안내하며 역사·문화관광·자연생태 등 종로구의 자원에 대해 탐방을 해주는 종로구만의 특화된 탐방 프로그램이다. 2000년대 후반부터 북촌에 관광객이 유입되면서 종로구에서는 2009년 7월, 600년 옛 도시의 역사와 문화가 깃들어있는 종로의 골목길을 직접 걸으면서 즐기는 도보관광 코스를 개발하였다. 이는 문화관광 친화(Friendly) 이미지 제고, 쾌적한 동네환경 조성 강화, 관광객 유치 확대와 지역경제 소득 창출, 국내외 관광객에게 사랑받는 글로벌 관광목적지 구축 및 활력 넘치는 이미지 제고, 글로벌 문화관광 콘텐츠 구축 및 관광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하였다.

4) 종로구 홈페이지, <http://www.jongno.go.kr/Main.do?menuNo=18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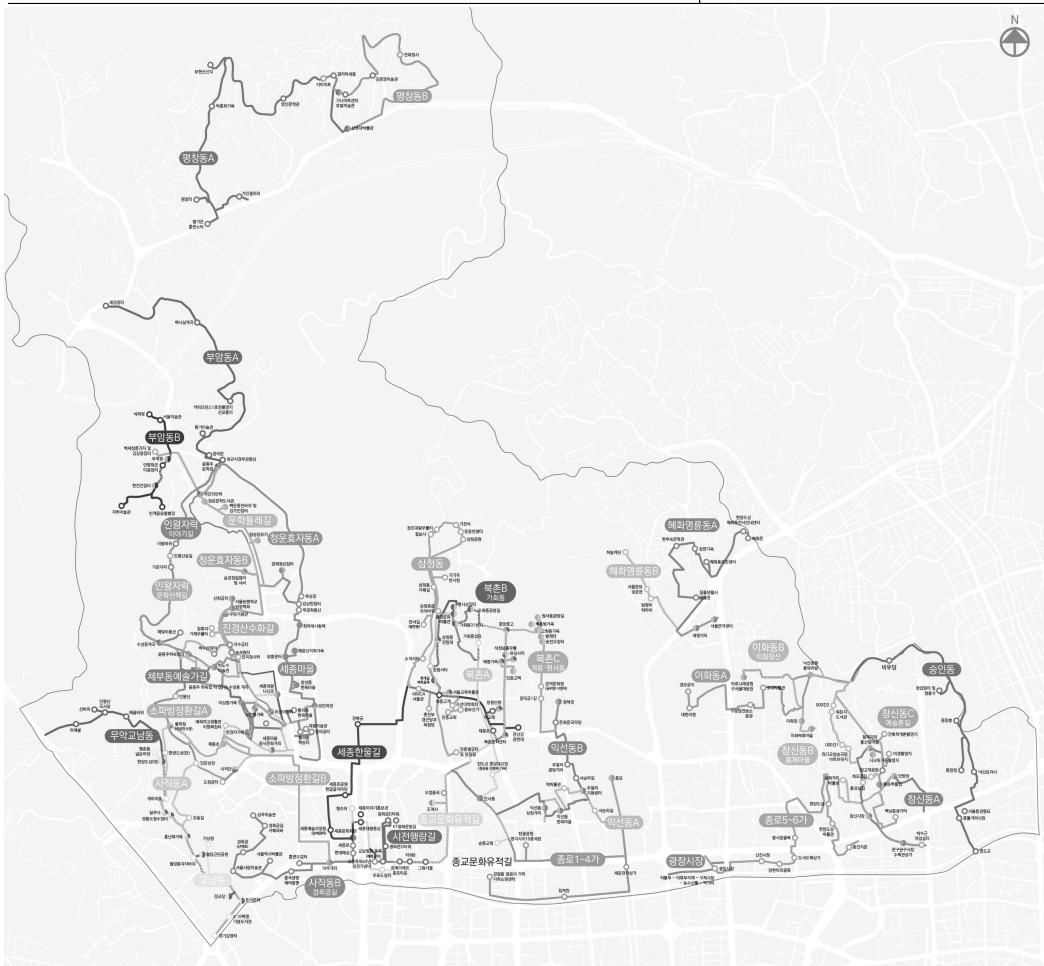
하지만 이후 2010년 10월, KBS2 해피선데이 1박2일 서울 특집에서 북촌8경이 등장하면서 북촌에는 국내외 관광객이 더욱 몰리기 시작했다. 이에 종로구에서는 해법으로 북촌 골목길 탐방사(당시 명칭) 양성을 시작하여 시민단체 도시연대에 교육을 의뢰했다. 애초 도시연대는 북촌에서의 활동을 바탕으로 마을도슨트라는 개념을 구상했는데, 미처 실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종로구청 관광산업과로부터 북촌 골목길해설사 양성교육을 의뢰받았다. 내용은 주민을 해설사로 양성하여 관광수요에 대응하고 주민에 의해, 주민을 통한 마을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관광규약도 만들어 실천하자는 취지였다. 또한 단순한 관광 프로그램이나 상품에 그치지 않고 역사문화자원과 연계된 생활문화콘텐츠의 발굴과 재생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주민참여 마을만들기의 새로운 매개체로 골목길 해설사 프로그램을 확대 및 적용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⁵⁾

이에 종로구 관광산업과에서 모집 및 선발, 도시연대에서 교육 및 평가를 비롯한 양성과정을 진행하였고 2011년 10월 22일, 북촌·계동·가회동·삼청동 등 총 4개의 코스를 시작으로 골목길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2012년 1월 6일에는 2차로 이화동·혜화동·명륜3가동을 신설하였다. 2기의 경우 노인들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종로노인종합복지관과 함께 해당 3개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선발하였다. 2012년 6월에는 3차로 부암동·평창동을 운영하며 지속적으로 코스를 확대해왔다. 2017년에는 체부동 예술가길, 인왕자락 문학산책길, 인왕산자락 이야기길과 소파 방정환길이 신설되어 현재는 총 26개 코스(세부 38개 코스)로, 세부적으로 16개의 동·마을 코스와 10개의 길·테마 코스를 운영 중이다. 또한 올해 하반기에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보성사터, 태화관 등으로 구성된 3·1 운동길을 운영할 계획이다.

5) 박승배, “종로구 골목길 해설사의 소개”, 「견고싶은 도시」, 2012.7.8.월호, pp.12-17. 재정리

[표 3-1] 종로구 골목길 탐방 프로그램 운영 코스

동 · 마을 (16)		길 · 테마 (10)
교남동	이화동(A/B-이화창신)	광장시장
무악교남동	익선동(A/B-서순라길)	문학들레길
부암동(A/B)	종로 1-4가	세종한울길
북촌(A/B-가회동/C-계동 · 원서동)	종로 5-6가	소파 방정환길(A/B)
사직동(A/B)	창신동(A/B-봉계마을/C-예술혼길)	시전행랑길
삼청동	청운효자동(A/B)	인왕자락 문학산책길 · 이야기길
세종마을	평창동(A/B)	종교문화유적길
승인동	혜화명륜동(A/B)	진경산수화길
		체부동 예술가길



[그림 3-1] 종로구 골목길 탐방 프로그램 운영 코스 지도 (연구자 작성)

■ 프로그램 참여과정

종로구 골목길 탐방 프로그램은 종로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프로그램은 코스별로 2시간~3시간까지 소요되고 하루에 오전 10시, 오후 2시 두 그룹으로 운영하며 예약 인원이 6명⁶⁾ 이상일 경우 골목길 해설사가 배정된다. 참여인원 10명이 넘을 경우 10명당 골목길 해설사 1명씩이 배정된다. 최소 3일 전부터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하며 21명 이상 단체는 최소 5일 전에 예약해야 한다.

신청을 완료하면 예약완료 문자가 전송되며 예약일 이전까지 골목길 해설사가 배정된 후, 골목길 해설사로부터 전화 또는 문자로 연락을 받게 된다. 이 과정부터는 종로구가 아닌 골목길 해설사와 협의하게 된다. 골목길 해설사는 신청자에게 어떤 코스를 원하는지, 특별히 보고 싶거나 가보고 싶은 장소가 있는지를 묻고 신청자가 원하는 스타일에 맞춰 코스와 시간을 조율하여 구체적인 만남 장소와 시간을 정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해당 코스에 없는 다른 장소를 추가 또는 기존 코스 중 일부를 제외할 수 있으며 다른 코스와 결합하여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표 3-2] 종로구 골목길 탐방 프로그램 이용 안내

항목	내용
관광코스	청운효자동 등 총 26개 코스(세부 38개 코스)
소요시간	2시간~3시간으로 코스별 상이
운영시간	오전 10시, 오후 2시(연중)
탐방인원	참여인원 10명당 골목길 해설사 1명씩 배정
탐방언어	한국어
이용료	무료(박물관, 미술관 입장료는 개인 부담)
신청방법	최소 3일전 인터넷 신청(21명 이상 단체는 5일전)
신청대상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
신청인원	1인~100인 이내 *6인 이상 모집 시 골목길 해설사 배정

6) 2016년까지 최소 출발 인원은 4명이었으나 2017년부터 6명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2) 프로그램 특징

■ 골목길 해설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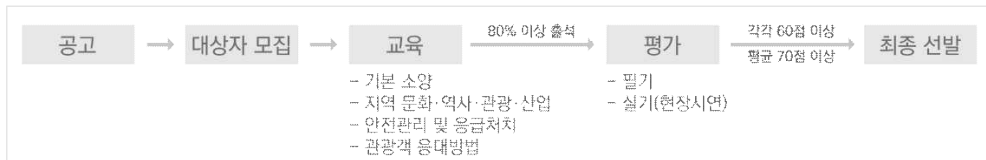
일반적으로 문화재, 문화유산에 대한 탐방은 문화체육관광부 규정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가 진행해왔으나 최근에는 지자체 자체적으로 문화관광탐방사 조례를 시행하여 운영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역사유적지 및 문화재를 해설하는 문화관광해설사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객의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탐방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따라서 누구나 교육을 신청하고 이수하여 문화관광해설사가 될 수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령에 의거 인증된 양성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문화관광해설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최근 서울시 내에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운영하는 강동구·강북구는 해당 지자체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모집하고 있으며 광진구·구로구·마포구·송파구·중구는 해당 지자체 거주민을 우선으로 하고 있다. 유일하게 종로구만이 문화관광해설사가 아닌 관광해설사라는 용어를 조례에 사용하고 있으며 해설사 종류를 골목길 해설사, 서울 한양도성 해설사, 시·청각 장애인 종로문화관광탐방사로 분류하였다. 또한 시·청각 장애인 종로문화관광해설사를 제외하고는 종로구민으로 자격이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골목길 해설사는 종로구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한 특화된 문화관광해설사로 일반적인 문화관광해설사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문화관광해설사와도 차별성을 가진다.

종로구 관광해설사들은 공고를 거쳐 대상자를 모집하고 규칙으로 정해진 해설사 교육과정 이수 및 평가를 통하여 선발된다. 교육과정은 기본소양, 지역의 문화·역사·관광 산업, 안전관리 및 응급처치, 관광객 응대방법을 포함하여 최소 70시간 이상으로 구성 및 운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관광산업의 패러다임 변화, 서울의 역사, 스토리텔링 기법을 포함한 이론 수업뿐만 아니라 그룹별 워크숍을 통해 동네를 상징하는 동물 정하기, 동네의 장단점, 자신이 알고

있는 역사·문화자원을 이야기해보고 도보관광 코스를 기획하면서 실제 답사를 통해 소요시간이 적당한지, 방문객의 관심을 끌만한지, 동네의 매력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지 점검해보는지 등의 교육 내용을 포함한다.

교육과정 참여자 중 출석률 80% 이상 이수자에 한하여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 평가는 필기 및 실기평가(현장시연)로 구성되며, 실기평가(현장시연)의 경우 관광업무 관련 공무원과 관련 분야 외부 전문가로 5명 이내로 구성된 선발평가단이 평가한다. 평가를 통해 필기 및 실기 점수가 각각 최소 60점 이상이고 총합의 평균이 70점 이상인 사람을 최종 선발한다.⁷⁾



[그림 3-2] 종로구 관광해설사 선발 과정

종로구 관광해설사 중에서 골목길 해설사에 대해서는 연1회 「골목길 해설사 심화교육」을 필수 교육으로 실시하고 있다. 골목길 해설사는 총 20시간 교육시간 중 80% 이상 출석하고, 탐방 시나리오 평가에 참여해야 당해 연도 탐방을 진행할 수 있으며 교육은 이론 학습과 현장 탐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론 학습은 스토리텔링을 활용, 기획 등에 관한 강의 및 지역 역사와 문화에 대한 강의를 듣고 시나리오를 작성하며 현장 탐방의 경우 현재 운영하고 있는 코스 중 일부를 선정하여 답사한다. 2018년 2월에 실시한 심화교육에서는 세종마을, 창신동, 운영 예정인 3·1운동길을 방문하였다.⁸⁾

즉, 골목길 해설사는 지역주민이 기본 소양을 갖추고 관광객을 만남으로서 단순한 역사적인 사실을 제공하는 해설서비스가 아니라 자신의 경험과 이야기를 전달한다는 차별성으로 다른 동네에 거주하는 이웃으로 작용하고 있다.

7)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및 김미령, “종로구 골목길 해설사의 소개”, 「견고싶은 도시」, 2012.7.8.월호, pp.24-25. 참고
8) 종로구(2018.2.22.), ‘구석구석 누비는 골목길 이야기’, 보도자료

■ 참여 통계

종로구 골목길 탐방 프로그램은 2012년 377건, 2013년 792건, 2014년 934건, 2015년 1,012건으로 최고 운영건수를 달성하였으며 2016년에는 975건, 2017년에는 943건을 운영하였다. 2017년 총 참여인원은 13,550명으로 2016년에 비해 운영건수는 적지만 참여인원은 5.16%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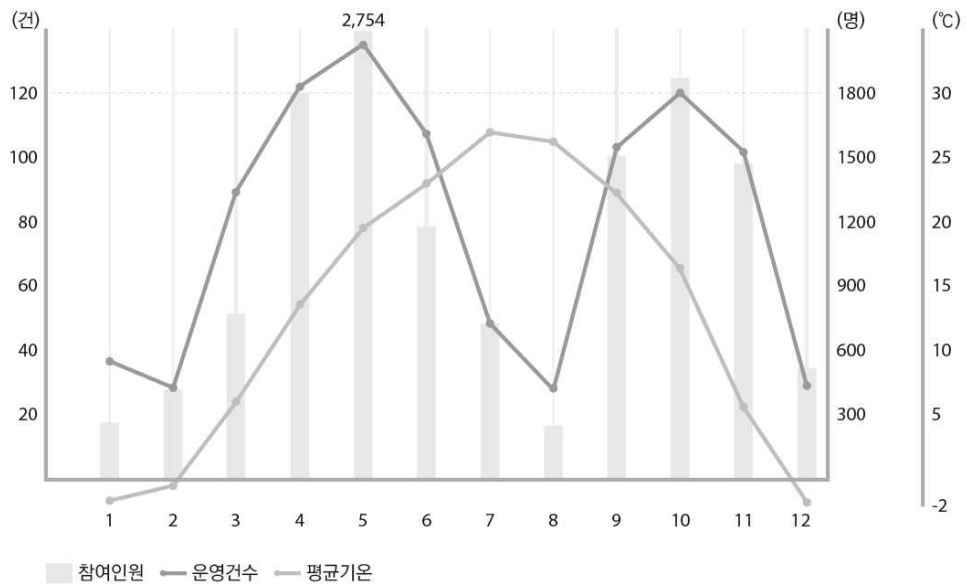
2017년 참여 인원이 가장 많았던 코스는 세월을 거니는 한옥마을길 북촌, 도심 속 생태를 탐방하는 부암동, 서민의 역사와 일상이 녹아있는 세종마을이었으며 가장 참여율이 저조한 코스는 소파 방정환길, 종로 5~6가, 종교문화유적길, 시전행랑길 순이다. 이는 종로구 골목길 탐방 프로그램 참여자가 주로 지방 공무원 단체 답사 및 학교 커리큘럼의 일환으로 문화기행수업에서 중·고등학생들이 참여하는 단체참여자(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종로구 내에서 관광지로 인지도가 가장 높은 북촌, 서촌지역에 대한 수요가 훨씬 높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2017년 운영건수와 참여인원은 1월에서 5월까지 꾸준히 증가하면서 5월에 운영건수 134건, 참여인원은 2,754명으로 최대를 기록하다가 하절기로 갈수록 급격히 감소하면서 8월에는 운영건수 27건, 참여인원 263명으로 가장 참여율이 저조하다. 이후 가을이 되면서 다시 증가하다가 동절기로 갈수록 감소하는 M형태의 그래프를 그리게 된다. 또한 도보관광 프로그램의 경우, 날씨와 기온의 영향이 참여도, 만족도에 끼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월별 평균기온을 토대로 분석해보면 동절기와 하절기에 참여율이 저조하고 통상적으로 사람이 가장 쾌적하다고 느끼는 22℃⁹⁾에 가까울수록 참여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9) 농촌진흥청, “쾌적온도”, 「농업과학도서관 디지털농업용어사전 3.0」,
<http://lib.rda.go.kr/newlib/dictN/dictSearch.asp>

[표 3-3] 2017년 참여 통계 및 평균 기온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통계
평균 기온(℃)	-1.8	-0.2	6.3	13.9	19.5	23.3	26.9	25.9	22.1	16.4	5.6	-1.9	-
운영 건수(건)	36	28	89	122	134	106	47	27	103	120	102	29	943
참여 인원(명)	398	287	764	1,800	2,754	1,187	740	263	1,508	1,871	1,479	499	13,5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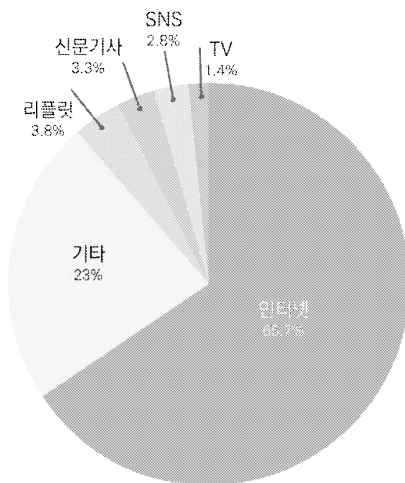


[그림 3-3] 2017년 참여 통계 및 평균 기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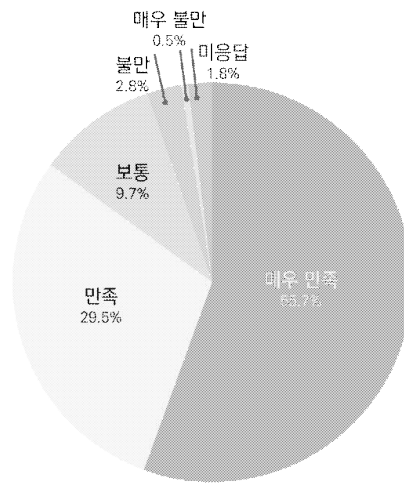
출처: 종로구청 관광체육과 제공 자료 및 기상청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만족도 설문조사

종로구에서는 운영에 대한 만족도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모니터링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분기별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설문은 총 14문항으로 참여자의 일반 특성(성별, 연령, 거주지), 프로그램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방문 코스, 담당 골목길 해설사, 알게 된 경로, 참여 동기, 참여 인원), 골목길 해설사에 대한 만족도(서비스 만족, 전문지식 함양, 전달력, 태도)와 향후 참여의사, 주관식 건의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7년 만족도 설문조사에 따르면 프로그램에 접하게 된 경로는 인터넷 65.7%, 기타 23%, 리플릿 3.8% 순이며 신청 동기는 교육목적 70%, 관광목적 23% 순으로 교육목적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골목길 해설사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만족이 55.7%, 만족 29.5%로 대체적으로 만족한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향후 프로그램 재참여 의사는 참여가 94.5%로 대부분이 재참여 의사를 밝혔다.¹⁰⁾ 하지만 종로구에서 실시하는 만족도 설문조사는 단순히 해설사에 대한 만족도에 그쳐있어 도보관광과 도시공간적인 맥락에서의 프로그램 평가로는 한계가 있다.



[그림 3-4] 프로그램 접근 경로



[그림 3-5] 프로그램 만족도

10) 종로구청 관광체육과 제공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하였다.

■ 사전 인터뷰

종로구 골목길 탐방 프로그램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파악하기 위하여 연구자가 기본적인 숙지를 위해 사전 참여한 프로그램 일자에 동행한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주요 인터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저희 중학교 1학년은 자유학기제여서 문화기행수업이 있어요. 문화기행수업으로 학교에서 단체로 예약을 해서 오게 됐죠. 학교에 있는 것보다 나와서 현장학습을 하니까 더 좋아요.”

2017.09.20. 북촌 코스 10대 참여자 000

“우리는 대학교 동창 모임이고 현재 다들 초등학교 선생님이예요. 1달에 한 번 모이는데, 제가 다른 코스를 다녀온 적이 있어서 이번 모임은 종로구 해설을 들어보자고 제안했죠. 동네에서 밥을 먹고 카페를 가는 것보다 이렇게 다른 지역에 와서 해설까지 들을 수 있으니 더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친구들도 다 좋아해서 앞으로도 모임 날에 프로그램을 신청하고 해설이 끝나면 그 동네 맛집을 가는 방식으로 할 예정이에요.”

2017.09.30. 부암동 코스 40대 참여자 000

“10월에 북촌 축제를 갔다가 거기서 종로구 해설사분이 설명하는걸 듣고 이 프로그램을 알게 됐어요. 지금 휴직 상태라 여유가 있어서 관심 있는 코스를 신청해서 다니는 중이에요. 그런데 6명 이상 신청해야 운영된다는 점이 너무 아쉽네요. 해설사 배정을 위해 3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는 점은 괜찮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평일에 2명 또는 3명으로 신청을 하니까 예약 전날까지 6명이 안되면 운영을 못한다고 통보를 받게 되니 다른 약속을 잡아두기도 애매하게 되죠.”

2017.11.24. 종로 1~4가 코스 40대 참여자 000

“지자체에서 무료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점은 너무 좋죠. 그래서 동창 모임 회원들과 매주 목요일에 한 코스씩 신청하고 있어요. 홈페이지에 기재된 순서대로 예약을 하다 보니 지금까지 서촌을 중심으로 하는 코스만 다녀왔네요. 서촌을 중심으로 한 코스들은 겹치는 구간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엔 순서에 상관없이 종교문화유적길을 신청했어요. … 코스가 겹치는 구간은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어요.”

201804.26. 종교문화유적길 코스 40대 참여자 000

“남편이 주말 나들이로 예약했어요. 아이들과 함께 4명을 예약하는데 이번엔 운 좋게 다른 분들이 계셔서 참여할 수 있었어요. 저번에는 정원 미달로 배정이 취소될 때도 있어서 일부러 이미 6명이 넘게 예약된 신청일에 신청을 하니 단체 예약 손님이라서 다른 그룹과의 동행을 원치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무료로 주민들의 해설을 들을 수 있는 점은 너무 좋은데, 신청과정이 번거롭게 느껴지긴 해요.”

2018.04.22 북촌 코스 30대 참여자 000

인터뷰 내용을 정리하면, 학생을 제외한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한양도성과 같은 타 도보관광 프로그램을 통해 종로구 골목길 탐방 프로그램을 접하였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참여자들은 지자체에서 해당 지역에 대해 주민들이 직접 해설을 진행하고 무료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프로그램 신청 과정에서 진행여부의 불확실성과 신청인원 등에 대해 상당한 번거로움을 느끼고 있다. 따라서 추후 홈페이지 설문조사에서는 수요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방식에 대한 문항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3) 대상 코스 선정

실험 대상 코스를 선정하기 위하여 우선 종로구 골목길 탐방 프로그램 코스를 세부 유형화하였다. 유형화 기준은 선행연구와 관련 정책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였으며 역사, 문화, 주거·생활, 관광·소비, 자연·경관으로 분류하였다. 각 코스의 세부요소 구성을 파악하여 유형화한 결과, 역사 코스가 21곳, 문화 코스가 3곳, 관광·소비 코스가 5곳, 자연·경관 코스가 2곳으로 나타났으며 역사·문화 코스는 5곳, 부암동A코스는 부문 공통으로 나타났다.

[표 3-4] 코스 유형화 기준

대분류	중분류	세부요소
역사	궁궐·도성 관아·관청	궁궐, 궁터, 도성, 사대문, 종묘 및 사직, 정치국방 관련 시설, 관청
	역사적 인물 관련 건축물	가옥, 별장, 별장터, 집터, 사당
	거리A	도시형태가 유지된 역사적 거리
	거리B	현대화로 도시형태가 변형되었으나 역사적 가치가 보존된 거리
	기념물	동상, 비석, 기념비, 표지석
	근현대 건축물	랜드마크 성격을 가지며 미래에 역사적 가치를 지닐만한 건축물 (학교, 기업본사 등)
문화	기타	민속자료, 빨래터, 우물, 우물터
	관람	박물관, 미술관, 갤러리, 기념관, 문학관, 홍보관, 전시관
	교육·체험	도서관, 문화·지원센터, 문화원, 체험관, 관광안내센터
	종교	사찰, 교회, 기타 종교시설
주거·생활	공공미술	조각품, 조형물, 벽화
	거리	주민의 일상과 삶을 느낄 수 있는 거리, 골목길, 계단
관광·소비	건물(군)	벽화마을, 한옥마을 등 마을
	거리	시장(통로형), 상가·카페거리, 음식 등 특화거리
자연·경관	건물(군)	시장(건물형), 드라마·영화촬영지
	녹지	공원, 정원, 산(동산), 바위(각자, 마애불 포함), 절개지, 녹지경관, 조망점(전망대, 정자)
	수공간	하천, 호수, 계곡, 수계경관, 조망점, 정자
	식물	천연기념물, 보호수
	길	산책로, 오솔길, 다리, 계단, 돌담·담장길

각 유형 별로 세부요소가 가장 풍부한 코스를 선정한 결과 역사 코스는 세종마을, 문화 코스는 창신동B, 관광·소비는 익선동B, 자연·경관 코스는 인왕산자락 이야기길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도보관광 프로그램을 통해 실제 참여자들이 인식하는 도시공간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점을 고려하여 자연, 역사적 건축물보다는 도심을 중심으로 한 코스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표 3-5] 코스 유형화 결과

대분류	해당 코스	
역사	세종마을, 사직동A, 삼청동, 부암동B, 무악교남동, 교남동, 북촌A, 북촌B, 북촌C, 종로 1~4가, 이화동A, 이화동B, 혜화명륜동B, 진경산수화길, 인왕자락 문학산책길, 문학둘레길, 체부동 예술가길, 세종한울길, 시전행랑길, 소파방정환길A, 소파방정환길B	청운효자동A, 청운효자동B, 사직동B, 평창동A, 익선동A
문화	창신동B, 평창동B, 혜화명륜동A, 종교문화유적길	
관광·소비	익선동B, 종로 5~6가, 창신동A, 창신동C, 광장시장	
자연·경관	송인동, 인왕산자락 이야기길	

따라서 문화 유형을 대표하는 창신동B 코스와 관광·소비를 대표하는 익선동B코스를 실험 대상 코스로 선정하였다. 두 코스는 공통적으로 도시재생사업 지역임과 동시에 각각 봉제산업과 주얼리산업이라는 특화산업이 밀집한 지역이나, 창신동의 경우 주거지 성격이 강하고 사회적 기업이 밀집해있으며 익선동의 경우에는 최근 기존 주민들이 떠나가고 관광과 소비공간으로 재편되었다는 점에서 공간적 성격의 차이를 보인다.

[표 3-6] 도시재생사업 현황

사업유형	서울시유형	선정방식	사업명	사업기간	추진단계
근린재생 중심시가지형	역사문화자원 특화지역	서울시지정	낙원상가·돈화문로 일대 활성화지역	2015-2019	계획수립
근린재생 일반형	노후주거지역	국가지정	창신·송인 선도지역	2014-2018	자력재생

2절 창신동 봉제산업과 도시재생

1) 창신동 형성과정

■ 지역 개발사

조선시대 창신동 지역은 낙산의 풍치와 지형, 지천을 바탕으로 낙산자락의 성 밖 마을로 자리매김하였다. 창신동이 자리잡은 낙산은 산 모양이 낙타등 같아서 낙타산이라고 불리기도 하며 조선시대 궁궐에 우유로 만든 타락죽을 조달하던 관아인 유우소가 산기슭에 있어 타락산이라고도 불렸다.¹¹⁾

창신동은 홍인지문을 마주하고 있어 도성을 오가는 길목을 따라 조선 전기부터 사람들이 모여 살았다. 이 지역에는 주로 성내에 진입하지 못하는 중산층이 거주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17세기 무렵에는 자연재해가 계속되면서 흉년을 계기로 국가 수취구조에 의해 수탈당한 농민들이 몰락하였고, 국가에서는 비상대책으로 진휼책을 강구하자 농촌인구가 서울로 모여들어 당시 창신동 일대에 많은 인구가 집중되었으며 주거지의 성격도 변화하게 되었다. 또한 1899년에는 고종이 종로의 가가를 철거하고 단선 전차궤도를 부설하여 창신동에도 전차가 운행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인구증가와 교통의 발달은 자연스럽게 상업의 발달을 촉진시켰다. 특히 1905년에 설립된 광장시장이 국내최고 포목상가로 번창하면서 인접했던 인창방과 송신방은 인구증가와 더불어 서민주거공간이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창신동의 동명은 인창방과 송신방의 글자를 따서 1914년 동명 개정 때 제정되었으며 1975년에 종로구 관할로 재편입 되었다.

일제강점기 당시에는 식민지정책 및 태평양전쟁의 여파로 인구증가 및 주택난 가중에 따라 창신동, 혜화동, 송인동에는 주택건축업자에 의해 지어진 다수의 도시형 한옥이 들어서게 된다.

11)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2009), 서울지명사전

해방 이후 1970년에 동대문 일대가 상업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되고 동대문종합상가가 들어서면서 봉제인들이 창신동으로 유입하기 시작했고 창신동은 동대문 배후의 가내수공업 방식의 봉제공장 밀집지역으로 발전하였다.

그러다 2002년 서울시가 강남북균형발전과 낙후된 기성시가지의 정비수법으로 뉴타운사업을 추진하면서 창신동에도 개발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동대문 일대에서는 2004년 청계천 복원 이후 대형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섰고, 동대문 상권 일대에도 대형 상가들이 신축되는 등 창신동을 주변으로 개발압력이 점차 커졌다. 창신동은 인근 주거지역과 더불어 재개발사업에 의해 새로운 주거형태로 변화할 예정이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창신동 역시 지역 전체에 분포한 봉제공장에 대한 대책으로 뉴타운사업에서 2007년 4월 재정비촉진지구로 변경·지정되었으며 당시 계획에서 아파트형 봉제공장을 건립하는 방안을 제안하여 가내수공업 형태의 업체 및 미등록 업체와의 갈등이 불가피했다. 더군다나 원주민의 이주가 불가피한 대규모 개발방식은 동대문 상권과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살아가는 주민들의 생활방식을 고려할 때 동대문 일대의 의류, 패션산업클러스터의 생산체계가 파괴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었다.

주민들의 갈등과 사업성 문제를 비롯해 그동안 추진된 뉴타운사업 전반에 나타났던 과도한 구역지정과 원주민 재정착률 저조, 그리고 전면철거에 따른 저층주거지의 멸실과 도시경관 파괴와 같은 본질적인 문제점들이 지적되자 창신·송인 재정비촉진사업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정부는 대안으로 마을 정비계획을 수립하였고 기존의 정주환경을 유지 및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비방향을 전환하려는 노력을 기울였고 이에 2014년 국토교통부에서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하여 4년간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현재는 자력재생 단계에 있다.

2) 봉제산업과 창신동

창신동 인근 청계천변에는 1950년대부터 의류도매업체들이 자리 잡고 있었고 1961년 평화시장이 들어서자 봉제공장은 더욱 성장하여 청계천 일대 건물의 2~3층으로 빠르게 확산되기 시작했다. 이에 1960년대부터 창신동은 동대문 평화시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대표적인 주거지였다. 허나 1970년대 말부터 대기업이 의류산업에 진입하여 주도하면서 평화시장의 지가가 상승으로 점포와 함께 있던 작업장 임대료도 인상되자 소규모 봉제공장들이 동대문과 가까운 창신동에 가내수공업 형태로 진입하면서 창신동은 동대문 의류산업 클러스터의 배후생산지로 형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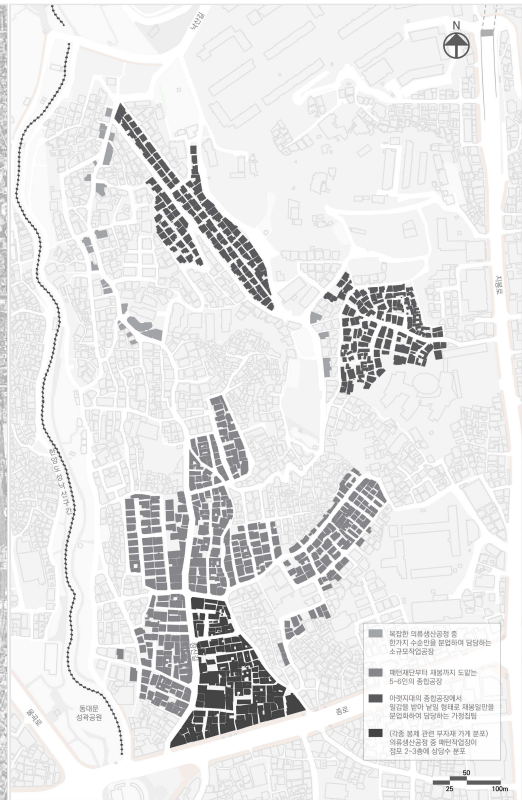
봉제산업이 창신동에 자리 잡으면서 1970년대 이후 창신동 일대는 신축이 활발하게 일어났고 당시에 지어진 다가구주택 1층이나 반지하, 혹은 길가의 상가건물 상층부에 봉제공장이 입지했다. 60년대 후반에 불량주택 철거와 함께 70년대 신축되었던 2층의 양호한 단독주택들은 주거용에서 80년대 후반 공장들이 밀집하기 시작하면서 용도가 변경되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에는 공장으로 사용될 공간을 반영한 공장형 다세대주택이 신축되어 2층 이상은 주거공간으로 하고 지하층과 1층에 공장을 만들었다. 이때 도로 쪽에 면한 건물은 공장과 상가용도, 도로 내부 블록은 공장과 주거용도 건물이 신축되었다. 봉제산업이 저성장했던 1990년대에는 빌라형 다세대주택이 들어서면서 봉제공장들은 빌라의 지하층으로 재입주하게 된다. 하지만 최근에는 환기 등 사업장환경이 좋고 운반에도 편리한 지상층을 선호하며 공장이 밀집한 구역은 다세대주택의 2~3층까지도 입주하는 경향을 보인다.¹²⁾

봉제공장은 공종별로 분화된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는데, 공종별로 분포와 건축물 점유방식에서 다소 차이를 보인다.

12) 서울역사박물관, 「창신동: 공간과 일상」, 2012



[그림 3-6] 동대문 지역산업 구조



[그림 3-7] 창신동 봉제공장 분포도

출처: 서울역사박물관(2012) 재작성

봉제공장 공종은 한 가지 수순만을 분업하여 담당하는 소규모 작업공장(창신길과 창신6가길 일원), 아랫지대의 종합공장에서 일감을 받아 날일 형태로 재봉일만을 분업화하여 담당하는 가정집팀(북측 축대마을과 창신초 서측 주거지 일원), 패턴 재단부터 재봉까지 도맡는 5~6인의 종합공장(창신길 일대), 각종 봉제관련 부자재 및 지원가게가 있으며 점포 2~3층에 패턴작업장이 분포하는 창신시장 일대로 분류할 수 있다. 한때 소규모 봉제공장을 합쳐 약 3000개의 봉제공장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던 창신동은 현재 약 900여개 봉제공장만이 남은 상태다.¹³⁾

13) 2011년 조사 당시 3,000여개에서 2015년 이후 기사 및 창신동에 조성된 봉제거리박물관에서 900여개로 축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창신동은 주로 봉제공장과 주거지의 혼합 형태로 창신동만의 독특한 모습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창신동의 지형과 골목길로 차량보다 자주 볼 수 있는 오토바이들과 원단이 담긴 쓰레기봉투와 다리미질로 나오는 스팀이 배출되는 배관 등이 창신동의 가로경관을 형성하고 있다. 또한 출입문 위에 쳐져 있는 천막과 들어가는 입구에 늘어선 발, 그리고 셔터가 있다는 점은 봉제공장뿐만 아니라 주거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단서다. 이에 창신동 주거지는 봉제공장과 혼재되어 있으며 봉제와 관련된 일을 하지 않더라도 창신동 주민들의 생활에는 봉제산업이 밀접히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¹⁴⁾

의류의 생산과정은 패턴 - 재단 - 재봉 - 마무리(마도메) - 완성(시아게) 순서로 이루어진다. 창신동에는 각 공정별 또는 모든 공정을 도맡는 종합공장이 밀집해있기에 전문화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당일 주문 제작된 의류의 판매량에 따라 즉시 생산과 판매가 가능한 다품종 소량생간과 소비자 반응형 즉시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대표적인 하청공장이 밀집해있는 창신동 647번지를 중심으로 조성된 봉제거리박물관에 설치된 다양한 조형물과 이음피움 봉제역사관을 통해 창신동 봉제산업에 관련한 내용을 접할 수 있다.

14) 서울역사박물관(2012), 「창신동: 공간과 일상」, p.135.

3) 도시재생 과정

도시재생선도지역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4년 5월,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지역으로 전국 13개소에 대하여 지정한 지역이다. 창신·승인 일대는 1970년대 봉제산업의 집적을 원동력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였으나, 2000년 이후 봉제산업의 지속적인 산업침체로 경제가 위축됨에 따라 인구도 감소추이를 나타내는 지역이다. 또한 2007년 6월에는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어 재개발사업을 추진하였으나 2013년, 주민 신청에 의해 해제된 지역으로 사회·경제·물리·문화적 쇠퇴가 복합적으로 진행 중이기에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근린재생형 일반형 및 노후주거지역으로 창신1·2동·3동, 승인1동 일대 총 83만㎡이 대상이다.



[그림 3-8] 창신·승인 도시재생사업 방향

출처: 창신·승인 도시재생지원센터(2016) 재작성

창신·승인 지역의 도시재생 목표는 지역현안을 해소하고 지역잠재력을 활용하여 주민자발적 주택개보수 유도, 공공사업을 통한 기반시설 정비, 쾌적하고 안전한 골목길 가꾸기를 포함하는 주거환경재생, 동대문 패션산업 배후기능 개선, 패션-봉제의 고부가치산업 전환, 열악한 봉제산업 근로환경 개선을 포괄하는 봉제재생, 동대문-한양도성 관광루트 발굴, 마을의 명소 발굴 및 홍보 창구 조성, 지역 정체성 구축 및 마케팅 홍보를 담는 관광자원화이다.

주거환경재생으로는 가로환경 개선을 통한 안전안심 골목길 조성, 푸른마을 가꾸기 등의 사업을 통해 골목길을 개선하고 주민이용시설 환경 개선을 통해 주민공동이용시설과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을 완료하였다. 특히 현재 준공을 앞둔 각 동의 공동이용시설 명칭은 주민 공모를 통해 창신1동 토월, 창신2동 회오리마당, 창신3동 지봉서관, 송인1동 수수헌¹⁵⁾으로 지어졌다. 봉제재생은 봉제공동작업장 조성으로 비좁은 작업장 문제를 해결하고 봉제지원앵커시설과 일자리 지원 및 플랫폼 구축으로 봉제인력의 노령화와 매출 감소에 대비하고자 했다. 관광자원화는 성곽봉제마을 관광화사업과 소외되고 낙후된 도시경관을 개선하였으며 창신동만의 지역자산인 채석장을 명소화하여 창신송인의 랜드마크로 조성하고자 했으며 주민역량강화의 경우에는 주민공모사업과 도시재생 마을학교 공모를 통해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고자 했다.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대표적인 시설들은 봉제공장이 밀집한 지역사를 테마로 한 봉제거리박물관과 이음피움 봉제역사관 그리고 창신동에 거주했던 백남준의 생가터를 리모델링한 백남준 기념관 등 관광시설과 각 동별 건축 중인 공동이용시설로 사업비 100억 원 이상이 소요되었고 가로 정비와 CCTV 설비 등에도 70억 원 가까이 투입됐다.

2017년을 끝으로 도시재생선도지역 사업은 종료되었으나 사업 이후에도 지속적인 자력재생을 위해 주민협의체 대표를 중심으로 CRC라는 도시재생 법인체가 설립되었다. 2018년 올해부터 CRC는 도시재생사업 중 마을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공동이용시설 사용에 대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여 주민주도 도시재생을 추진하고 있다.

15) 종로구(2018.1.5.), ‘주민을 위한 시설, 이름도 주민 뜻대로’, 보도자료.

		현황	전략	개선
주거 환경 재생	가로 환경	폭원 4m 미만 도로 점도 40.6% 심한 경사, 어두운 골목길 오토바이 통행으로 보행 위험	열악한 도로 및 계단 보수 골목길의 안전장치 설치 녹지 및 쉼터공간 조성	안전안심 골목길 조성 푸른마을 가꾸기
	주민 이용 시설	공동체활동 대비 부족한 활동공간 쭉방촌, 판자촌 등 주거환경 방치 어린이공원 노후화	주민갈등 회복을 위한 활동 공간 제공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 놀 공간 확보	주민공동이용시설 어린이공원 정비
봉제 재생	작업장	창신승인 평균면적 61.7㎡ 1~2인 체계의 가내수공업 분업되지 않은 공정으로 품질 저하	적당한 공간(160㎡) 확보 작업 인력 확충으로 공정의 분업화 유도	봉제공동 작업장 조성
	인력 노령화	50세이상 인력 전체 인력의 58.2% 위탁진 봉제디자인 OEM 비율 90% 이상	봉제청년육성 동대문 신진디자이너들의 실험장으로 활용 패션과 연계한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	봉제 일자리 지원 봉제지원센터시설
	매출액 감소	사업체 중 91.6% 이익 감소 중국 및 대규모공정보다 선호도 저하 소규모 생산으로 일정한 일감확보 어려움	산업생태계 안정적 네트워킹 구축 창신승인 봉제역사와 이야기 홍보 디자이너와 연결한 의류제작 및 수익 확보	봉제플랫폼구축 봉제지원센터시설
관광 자원화	방문객 외면	DDP 일평균 2만8천, 한양도성 연간 20만 유동인구는 많으나 창신승인으로의 유입 적음	DDP와 동대문, 창신동과의 연결 성곽마을의 정소성 활용 지역의 풍부한 역사자산 활용	성곽봉제마을 관광화 사업 소외·낙후지역 도시경관 개선
	절개지	일제시대의 채석장 위험적인 도시경관 연출 절개지 위아래 건축물의 안전문제 대두	창신승인의 랜드마크 역할 부여 위험적 경관을 주민친화적 경관으로 개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편의 시설 제공	채석장 관광화 사업
주민역량 강화	공동체 의식	정비 추진위와 비대위 마찰 발생 이웃과의 신뢰수준 2.7점(10점 척도) 인구 유출	주민간 소통할 수 있는 화합의 장 마련 도시재생이라는 공동의 목표로 유대감 증대 주민 스스로 도시재생 실현하는 역량 강화	주민공동사업 도시재생 마을학교 주제공모

[그림 3-9] 창신·승인 도시재생사업 내용
출처: 창신·승인 도시재생활성화계획(2015) 재작성

3절 익선동 일대 주얼리산업과 도시재생

1) 익선동 일대 형성과정

■ 지역 개발사

261년간 정궁이었던 창덕궁 앞은 수도 한양의 정치적·지리적 중심지 중 하나였다. 돈화문로는 왕과 백성이 소통할 수 있는 길이었으며, 일제강점기에는 3·1운동이 선언된 탑골공원이 있으며 이는 고종이 조성한 최초의 공원이자 대한제국과 연계가 있는 지역이다. 역사학자들은 이를 저자로 나온 궁중문화라고 이름 지었다. 또한 1960년대에는 세계 최대 악기전문 상가인 낙원상가가 들어섰으며 1980년대에는 주얼리산업 밀집지역으로 형성된다.

익선동은 익동 또는 궁동이라 불렸으며 철종의 생부 전계대원군의 사저였던 누동궁이 있던 동네였다. 누동궁의 익랑좌우로 행랑이 있었으므로 익랑골(익동)이라 불렀기 때문에 조선시대 지명이 정선방 익동이었고 이후 동명 제정 시 익동의 ‘익’과 정선방의 ‘선’ 합성하여 익선동으로 제정되었다. 낙원동은 시내 중앙에 위치한 탑골공원이 낙원과 같다고 하여 유래하였다. 돈의동은 조선시대 왕과 왕비의 친인척을 관리하던 관청인 돈녕부와 효종이 태어나고 인조가 임금이 되기 전에 살았던 어의궁이 있던 동네로 정조 때 명재상으로 알려진 채제공과 동생으로 삼은 채제민이 위채, 아래채로 살면서 의리가 돈독하였다고 하여 돈의동이 되었다는 설이 있다. 돈화문로는 묘동과 와룡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묘동은 종묘가 있는데서 유래한 동네이며 와룡동은 용으로 상징되는 임금이 기거하던 창덕궁이 있는데서 유래하였다. 주얼리 공방거리와 서순라길을 포함하는 권농동은 채소 재배를 권장하는 농포서와 돈화문 밖 동쪽에 궁중납품을 위해 도성 내에서 유일하게 농사가 허용된 내농포가 있는데서 유래하였다.¹⁶⁾

16) 김선아, 「창덕궁 앞 열하나 동네」, 2016.1 창간준비호

1920년 일제강점기에 경성은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를 겪으면서 인구 증가로 인한 주택부족 문제가 대두되었다. 경성에 거주하는 일본인 수가 증가하면서 경정부와 총독부는 일본인 인구 증가에 대한 대처를 위해 북촌과 서촌 일대를 중심으로 주거지를 확장하게 되었고 주택문제는 조선인에게 집중되었다. 1933년 기준 경성 내 조선인 주택 부족률(15.5%)은 일본인(2.74%)에 비해 약 5배가 높았다.¹⁷⁾

이 과정에서 등장한 근대적 디벨로퍼들은 과거 조선시대 상류층이 거주하던 거대한 한옥에 작은 규모 한옥을 대량으로 건설하는 한옥집단지구 개발을 통해 주택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고자 했다. 당시 정세권에 의해 설립된 주택경영회사이자 가장 큰 규모였던 건양사는 주로 조선인들을 위한 한옥을 개발하고 건설했다. 건양사는 현재의 북촌지역과 경성 외곽(창신동, 서대문, 왕십리 일대) 지역에 한옥집단지구를 건설했으며 북촌에서 가장 유명한 가회동 31번지 일대와 익선동 지역을 개발했다.¹⁸⁾

정세권은 익선동 32·33·166번지에 약 37채의 한옥을 건설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166번지 일대는 조선왕조의 종친이었던 이해승 소유의 누동궁 자리였고, 건양사는 1930년과 1931년 사이에 이 지역을 매입하여 필지를 나누고 작은 규모의 한옥을 지어 분양하는 방식으로 주택단지를 개발하였다.¹⁹⁾ 경사지의 북촌과 달리 익선동은 평지에 주로 50㎡ 안팎의 서민용 주택을 제공하였으며 일반적인 한옥 형태가 아니라 현대 아파트 평면과 비슷한 중당식²⁰⁾으로 배치하였다.

한국전쟁 이후 경제개발 시기에도 익선동은 종로 지역의 조용한 한옥 주거지로 남아있었다. 그 사이 한옥들은 마당에 화장실을 만들거나 일부 노후된 외벽과 재료를 타일로 바꾸는 등 생활의 편의에 따라 작은 변화가 이루어졌지

17) 손정목, 「일제강점기도시화과정연구」, 일지사, 서울.

18) 메모리 K, 「익선동 166」, 2017.

19) 김경민, 「건축왕, 경성을 만든다」, 이마, 2017.

20) 중당식은 일반적으로 마당을 중심으로 방이 배치되는 한옥과 달리 방들을 집중시켜 방에서 방으로 이동하기가 수월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만 한옥주거지의 성격은 유지되어 왔다. 1952년 도시계획에 의해 종로변부터 돈의동 일대까지, 1970년에는 창덕궁 앞 율곡로까지 상업지역이 확대되면서 익선동은 한옥주거지이면서도 서울 도심부 한복판에 지하철 1·3·5호선 종로 3가역이 지나가는 상업지역 한 가운데에 위치하게 된다. 이후 2004년, 익선동 주민들은 한옥주거지를 철거하고 새로운 용도로의 개발을 위해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서 서울시는 개발시기와 달리 지구단위계획 등을 통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관리를 시작하였고 특히 한옥 보존에 대한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이에 2010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한옥보존을 이유로 개발계획이 부결되었다. 이후 2014년 7월 지역 주민들은 다시 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를 신청하였고 현재 서울시와 익선동 주민들은 한옥경관과 역사를 보존하고 낙후되었던 지역을 정비하기 위해 도시재생 사업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²¹⁾

■ 익선동 한옥마을의 변화

2014년 이후 일부 한옥을 철거하여 소규모 개발을 원하는 주민들과 서울시의 한옥마을 보존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상업지역으로 변화시켜 경제적 가치를 높이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갈등 속에서, 익선동 한옥마을의 낙후된 현실과 예스러움이 남아있는 경관을 새로운 상권으로 인식한 젊은이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이에 현재의 익선동은 한옥주거지에서 한옥상점거리로 급격히 성격이 변화하기 시작했다. 지난 3년간, 오랜 시간 주거용이었던 한옥들은 주민들의 자리를 대신해 다양한 상업 공간으로 대체되었고, 저렴한 임대료를 유지해 온 주거지역에 필요한 근린생활시설과 월세로 한옥 쪽방을 사용하던 취약계층과 돈화문로 일대의 한복상점들은 거의 사라졌다. 오랜 시간을 이곳에서 보낸 거주자들 역시 상업화로 인해 상승한 지가를 받고 익선동을 떠나기 시작했다.

21) 메모리 K, 「익선동 166」, 2017.

익선동 한옥마을은 독특한 공간구조로 인해 개별적인 희소성보다는 한옥경관의 집합적 성격이 더욱 부각되는 지역이다. 종로3가역이 위치한 돈화문로11길과 이비스호텔(오진암 터)이 위치한 삼일대로30길에 면한 블록으로 마을 내부에는 돈화문로11다길, 수표로28길 등 좁은 골목길이 남북으로 이어져있다. 내부 지향적이고 폐쇄성을 띄는 공간구조 특성으로 인해 다른 한옥마을과 달리 독립적인 영역성이 강하다. 이러한 구조적인 특징으로 인해 익선동은 일반적인 한옥마을과 다른 고유성을 가지고 있다. 1970년 상업지역 지정에도 불구하고 도시구조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당시 대로변 중심의 재개발사업과 자동차 중심의 도시구조 재편이 활발했기 때문에 차량이 들어갈 수 없을 정도의 골목길은 개발이 어려웠기 때문이다.²²⁾



[그림 3-10] 익선동 한옥마을 일대 전경
마당이 유리로 덮여 실내 공간화된 익선동 한옥마을과
그 뒤로 종로세무서, 오진암 터인 이비스호텔이 보인다.

22) 안창모, “Urban Design Focus”, 「한국도시설계학회」, 2017.1

최근 익선동의 신흥활동 증가에 따라 리모델링된 공간들은 익선동의 도시형 한옥이 간직하고 있는 이미지를 반영하되 상업적 가치로 활용하여 복고적으로 재해석한 한옥경관을 연출하여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장소로 재탄생했다. 현재 익선동 한옥마을은 일부 주택을 제외하고 대부분 카페, 음식점, 주점, 옷가게와 공방 등의 쇼핑시설과 숙박시설로 한옥마을에서 상점거리로 성격이 변화하였다.



[그림 3-11] 익선동 한옥마을 상점명 및 용도 (2018년 5월 13일 기준)

2) 주얼리산업과 익선동 일대

익선동 일대에는 주얼리산업에 필요한 생산·유통·판매·감정·교육기관 등 모든 기능이 집약되어 전국 거래량의 80%를 차지하는 독보적인 주얼리 클러스터가 있다. 주얼리산업은 조선시대 궁궐과 관아 주변의 관영체제 제조업에서 시작되었다. 궁궐에서 필요한 모자, 세공품, 가구 등을 제조하여 상납하다가 조선 후기에는 관영수공업의 기능이 약해져 민영수공업이 활발하게 발달하게 되자 종로에 생산과 판매를 겸하는 가내수공업 공방이 모이게 된다. 이후 1930년대 화신백화점(現 종로타워) 등 백화점이 들어서자 판매를 담당하는 백화점과 주문제작방식의 공방으로 분리되었고 종로4가와 예지동에 소규모 상점들이 생기면서 주얼리 클러스터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이후 1970년대 제조업의 공업화가 추진되어 대량생산이 가능해지면서 주얼리산업이 대중화되고 1980년대 후반부터 봉익동 일대는 주얼리 대표 상권으로 자리 잡게 된다.²³⁾

이에 2010년 종로 귀금속·보석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 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2015년에 서울주얼리지원센터1관과 2017년에 2관 SPACE42가 서순라길에 개관하였다. 또한 앞으로 서순라길과 권농동 일원은 주얼리 공방거리로 조성될 예정으로 대표적인 소연카페를 비롯하여 귀금속 세공작업장 및 공방들이 서서히 들어오고 있다.

익선동 일대에는 주얼리 뿐만 아니라 국악과 한복 등 조선시대의 궁중문화가 이어져 여러 특화산업의 집적지로 형성되어 있다. 조선시대 종묘에서 이루어진 제례악, 근대기 금위영터에 설립된 국립국악원의 전통음악 영향으로 전통악기를 제작 및 판매하는 국악기 상점들이 돈화문로 복단에 다수 위치해있다. 국악과 함께 뗄 수 없는 것은 전통의상인 한복이다. 1910년 궁궐문화가 주변으로 유출되기 시작하면서 국악과 연계된 전통산업으로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돈화문로 일대 10여 곳이 한복 제작 및 판매를 하고 있으며, 익선동과 서순라길 주변에는 약 30여 곳에서 한복 수선 및 제작이 이루어지고 있다.

23) 김선아, 「창덕궁 앞 열하나 동네」, 2016.1 창간준비호

3) 도시재생 과정

창덕궁 앞 돈화문로 일대는 조선시대 이전부터 현재까지 서울의 다양한 역사가 압축된 도성한복판이다. 그러나 도성한복판의 역사인문 스토리들은 오랜 시간 동안 혼합·변형되면서 지역 내 개별적 산업으로 남아 역사적 명맥만을 유지하고 있었다. 2014년 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 이후 2015년, 서울시에서는 익선동을 포함한 종로 1,2,3,4가동 일대를 역사특성을 활용하여 지역 가치를 높이기 위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하였으며 근린재생 중심시가치형 및 역사문화자원 특화지역으로 북측으로는 율곡로, 남측으로는 종로, 서측으로 삼일대로, 동측으로 서순라길에 의해 구획된 약 34만4천㎡이 대상이다.

대상지는 1928년에는 창덕궁 앞 율곡로 개설, 1967년 삼일대로 확장으로 인사동과 단절되고 1968년에는 낙원상가가 들어서면서 주변과의 공간적 단절이 심화되었다. 이에 그동안 역사적 정체성 강화를 위해 다수의 계획이 수립됐으나 대부분 실현되지 못했다.

특히 이 구역은 일명 ‘열하나 동네’로 불리는 지역으로 익선동을 비롯해 낙원동, 돈의동, 묘동, 와룡동, 권농동, 봉익동, 경운동, 운니동, 종로2가, 종로3가 총 11개동으로 구성된 지역을 일컫는다. 열하나 동네는 삼일대로, 돈화문로, 서순라길 등 일부 주요 가로와 이면부의 피맛길, 수표로 등 소가로, 물길 등 조선시대 이전부터 현재까지 이어온 도시원형의 가로 및 공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물리적 공간성과 역사·문화적 의미를 지닌 곳으로 각 시대적 특성을 반영하는 이야기가 내재되어 있다.

서울시에서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선정한 이후, 역사전문가들과 협업을 통해 기존 활성화 사업 중 역사재생관련 사업들을 통합하여 2016년에 ‘창덕궁 앞 도성한복판 역사인문재생’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림 3-12] 창덕궁 앞 열하나 동네

계획 주요 내용으로 4곳의 특화거리 조성이 있다. 우선 조선시대 왕의 거둥 길이었던 돈화문로는 역사적 가치에 비해 사람들에게 잘 인식되어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더욱 의미 있는 길의 조성이 필요하였다. 이에 보행중심가로 조성 및 가이드라인에 맞춘 점포의 리모델링 지원을 통한 경관 정비와 역사문화 축제 활성화를 통해 시민들이 종로에서 돈화문로를 거쳐 창덕궁 돈화문으로 향하는 길로서 정체성을 회복할 계획이다. 특히 돈화문 앞에는 돈화문국악당을 비롯해 추후 민요박물관, 한복체험관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근대전환 시기의 삼일대로는 3·1운동 기념 시민공간으로 조성하여 탑골공원뿐만 아니라 잘 드러나지 않은 역사공간을 발굴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스토리텔링을 더해 3·1운동의 가치를 재조명할 계획이다.

익선·낙원동 일대는 궁궐 밖으로 나온 궁중 문화가 시민들의 삶 속에서 이어지도록 돈화문로11길을 대표적인 음악거리로 활성화하여 의식주락 신흥문화

를 재창조하는 활성화 거점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낙원상가는 옥상층을 활용
해 옥상공원 및 열린 무대를 조성하고 하부공간을 개선해 보행 연결성을 제고
할 계획이다. 주얼리산업의 중심인 서순라길은 공간의 잠재력과 청년 공예인
들의 창의적 성장 동력을 결합하여 주얼리 특화산업 기반의 공예창작거리로
조성할 예정이다. 특히 순라길변에 자리 잡고 있는 한옥들의 개보수와 신축을
지원하고 도로포장을 개선해 한옥공방 특화길을 조성할 예정이다.²⁴⁾

창덕궁 앞 역사인문재생 계획 내용은 2017년 연말 종로 중앙버스전용차로
개통에 맞추어 추진한 종로 보행특구 사업에서 종로 거리의 특성을 살린 보행
나들이 코스 6곳 중 주얼리로 단장한 서순라길, 왕의 거동 돈화문길, 오밀조밀
익선동 코스에 포함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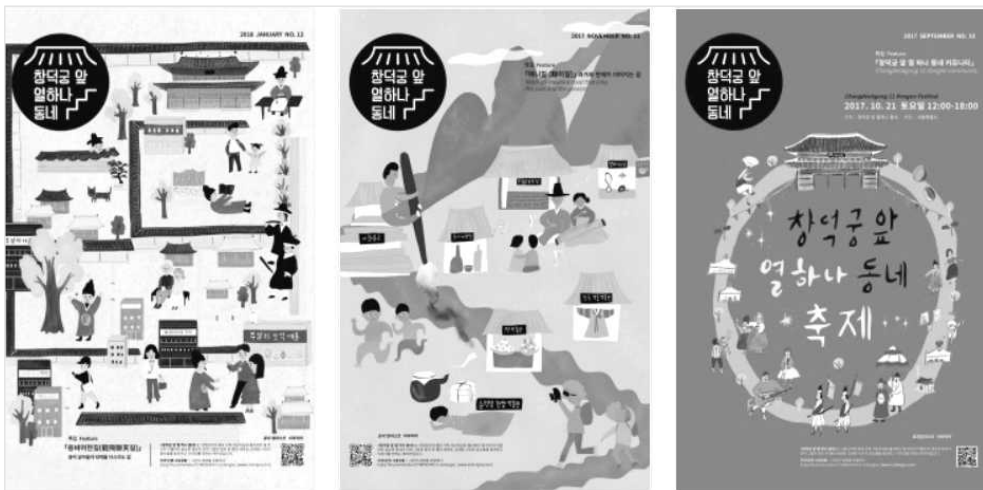
[그림 3-13] 창덕궁 앞 역사인문재생 구역 및 내용

출처: 서울시 창덕궁 앞 역사인문재생 계획

24) 서울시(2016.9.26.), “서울시, 400년 역사 압축 창덕궁 앞 4개 길 역사인문재생”, 보도자료

익선동 일대에는 서울시와 종로구의 재생계획과 더불어 주민들과 상인들이 모여 자체적으로 도시재생을 위한 노력을 해왔다. 2016년 1월에는 도시재생전략계획(2014-2015)의 MP로 활동했던 김선아 대표가 작명한 비영리 민간단체인 ‘창덕궁 앞 열하나 동네’가 출범하면서 지역 내 역량 있는 주민들과 지역 협의체가 소통하기 시작하였다. 2016년 1년간 익선포럼, 마을 공작소를 비롯해 도시재생 우수사례로 선정된 창덕궁 앞 열하나 동네 축제 등 다양한 마을사업을 통해 2017년 1월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되었으며 현재는 격월로 매거진을 발행하여 지역 소식을 전달하고 도시재생사업에 적극적인 참여를 하고 있다.

열하나 동네의 커뮤니티 중 하나인 메모리 K는 서울시 한옥조성과의 지원 사업으로 익선동을 떠나는 사람들, 사라지는 것들, 변형되는 것들을 보며 장소로서의 익선동과 익선동의 사람들에 대한 기록과 동네의 변화 과정을 사진으로 남기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익선동 166을 펴낸 바 있다.



[그림 3-14] 창덕궁 열하나 동네 매거진

출처: 열하나 동네 홈페이지

익선동 한옥마을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주도한 것은 ‘익선다다’였다. 익선다다는 2014년 익선동에 들어온 익동다방을 운영한 것을 시작으로 열두달, 1920 경양식, 동남아식당, 르블란서, 별천지 등 익선동 상업화 초기에 들어선 상점들을 모두 기획하고 운영하고 있다. 특히 잉클비디오타운은 공간 컨설팅을 담당하였으며 공간 소유자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상생 경영을 이끈 만화가게, 클라우드 펀딩을 통해 낡은 호텔을 리모델링하여 만든 낙원장 부띠끄 호텔 등 요식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범주의 공간을 기획하였다.

익선다다는 지역 가치 발굴에서 시작하여 도시재생 기획, 이후 거리 기획 및 투자자 모집과 함께 활동할 플레이어 선정을 통해 협업을 통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브랜드 운영 관리를 통해 투자분배를 결정하는 과정으로 진행한다. 공간의 고유한 특성을 지니면서 스토리와 문화로 기능을 회복시키고 브랜드화된 콘텐츠를 더하여 익선동 상점들을 기획하고 있는 주체로 역할하고 있다.²⁵⁾



[그림 3-15] 익선다다 프로젝트: (좌) 낙원장 (우) 르블란서

25) 익선다다 홈페이지, <https://www.iksundada.co.kr/>

4절 현장실험 과정

1) 현장실험 개요

■ 현장실험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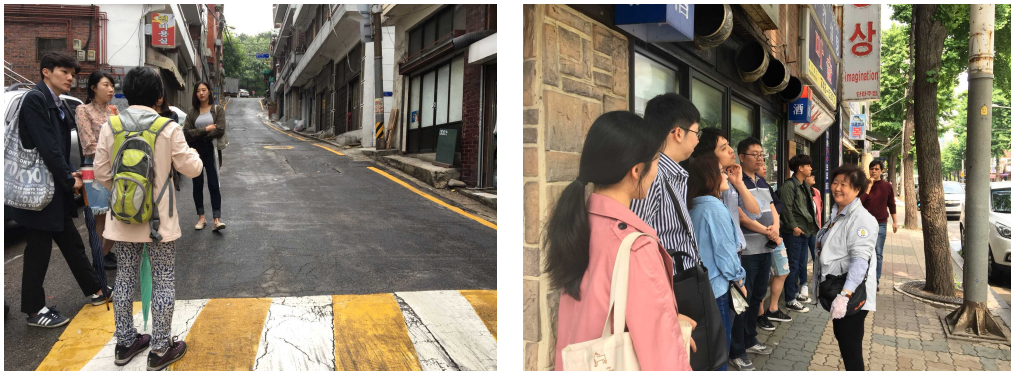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도보관광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도보관광에 대한 인식 및 해당 지역에 대한 이해도와 선호하는 도시공간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고자 현장 실험을 진행하였다.

연구자는 종로구 골목길 탐방 프로그램에 대한 기본적인 숙지를 위해 2017년 9월부터 다양한 코스를 다수에 걸쳐 사전 참여하였다. 본 현장실험은 참여 날짜를 공지 후 참여자를 모집하여 2018년 4월 28일부터 5월 14일 사이 총 10회에 걸쳐서 진행하였으며²⁶⁾ 특히 보행 및 해설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비가 오지 않는 날에 진행하였다. 해설의 전문성과 통일성뿐만 아니라 해설 내용에 따라 설문조사 결과가 변동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각 코스별로 해당 지역에 가장 오래 거주하여 해당 코스 해설 경험이 가장 많은 골목길 해설사 한 명씩을 배정받았다. 따라서 각 코스에 참여하는 참여자에게는 동일한 해설 내용과 코스를 진행하였고 해설에 대한 집중도를 고려하여 기존 코스를 1시간 코스로 재편하였다. 코스는 기존 코스 내에서 도시재생사업 및 특화산업 관련 장소를 중심으로 구성하되 각 코스를 잇는 가로구간은 다양한 규모의 가로와 경관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시형태와 지형적 특성을 고려하였다.

현장실험은 다음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사전에 각 코스별로 배정받은 골목길 해설사와 코스와 해설 내용에 대해 조율하였으며 참여자에게는 하루 전, 집결 장소와 시간 및 유의사항을 제공지한 후 참여 당일 골목길 해설사와 함께 만나 해설을 진행하였다. 또한 해설 도중 동반자와 함께 잡담을 하는 등 해설 내용 집중에 방해가 되는 행동은 금지하였다.

26) 본 현장실험은 서울대학교 커뮤니티 포털사이트 스누라이프 <https://snulife.com/main>, 연구실 및 지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참여자를 모집하였으며 참여자에게는 문화상품권 1만원 권을 지급하였다.

*4장 인구통계적 특성에 기재된 대구 거주자 2명은 현장에서 참여를 위하여 동행하였다.



[그림 3-16] 현장실험 사진: (좌) 창신동 (우) 익선동

■ 코스별 골목길 해설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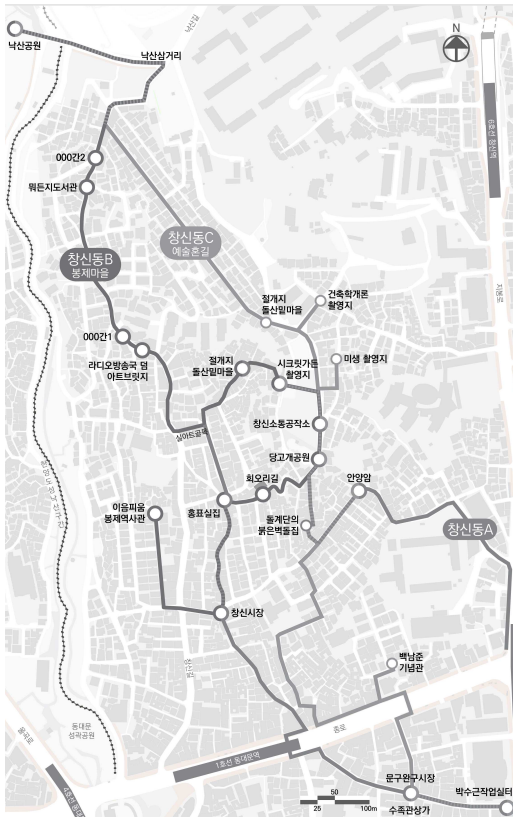
창신동 골목길 해설사는 4기 남정숙씨로 1982년 신혼생활부터 약 30년간 창신동에 거주했다. 예전에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에게 서울을 구경시켜주면서 해설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고, 마침 종로 자체 소식지인 ‘종로사랑’에서 공고문을 보고 지원하였다. 창신동에 거주한 기간 동안 회오리길에 위치한 신혼집을 비롯해 돌산 위의 빌라 등 창신동 내에서도 다양한 위치에서 생활해왔으며 봉제공장을 운영한 경험이 있다. 따라서 창신동 지역 현안을 비롯해 봉제산업과 관련된 이야기 등 더욱 전문적이고 풍부한 개인 경험담을 전달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익선동 골목길 해설사는 1기 김금수씨로 1991년부터 현재까지 익선동에 거주해왔다. 마찬가지로 ‘종로사랑’에서 공고문을 보고 지원하였다. 익선동 1번지에 터를 잡아 현재까지 익선동일번지상회를 운영하고 있다. 골목길 해설사 뿐만 아니라 마을 교사 등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계시며 종로와 익선동에 대한 애착이 남다르다. 따라서 익선동의 변화과정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소소한 일상까지 전달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²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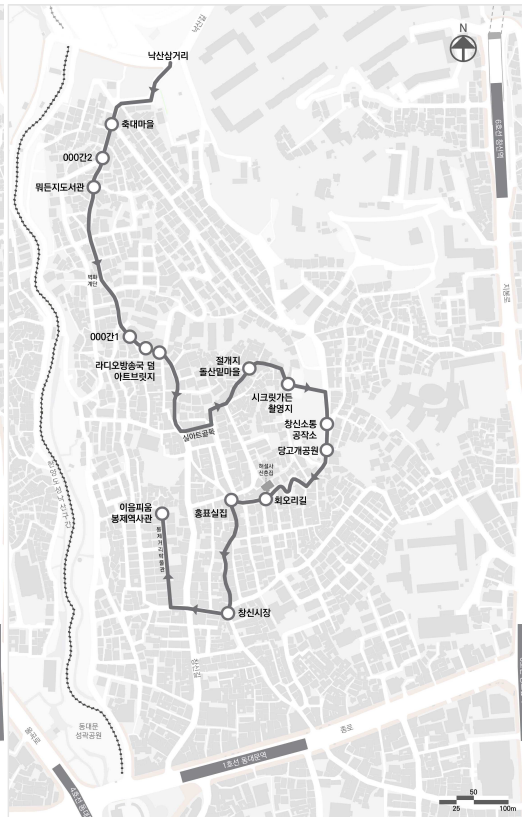
27) 창신동 및 익선동 골목길 해설사 남정숙, 김금수씨와 진행한 개별 인터뷰 내용을 정리하였다.

2) 창신동 코스 주요 내용

기존 창신동 코스는 창신1동을 중심의 A코스, 봉제마을과 도시재생사업 및 사회적 기업을 중심의 B코스(봉제마을), 영화·드라마 촬영지를 중심의 C코스(창신예술혼길)로 세분화되어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형화 결과에 따라 봉제공장과 도시재생사업 관련 장소들이 밀집한 B코스를 활용하여 재편하였으며 지난 2013년 서울역사박물관 전시 ‘Made in 창신동’의 일환으로 000간을 운영하는 사회적 기업인 러닝투런에서 진행했던 마을투어 코스인 도시의 산책자²⁸⁾ 코스를 참고하여 반영하였다.



[그림 3-17] 창신동 기존 코스



[그림 3-18] 창신동 최종 코스

28) 도시의 산책자는 현재 APP으로 출시되어 창신동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최종 창신동 코스는 낙산삼거리에서 집결하여 축대마을 - 000간2 - 뽕든지 도서관 - 000간1 - 아트브릿지 - 라디오방송국 덩 - 실아트골목 - 절개지 돌산 밑 마을 - 시크릿가든·도깨비 촬영지 - 창신소통공작소 - 당고개공원 - 회오리길 - 홍표실집 - 창신시장 - 봉제거리박물관 - 이음피움 봉제역사관으로 구성하였다. 코스 구간은 모두 보차혼용의 이면도로이며 돌산 밑 마을에서 창신소통공작소로 가는 일정 구간에 계단이 있다. 대중교통 접근성을 고려하면 동대문역에서의 집결이 용이하지만 오르막 경사를 최소화하기 위해 낙산삼거리에서 출발하였다.

주요 코스 해설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낙산삼거리에서 낙산 지명과 창신동의 입지에 대한 간략한 설명 후 축대마을로 향한다. 축대마을은 1974년 말부터 1975년 초까지 일괄적으로 분양된 양호한 저층 주택으로 자연발생적인 골목길들이 대부분인 창신동 내에서 유일하게 정비된 직선도로에 면해 있으며 돌산의 높은 지형과 경사에 적응하기 위해 축대를 쌓고 그 위에 지은 2, 3층 집들이 정연하게 배치된 마을이다.



[그림 3-19] 낙산삼거리 집결위치



[그림 3-20] 축대마을

바로 아래 경사를 활용한 연도형 건물에는 000간2이 위치해 있다. 000간을 만든 러닝투런은 미술을 전공하고 창신동 지역아동센터에서 예술 교육을 진행 하던 사람들이 만든 사회적 기업이다. 창신동 봉제공장에서 버려지는 자투리 천을 활용하여 제품을 만들어 업사이클링을 지향할 뿐만 아니라 지역 산업경제와 상생하고 있으며 제품뿐만 아니라 창신동 봉제공장 간판 제작, 오르막 평상 등 여러 커뮤니티 디자인을 주도하였다.

“저희가 창신동에서 처음 디자인 교육을 할 때 제일 먼저 나온 게 안타깝게 쓰레기였어요. 다시 생각해보니까 원단 쓰레기²⁹⁾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상품으로 만들어보자’고 해서 원단 쓰레기를 활용한 업사이클링 제품을 만들게 됐어요. ... 어르신들의 역량과 젊은 친구들의 도전의식을 합쳐서 그다음의 패션을 함께 연구하고 싶어요. 지속가능한 패션의 터전으로 새롭게 만들고 싶은 공간을 키워가는 곳이 됐으면 좋겠습니다.³⁰⁾”

홍성재 (000간 대표)

뭐든지 도서관은 봉제공장 특성상 낮밤 없이 일하는 부모들이 아이들을 보살필 시간이 없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아동복지의 일환으로 해송지역아동센터와 000간이 협업하여 기획되었다. 도서관을 만드는 과정에 아이들과 부모들이 참여하고, 아트브릿지와 외부기업이 후원을 하면서 주민주도 지역재생 사례로서 이슈가 되었으며 2012년 12월에 개관하여 현재까지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발하게 운영 중이다.

29) 창신동에서 1년에 버려지는 자투리 천 쓰레기는 8,000톤에 달한다.

30) 「하늘 아래 재생 1번지 - 창신동 돌산마을」, 윤찬규 연출, KBS, 서울, 2017.3.5.



[그림 3-21] 000간2



[그림 3-22] 뭐든지 도서관



[그림 3-23] 축대마을 ~ 뭐든지 도서관
(점선 표시는 시민아파트 부지)

000간1은 현재 카페로 바뀐 상태지만 출입문 옆에 1970년대 당시 연탄을 피우던 흔적을 볼 수 있는 곳으로 남아있다.

아트브릿지는 2007년 설립되어 2010년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았고 2012년 별별 솔루션이라는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하면서 창신동 해송지역아동센터의 아이들과의 교류를 시작했다. 이후 2013년에는 뭇든지 예술학교를 설립하였으며 2014년 현 위치에 아트브릿지 사무실과 라디오방송국 덩이 자리 잡았다.

아트브릿지에서는 특히 어린이 역사탐험 연극 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으며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문화, 교육, 이벤트 등의 다양한 활동을 자발적으로 기획하고 운영하고 있다.

라디오방송국 덩은 2012년 열린 라디오 교실에서 의기투합한 주민들이 만든 방송국으로 원래는 청암교회 내에 위치해있었다. 대부분 라디오를 들으며 작업하는 봉제공장의 특성을 반영하여 소통의 장으로 활발히 운영 중이다.

“라디오를 하고 이웃들과 함께 활동을 하면서 마을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마을의 문제를 우리가 같이 잘 돌파하면 이 사회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겠다’ 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보니 내가 이 사회를 만들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생각도 들게 됐죠. 저에게 창신동은 사회적으로 저를 다시 태어나게 해준 곳이에요.

… 삶의 만족도가 분명히 이전보다는 훨씬 커졌어요.”

조은형 (라디오방송국 덩 국장)



[그림 3-24] 000간1



[그림 3-25] 라디오방송국 덤 / 아트브릿지

축대마을, 000간2, 뽕든지도서관, 000간1, 아트브릿지, 라디오방송국 덤 등 창신동의 주요 사회적 기업이 위치한 창신길은 종로 및 동대문역에서 낙산삼거리까지 이어진 창신동의 중심 가로로 창신길을 따라 주민센터 등 주요 시설이 위치해있으며 가로변 건물 저층부에는 근린생활시설이 위치해있다.



[그림 3-26] 000간1 ~ 라디오방송국 덤

돌산 밑 마을로 진입하는 한 골목길에서는 스트링아트를 볼 수 있다. 스트링아트는 2018 문화가 있는 날 지역문화콘텐츠 특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창신문화밥상을 위해 아트브릿지에서 설치한 한시적인 설치미술 작품이다. 창신문화잇길 중 하나로 창신동 골목길 사이로 이웃들의 마음을 잇는다는 뜻에서 ‘스토리잇다’ 길이라고 명명했다.

창신동의 돌산은 일제강점기 당시 동대문 바로 밖이라는 최적의 입지조건 때문에 1924년 경성부 직영 채석장으로 탈바꿈하여 1960년대 초반까지 조선은행(現 화폐금융박물관), 경성역(現 문화역서울 284), 경성부청(現 서울도서관), 조선총독부와 같은 대형 석조 건축물을 짓는데 사용되었다. 1930년대 중반까지는 필지가 분화되거나 주거지가 조성되지 않았으나 빈민계층의 토막집이 들어서 당시 창신동의 주거지 경관을 형성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³¹⁾ 북측 절개지에는 1960년대 초반 창신시영아파트와 동대문근로자합숙소가 지어졌는데 1980년 근로자합숙소는 문을 닫고, 현재 A동은 경찰청 기동대로 이용 중이며 B, C동은 창신시영아파트로 남아있다.

채석장 주변 지역은 해방 이후 무허가주택이 들어섰고, 70년대 양성화사업을 통해 불법건축물을 불하받아 다가구·다세대 주택이 밀집하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남측 절개지는 현재까지 노후된 주택이 밀집된 곳으로 돌산 위 절벽위에 지어진 주택과 돌산 아래 부정형으로 막힌 골목을 따라 형성된 돌산 밑 마을로 구분되어 이색적인 도시경관을 나타낸다. 돌산 밑 마을은 현재까지도 개발이 미치지 않은 열악한 판잣집들이 곳곳에 남아있으며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통일된 색채로 주택 현관문과 담벼락 채색을 실시하였다.

가장 눈에 띄는 주택은 창신시장 초입에서 34년째 문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 창신2동 도시재생주민협의체 대표의 주택이다. 주택과 미용실 모두 식물과 화분이 가득한데 모두 주민들이 버린 것들을 가져와 가꿨다고 한다. 일반적인 골목길 주택들 사이에서 독특한 가로경관을 보여주고 있다.

31) 서울역사박물관(2012), 「창신동: 공간과 일상」, p.36.



[그림 3-27] 창신문화잇길: 스토리잇다



[그림 3-28] 돌산 밑 마을 골목길

돌산 밑 마을을 따라 서서히 올라가면 남측 절개지 경관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계단을 올라가게 된다. 계단 위에는 창신동 도시텃밭과 공영주차장이 보인다. 공영주차장에서 보이는 한 주택은 드라마 시크릿가든과 도깨비 촬영지로 해외관광객들이 자주 찾는 명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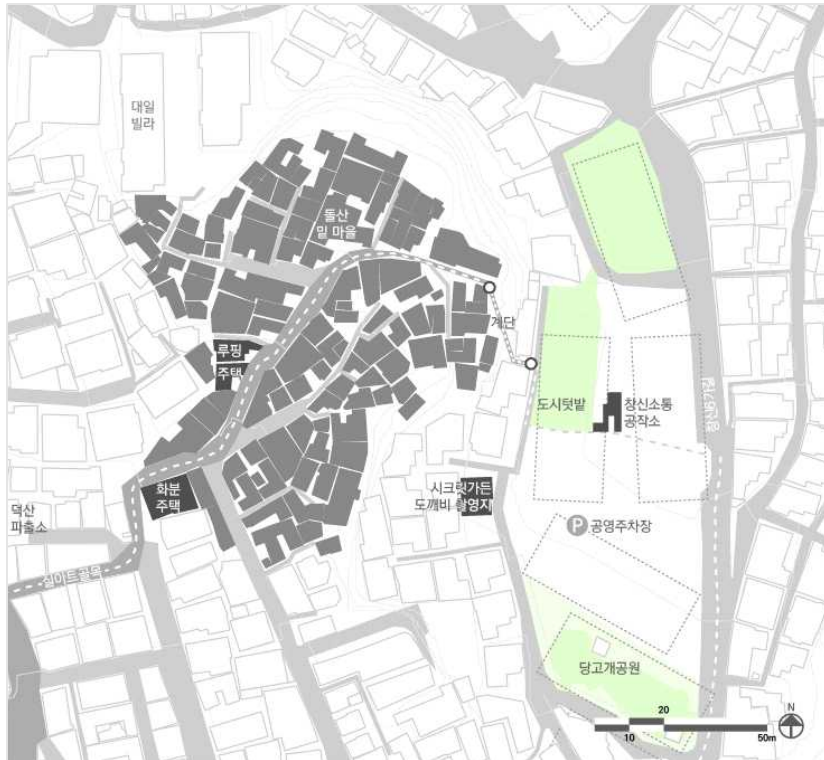
창신3동 공영주차장과 당고개공원이 위치한 대지는 1969년 주택난 해소와 판자촌 정비를 목적으로 총 28동의 낙산시민아파트 중 5개 동이 있던 곳이다. 그러나 1970년 마포구 와우 시민아파트 붕괴사고 이후 안전성 문제가 드러나게 되자 시민아파트 정리 5개년 계획에 따라 불량 시민아파트가 철거되기 시작했다. 구릉지에 무분별하게 들어선 아파트 개발에 대한 반성과 함께 2002년 아파트가 모두 철거되고 공영주차장과 당고개공원이 조성되었다.



[그림 3-29] 드라마 촬영지



[그림 3-30] 창신동 도시텃밭



[그림 3-31] 실아트골목 ~ 창신소통공작소
(점선 표시는 시민아파트 부지)

공영주차장 가운데에 위치한 창신소통공작소는 2014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지역재생+예술’이라는 공공미술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창신동Re야기> 프로젝트 사업을 통하여 2015년 10월에 개관하였다. 종로문화재단에 의해 설립된 창신소통공작소는 창신2동 공영주차장 5면을 임대하여 운영 중이다. 손공작, 목공작, 봉제공작, 등 다양한 수강 프로그램을 비롯해 주민들에게 필요한 공구를 비치하여 공구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들과의 협력과 상생을 통해 문화예술 활동을 실행하는 공간이다. 창신소통공작소에서는 한양도성 낙산구간과 함께 창신동 경관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다.

당고개공원 명칭의 유래는 조선시대부터 낙산 북측에 부락제를 지내던 도당 이(現 서일정보산업고)있었기 때문에 도당이 있는 고개라는 뜻으로 당고개라

하였다. 당고개 바로 위에 있던 큰 바위에 낙산신령이 모셔져 있기 때문에 점괘가 잘 나온다고 믿어 순조 때부터 점술가들이 모여 들어 한 때는 200여 호가 밀집돼있었다.³²⁾ 하지만 돌산이 채석장으로 사라지면서 점술가들은 미아리 고개로 이전하였다. 현재는 친환경 자연형 어린이놀이터 공사가 진행 중으로 골무를 형상화한 건축물과 흙벽 놀이터, 모래놀이터를 조성하며 높은 지대에 위치해 서울 도심 스카이라인을 내려다볼 수 있다는 점에서 ‘산마루 놀이터’라는 새 이름으로 올해 중으로 개장할 예정이다.³³⁾



[그림 3-32] 창신소통공작소



[그림 3-33] 당고개공원 공사현장

당고개공원부터 시작되는 창신6가길은 회오리 모양을 따서 주민들이 이름을 붙인 회오리길이다. 최고 경사가 51%로 서울 시내에서 유일무이한 형태와 경사를 자랑하며 최근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일부 구간에 계단을 설치하였다. 회오리길 중간 지점에 공사 중인 건물(창신동 595-272)은 창신2동 공동이용시설인 회오리마당으로 마을 주민들이 자생적으로 영상이나 팟캐스트와 같은 미디어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미디어 공간 및 사랑방으로 조성될 계획이다.

회오리길 끝자락에는 해설사의 신혼집이 위치해있다. 목욕탕으로 사용되던 건물이 경사로 인해 찾는 손님이 줄자 주택으로 개조해 현재까지 그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는 이야기와 회오리길에 얹힌 개인적인 경험담을 해설하였다.

32) 서울역사박물관(2012), 「창신동: 공간과 일상」, p.22.

33) 종로구(2017.12.22.), ‘창신송인 친환경놀이터에 새 이름이 생겼어요’, 보도자료



[그림 3-34] 회오리길



[그림 3-35] 회오리마당 공사현장

회오리길 끝에 있던 홍표실집은 창신동에서 가장 오래된 부자재 판매점으로 실, 심지, 초크, 지퍼와 같이 재단과 봉제에 쓰이는 다양한 부자재들을 파는 곳이었다. 항상 가게 앞에 앉아서 바둑을 두는 재단사와 봉제사들의 사랑방 역할도 했으나 현재는 대원실마트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창신시장은 1960년대부터 무허가 판자촌들이 들어서고 인구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조성된 시장으로 현재까지 골목 재래시장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00년대 초반부터는 네팔음식거리가 형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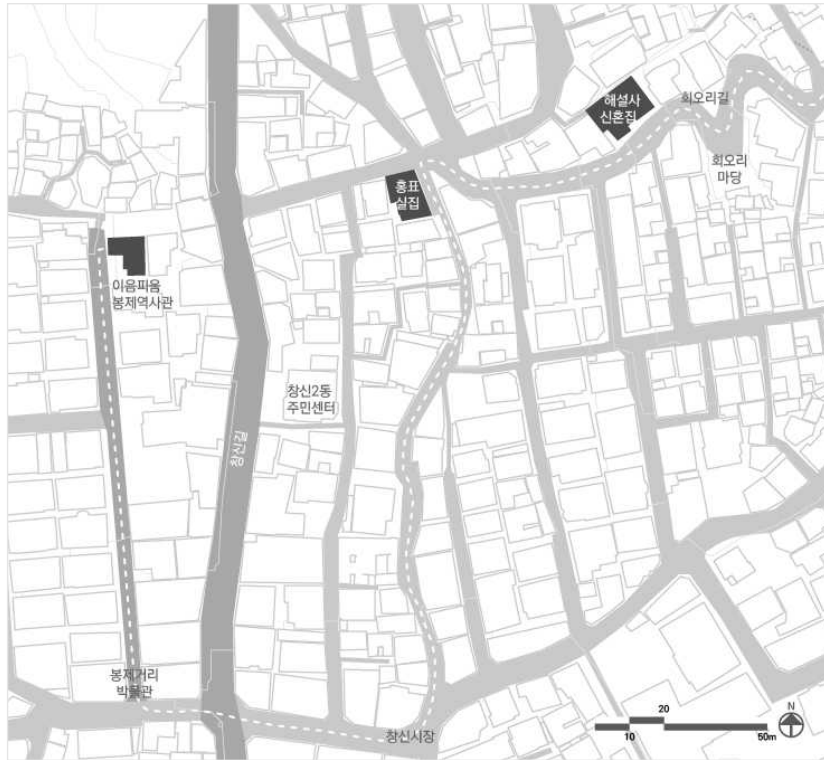
봉제공장이 밀집한 창신4가길은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2015년 5월에 조성된 봉제거리박물관으로 골목 자체에서 봉제산업을 보여주는 곳이다. 봉제거리박물관에는 창신동과 봉제산업의 역사, 봉제공장과 동대문시장의 협업과 생산체계, 봉제용어 소개, 봉제공장의 24시간, 647번지 일대 봉제인을 기념하는 기억의 벽과 벤치 등의 조형물을 설치하였다. 또한 골목에 위치한 건축물 대부분이 봉제공장을 운영하고 있어 거리를 거닐며 살아있는 봉제산업의 역사를 느낄 수 있도록 조성하였다. 특히 거리에 위치한 봉제공장에는 거리의 이름들 프로젝트를 통해 봉제업이 호황을 누렸던 1970년대 느낌을 살려 디자인한 간판을 제작해 부착하였다.³⁴⁾

34) 종로구(2015.5.14.), ‘마을전체가 박물관 봉제마을 창신동을 두드리다!’, 보도자료.



[그림 3-36] 봉제거리박물관 조형물 위치

봉제거리박물관 골목 끝에는 2018년 4월에 개관한 이음피움 봉제역사관이 있다. 도시재생사업 중 봉제산업 거점 공간으로 지하 1층에는 봉제 관련 기계 설비가 갖춰져 있어 다양한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봉제공장 운영 경험이 있는 해설사의 시연과 역사관 운영자의 개략적인 설명을 들은 후 해설을 마치고 자율적으로 관람한 후 4층 바느질 카페에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그림 3-37] 회오리길 ~ 이음피움 봉제역사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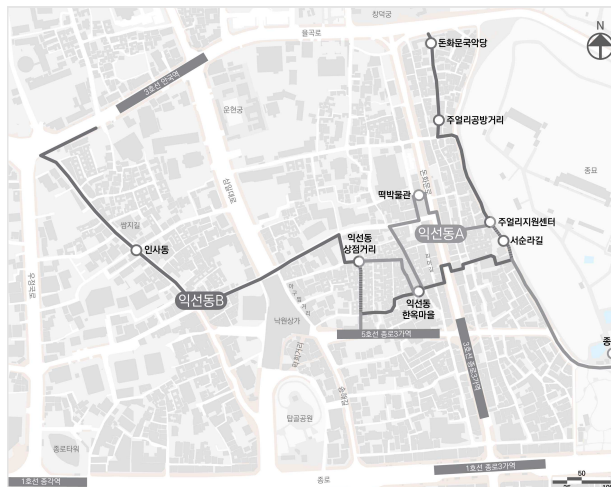
[그림 3-38] 해설사 시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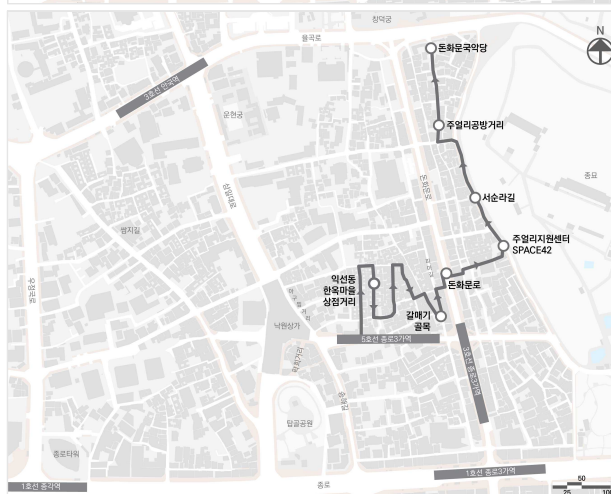
[그림 3-39] 설문조사 모습

3) 익선동 코스 주요 내용

기존 익선동 코스는 익선동 한옥마을 상점거리에서 서순라길, 종묘를 둘러 보는 A코스와 인사동부터 익선동, 서순라길을 따라 주얼리 공방거리와 돈화문 국악당, 창덕궁까지 둘러보는 B코스로 세분화되어있다. 낙원상가·돈화문로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범위와 창덕궁 앞 열하나 동네 범위에 따라 인사동과 창덕궁, 종묘는 제외하였으며 기존 B코스를 활용하여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의 핵심 사업지역인 익선동 일대, 돈화문로, 서순라길을 중심으로 재편하였다. 익선동 코스는 열하나 동네 중 돈의동, 묘동, 권농동, 와룡동 일대를 포함한다.



[그림 3-40]
익선동 기존 코스



[그림 3-41]
익선동 최종 코스

최종 익선동 코스는 종로3가역 5호선 4번 출구에서 집결하여 익선동 한옥마을 상점거리 - 갈매기골목 - 피맛길 - 돈화문로 - SPACE42 - 서순라길 - 주얼리 공방거리 - 돈화문국악당으로 구성하였다. 특히 익선동 한옥마을 상점거리는 모든 골목을 포함하여 상점들의 변화과정에 대한 해설을 포함하였다. 코스 구간 중 익선동 한옥마을과 갈매기골목은 차량 통과가 불가한 보행전용 골목길이며 돈화문로는 보차분리도로, 서순라길은 보차분리도로이지만 차량 통행이 적어 도로에서 통행하는 경우가 많다. 창신동과 달리 경사가 전혀 없는 평지 구간이며 대중교통 접근성을 고려하여 지하철 출구에서 출발하였다.

주요 코스 해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종로3가역 4번 출구에서 익선동 입지와 낙원상가에 대한 간략한 설명 후 익선동 골목으로 들어간다. 최근 익선동 한옥마을의 끊임없는 변화 속에서 유일하게 변하지 않은 것은 한옥마을을 이어주는 좁은 골목길들이다. 이러한 골목길은 동네 안쪽으로 이어져 동네 안의 구역을 연결하기에 안길이라고 부른다. 익선 안길은 돈화문로11다길과 수표로28길로 모두 폭 2m 내외로 한 골목마다 연장은 100m가 채 되지 않는다.

첫 번째 골목에는 익선동 상업화 초창기 상점인 열두달, 경양식1920, 가맥집을 재현한 거북이슈퍼가 있으며 끝에는 익선동 한옥마을에 들어선 최초의 가게 카페 뜰안이 있다. 2008년 카페를 시작했을 당시에는 주변의 노숙자와 출퇴근을 하는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만 들려 장사가 되지 않는 추세였지만 이후 한일합작 영화 촬영지로 등장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기 시작했다.³⁵⁾ 뜰안 맞은편 주차장 담벼락에는 익선동 한옥마을을 개발한 정세권의 액자와 익선동 한옥마을 개발사³⁶⁾가 간략하게 적혀있다.

35) 메모리 K, 「장소의 기억 익선동 166」, 2017

36) 담벼락에는 '1920년 우리나라 부동산 개발업자 정세권에 의해 개발된 익선동 한옥마을은 북촌보다 앞서 지은 도시형 한옥 주거단지입니다. 전통적인 한옥의 특성을 살리고 생활공간을 편리하게 재구성한 서민들을 위한 주택단지였으며 100여년 된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한옥 마을입니다. 현재 익선동의 110채 목조 전통 한옥은 콘크리트 건물에 둘러싸여 과거의 섬을 이루고 있습니다.' 라고 적혀있다.



[그림 3-42] 종로3가역 집결위치



[그림 3-43] 익선동 한옥마을 첫 번째 골목



[그림 3-44] 익선동 한옥마을 안길

두 번째 골목으로 넘어가는 돈화문로11다길에는 익선동이 상업화되는 촉매제 역할을 한 카페 식물이 있다. 패션스타일리스트, 사진에 이어 공간디렉터가 된 루이스박 대표가 2014년 소규모 한옥 4채를 이어 원래 공간이 가진 역사성을 보존하면서 그만의 감각을 입힌 카페로 신선한 시도를 통해 이목을 끌었다. 맞은 편 한옥은 익선동에서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낙원철물점이 있던 곳으로 현재는 향수 등을 판매하는 아씨방앗간이다. 바로 옆 한옥은 의식(주)에서 2016년에 문을 연 디자이너샵 수집이 있던 자리로 익선동 상업화 초기에 들어왔으나 2018년 1월에 문을 닫고 바로 옆 한옥에 익선칼라를 개업하였다. 기존 수집 위치에는 옷가게가 입점하였다.

두 번째 골목에 면한 블록에는 비교적 큰 한옥들이 위치해있다. 초입에 위치한 166-36·37번지에는 2015년에 개업한 미담헌으로 도심 속 한옥에서 돌잔치를 할 수 있는 공간이며 특히 166-37번지 한옥은 익선동 내에서 유일하게 담장이 낮아 골목길에서도 내부 마당과 한옥 전경을 바라볼 수 있다.



[그림 3-45] 돈화문로11다길



[그림 3-46] 미담헌 (익선동 166-37)

맞은편에 있는 익선칼라는 기존 수집 매장의 성격인 디자이너샵과 사진을 찍어주는 스튜디오를 함께 운영하는 복합문화공간이다. 익선칼라가 들어서기 이전에는 40년 동안 주민이 거주해왔으며 현재는 다른 동네로 떠났으나 매주 주민소통방에서 열리는 뜨개모임에 참석하여 익선동 주민들과의 교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두 번째 골목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가면 장미골목이

보인다. 장미골목은 골목에 거주하시는 할머니께서 익선동에 자리잡을 때 심으신 나무들이 모여 이루고 있으며 익선 안길에서 가장 명소로 꼽힌다. 세 번째 골목 166-29번지 앞에 위치한 삼거리는 익선동 내에서 공간이 넓고 가로수가 있어 주거지였을 시기에는 놀이터와 쉼터 역할을 했다. 또한 166-32번지는 창덕궁 앞 도성한북판 역사인문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조성한 주민소통방이다. 2017년부터 운영되어 올해 말까지 운영 예정이며 익선동 한옥마을 상점거리 내에서 유일하게 원형이 보존된 주택이다. 네 번째 골목은 가장 추후에 상업화된 골목으로 갈매기골목으로 이어지는 구간이다. 전체적으로 익선동 한옥마을 상점거리를 살펴보면 카페와 음식점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미담헌을 비롯하여 만화가와 영클비디오타운, 콧코오락실 등 한옥의 정서와 70-80년대 추억을 되새길 수 있는 체험 공간이 분포해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림 3-47] 장미골목



[그림 3-48] 익선동 한옥마을 내 삼거리



[그림 3-49] 주민소통방 내부



[그림 3-50] 익선동 네 번째 골목

갈매기골목은 지하철 5호선 공사가 착공하면서 돈화문로11길에 있던 포장마차들이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자 돈의동 안쪽 골목으로 들어와 1990년대 형성된 새로운 먹자골목이다. 현대적인 테라스와 달리 좁은 골목길에 깡통이라 불리는 테이블을 나열하여 골목의 정취를 느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 요인이다.



[그림 3-51] 갈매기골목 영업 전 모습



[그림 3-52] 갈매기골목 영업 모습

갈매기골목 삼거리를 돌아 나오는 돈화문로11가길의 명칭은 피맛길이다. 피맛길은 돈화문로의 이면으로 평행하게 뻗은 길이다. 조선시대에 신분이 낮은 백성들은 종로를 지나가다가 고관대작들을 마주치면 행차가 지나갈 때까지 땅바닥에 엎드려 있어야 했다. 그러한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좁은 뒷골목을 이용해서 양반들이 탄 말이나 가마를 피해서 다니는 길이라 해서 피맛길로 통용되었다.³⁷⁾ 종로의 피맛길인 청진동 일대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한 대규모 개발로 인해 대부분 사라졌으나 돈화문로 이면의 피맛길은 현재까지 형태가 유지되고 있다.

피맛길 사이로 나오면 묘동에 속하는 돈화문로이다. 1394년 한양 천도 후, 1405년에 창덕궁을 축조하기 시작했으며 1412년에는 창덕궁의 정문인 돈화문을 건립하였다. 한양은 지형적 특성을 반영하여 북에서 남쪽으로 흐르는 물길

37) 한국문화콘텐츠닷컴, “피맛길”, 「문화원형백과 서울4대문 안 길 이름」
<http://www.culturecontent.com/main.do>

을 따라 주요 도로축인 인사동길, 수표로, 돈화문로를 만들었다. 돈화문로는 조선시대에 종묘행차와 별궁행차는 물론 사신을 마중할 때 사용하던 왕의 길(어도)로 현재까지 옛 폭과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유일한 도로다. 2000년대 들어서 시행된 환경개선사업으로 2001년도에는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을 통해 기존 4차로를 2차로로 축소하고 기존 3m 내외의 보도를 5~8로 확폭하는 등 보행자 중심의 가로로 조성하였다. 이 사업으로 인해 보도 폭이 늘어난 대신 가로수를 옮겨 심지 않아 보도 한가운데 가로수가 있는 독특한 경관을 형성하고 있으며 현재는 한시적으로 차없는 거리를 운영하여 국악공연을 열고 있다.



[그림 3-53] 피맛길 (해설 모습)



[그림 3-54] 돈화문로 (해설 모습)

돈화문로를 건너 권농동으로 진입하면 주얼리지원센터 제2센터인 SPACE42가 있다. 주얼리지원센터는 종로 3~5가 일대를 주얼리산업을 고부가가치 도심형 제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유치한 지원센터로 2015년에 개관한 1관은 사무국으로, 2017년에 개관한 SPACE42는 2층 규모의 한옥으로 주얼리 디자이너 제품을 전시 및 판매하는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

지원센터 바로 앞에서 이어지는 순라길은 조선시대 순라군들이 육모방망이를 들고 야간에 화재와 도적을 경계하기 위해 순찰을 돌던 길로 돈화문로와 같이 한양 천도 이후 600년 넘게 변하지 않은 형태이다. 길의 한 면은 주거지를 경계로 하고, 한 면은 종묘를 경계로 하여 자연스럽게 조성된 선형공간이

그대로 길이 된 것으로 종묘의 동쪽 길을 동순라길, 서쪽 길을 서순라길이라고 한다. 조선시대에는 너비가 2m에 미치지 못하는 흙길이었으나 1930년대 도시화로 인해 대형필지가 나누어지면서 들어선 집 건물 벽면과 종묘 담장이 순라길의 윤곽이 되었다. 이후 1995년 종로구에서 서순라길을 일방통행 1차로 소방도로를 정비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기존 한옥필지가 잘려나가 반파한옥이라 불리는 비정형 한옥들이 다수 형성되었다. 이후 2006년에는 서순라길 입구 부분과 종묘 사이의 기존 주택들을 철거하고 공원을 조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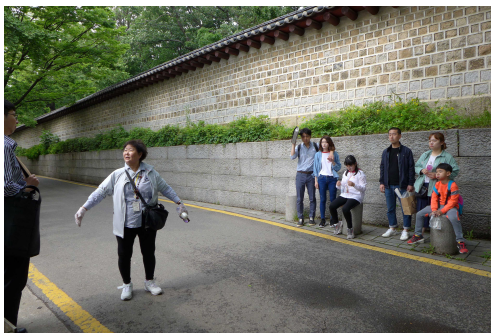
[그림 3-55] 익선동 한옥마을 ~ 서순라길

서순라길을 따라 올라가다보면 주얼리 공방거리가 등장한다. 아직 육성단계이기 때문에 공방들이 사이사이에 위치해있다. 이중에서도 소연카페는 1세대 금속 공예가 김승희 선생이 2009년 서순라길에 자리 잡은 곳으로 공방을 비롯해 카페, 갤러리를 운영하는 곳이다.

골목을 따라 율곡로로 나오면 보이는 돈화문국악당은 창덕궁의 국악 문화를 계승하기 위하여 창덕궁 맞은편 주유소 부지를 서울시가 매입하여 국악전문 공연장으로 조성하여 2016년 9월에 개관한 곳이다. 한옥과 현대건축 양식을 혼합하여 자연음향 실내공연장과 야외 공연을 위한 국악마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곳에서 해설을 마치고 자율적인 관람 후 야외공연을 위한 국악마당인 잔디마당에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그림 3-56] 서순라길 ~ 돈화문국악당



[그림 3-57] 서순라길 (해설 모습)



[그림 3-58] 돈화문국악당 (설문조사 진행)

4) 설문조사 개요

본 연구에서는 종로구 골목길 탐방 프로그램 현장실험 후 설문조사를 통해 도보관광에 대한 인식과 흥미로운 코스와 가로구간 및 지역에 대한 이해도에 대해 파악하고자 하였다.

설문조사는 참여자의 일반 사항, 도보관광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각 지역 인지 여부 및 해설 후 이해도, 각 코스별 흥미구간, 해설에 대한 인식, 만족도 및 행동의도를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코스별로 참여자를 모집하여 프로그램 현장실험과 설문조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기존 홈페이지 설문조사 항목인 접근 경로, 신청 동기, 참여 빈도 등 신청 과정과 관련된 사항은 설문조사 항목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해설사에 대한 문항의 경우에는 기존 홈페이지 설문조사를 통해 만족도가 조사되었기 때문에 본 설문조사에서는 해설 내용을 유형화하여 선호도를 조사하였다. 해설 내용은 연구자의 사전 경험을 토대로 유형화하였다.

각 코스별 흥미구간은 참여자들의 다양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지점은 1 ~ 3순위를 기입하도록 하고 가로구간은 매핑으로 표현하도록 한 다음 이유를 기재하도록 했다. 또한 도보관광 프로그램 시, 박물관과 미술관과 같이 전시 및 체험 코스가 있을 경우 입장료를 개인이 부담해야 하고 그만큼의 시간이 더 소요된다. 본 연구에서는 프로그램 시간을 1시간으로 축소하였으므로 창신소 통공작소, 이음피움 봉제역사관, 주얼리지원센터, 돈화문국악당에 대해 개별적으로 충분히 원하는 시간동안 관람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향후 재방문 의사가 가장 높은 장소에 대한 문항을 추가하였다.

[표 3-7] 설문조사 문항 분류표

구분	설문문항	척도
참여자의 일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 - 직업 - 연령 - 거주지 	명목척도
도보관광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심 정도 - 타 프로그램 이용 경험 - 주요 활동 - 도보관광 프로그램 장점 - 도심 도보관광 프로그램의 차별성 	<div>Likert 척도</div> <div>명목척도</div>
지역 인지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문 경험 - 도시재생사업지역 인지 여부 - 특화산업(봉제, 주얼리) 인지 여부 	명목척도
각 코스별 흥미구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스 1~3순위 - 가로구간 - 이유 - 재방문 선호 장소 	<div>명목척도</div> <div>Mapping</div> <div>주관식</div> <div>명목척도</div>
해설에 대한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호 유형 - 해설 내용 	<div>명목척도</div> <div>주관식</div>
만족도	- 만족도, 재미 수준, 유익 수준, 경험 수준	Likert 척도
행동의도	- 추후 참여, 자율 방문, 타 프로그램 참여, 추천 여부	Likert 척도

제4장 참여자 인식 특성

1절 도보관광 인식 특성

1) 참여자의 인구통계적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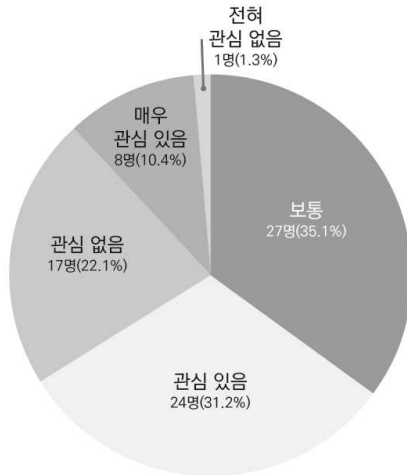
참여자의 인구통계적 특성에서 성별은 남성이 38명, 여성이 39명으로 거의
 고른 분포를 보인다. 연령별로는 20대가 가장 많은 60명으로 30대는 15명, 40
 대와 50대가 각각 1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구성은 회사원이 29명, 학생이
 28명으로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기타 10명, 사업·자영업자 8명, 공무원
 과 주부가 각각 1명 순으로 나타났다. 거주지는 서울시가 59명, 경기도 13명,
 인천시 3명, 대구시 2명으로 서울시가 가장 많았다. 구체적으로 서울시 참여자
 는 송파구 19명, 관악구 13명, 서초구 6명, 강남구 5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4-1] 참여자의 인구통계적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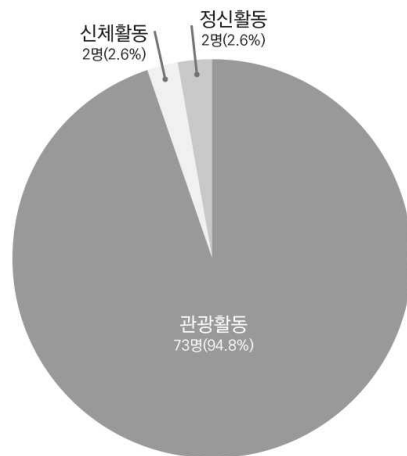
구분		빈도수(명)	구성비율(%)
성별	남	38	49.4
	여	39	50.6
연령대	20대	60	77.9
	30대	15	19.5
	40대	1	1.3
	50대	1	1.3
직업	학생	28	36.4
	회사원	29	37.7
	공무원	1	1.3
	사업·자영업자	8	10.4
	주부	1	1.3
	기타	10	13.0
거주지	서울시	59	76.6
	경기도	13	16.9
	인천시	3	3.9
	대구시	2	2.6

2) 도보관광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도보관광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 정도는 보통이 27명(35.1%), 관심 있음이 24명(31.2%), 관심 없음이 17명(22.1%), 매우 관심 있음이 8명(10.4%), 전혀 관심 없음이 1명(1.3%)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관심 있음 24명 중 6명과 매우 관심 있음 8명 중 4명, 총 10명(13%)은 도보관광 프로그램을 참여한 경험이 있었다. 또한 도보관광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진 활동으로 관광활동이 73명(94.8%)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신체활동과 정신활동이 각각 2명(2.6%)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도보관광이 무조건적인 관광활동이 아니라 신체와 정신활동이 제반된 활동이라는 특성을 갖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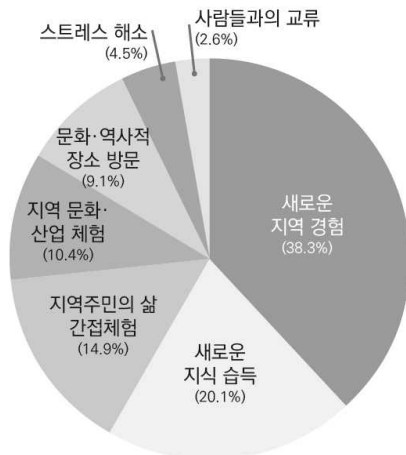
[그림 4-1] 관심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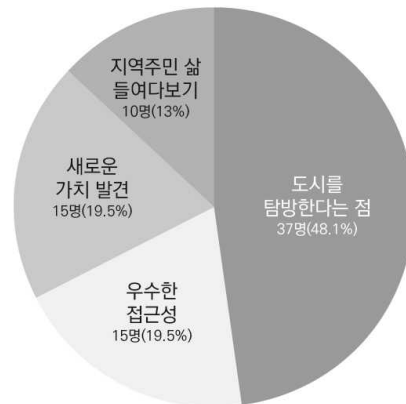
[그림 4-2] 이루어진 활동

도보관광 프로그램의 장점(2개 항목 선택)으로는 새로운 지역을 경험한다는 점이 38.3%로 가장 높았고 새로운 지식 습득(호기심 충족)이 20.1%, 지역주민의 삶 간접체험이 14.9%이며 지역 문화·산업 체험은 10.4%, 문화·역사적 장소 방문이 9.1%에 이어 스트레스 해소 4.5%, 사람들과의 교류는 2.6%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도보관광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지역을 경험하고 그 지역에 대한 지식을 습득한다는 점을 가장 높게 평가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종로구 골목길 탐방 프로그램과 같이 도심, 특히 골목길을 중심으로 한 도보관광 프로그램의 차별성으로는 일반적인 역사문화재가 아니라 도시를 탐방한다는 점이 37명(48.1%)으로 가장 높았고 우수한 접근성과 개발 이슈에 놓인 장소들에 대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는 점이 각각 15명(19.5%)으로 동일하였으며 지역주민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점은 10명(13.0%)으로 나타났다. 즉, 역사문화재(점 형태)와 같은 장소 중심적인 기존 문화관광해설과 달리 도시 자체를 대상으로 탐방로(선 형태)를 따라 해설을 진행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림 4-3] 장점



[그림 4-4] 차별성

3)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및 행동의도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평균은 4.03으로 참여자들은 대부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족도에 관해서는 익선동과 창신동 모두 기대했던 것보다 좋은 경험을 했다는 점을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창신동의 경우 지식 함양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았으며 익선동은 재미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행동의도에 관해서 창신동의 경우 주변 사람들에게 프로그램을 추천하겠다는 의사가 가장 높았으며 익선동은 추후 자유투어 방문의사가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창신동은 주거지 성격인데 비해 익선동 한옥마을은 상점거리이기 때문에 여가시간을 보내기 위해 재방문하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익선동이 창신동에 비해 상업시설이 많아 도보관광 시 가로변에 위치한 다양한 상점의 외관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익선동이 창신동보다 평균적인 만족도와 행동의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표 4-2] 프로그램 만족도 및 행동의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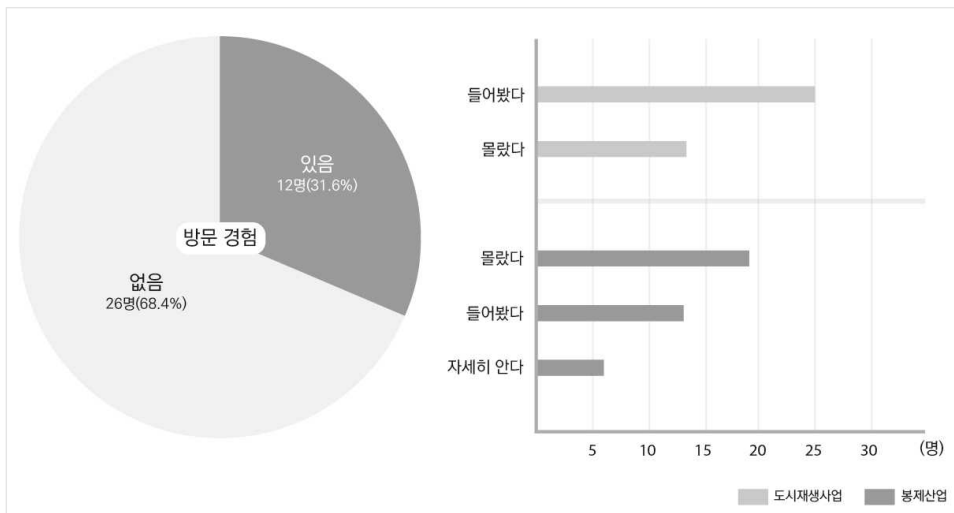
항목		창신동	익선동	평균
만족도	만족도	3.97	4.08	4.03
	재미	3.89	3.97	3.93
	지식 함양	3.63	4.05	3.84
	경험 수준	4.08	4.16	4.12
행동의도	추후 참여 여부	3.63	3.74	3.68
	자유투어 방문 여부	3.66	4.24	3.95
	타 프로그램 참여 여부	3.87	4.08	3.97
	추천 여부	4.03	4.03	4.03

2절 코스별 인식 특성

1) 창신동 코스

■ 지역 인지 여부

창신동 코스 참여자 38명 중에서 창신동 방문 경험이 있는 참여자는 12명(31.6%)이며 방문 경험이 없는 참여자는 26명(68.4%)으로 나타났다. 창신·송인 도시재생선도지역 선정 및 사업 내용 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25명(65.8%)이 ‘들어봤으나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라고 응답했고 13명(34.2%)은 ‘모른다’라고 응답했다. 또한 봉제산업 인지 여부는 19명(50%)이 ‘모른다’, 13명(34.2%)이 ‘들어봤으나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 6명(15.8%)이 ‘자세한 내용을 알고 있다’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창신동 코스 참여자들은 도시재생사업보다 봉제산업에 대한 인지도가 더 높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림 4-5] 창신동 지역 인지 여부

■ 매력구간의 도시공간 특성

참여 후 도보관광 시 가장 흥미로웠던 코스를 빈도 분석한 결과, 돌산 밑 마을, 회오리길, 이음피움 봉제역사관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6] 창신동 코스 순위

[표 4-3] 창신동 코스 득표 결과

항목	1순위	2순위	3순위
돌산 밀 마을	■ (15표)	■ (7표)	■ (1표)
회오리길	■ (4표)	■ (8표)	■ (5표)
이음피움 봉제역사관	■ (5표)	■ (5표)	■ (12표)
000간2	■ (7표)	■ (7표)	■ (3표)
라디오방송국 덩	■ (2표)	■ (4표)	■ (2표)
뽕든지도서관	-	■ (1표)	■ (1표)
창신소통공작소	■ (1표)	■ (3표)	■ (11표)
축대마을	■ (4표)	■ (3표)	■ (3표)

가장 흥미로웠던 가로구간의 경우 Mapping한 결과를 레이어드한 결과, 돌산 밑 마을 구간, 회오리길, 실아트골목, 봉제거리박물관, 축대마을부터 뽕든지도 서관 구간, 창신소통공작소 구간, 창신시장 구간 순으로 코스와 비슷한 결과로 나타났다.



[그림 4-7] 창신동 가로구간 순위

돌산 밑 마을은 코스에서 15표로 압도적으로 1위에 랭크되었다. 참여자들이 돌산 밑 마을을 흥미로워 하는 이유는 역사에 얽힌 채석장으로 인해 절개지가 탄생한 배경, 현재까지 남아있는 절개지 아래 마을이 형성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마을과 절개지가 만나 서울 도심에서 볼 수 없는 이색적인 경관을 이룬

다는 점으로 정리할 수 있다. 또한 마을의 형성 배경과 경관뿐만 아니라 마을 내 골목길에 위치한 독특한 건축물들도 기억에 남는다는 의견도 찾아볼 수 있다. 특히 마을 입구에 위치한 화분 많은 주택(도시재생주민협의체 대표)과 루핑주택 등 다양한 건축형태를 볼 수 있어 도보 시의 매력과 돌산 밑 마을을 올라가 계단 위에서 절개지와 어우러지는 마을 경관의 매력을 모두 인상 깊게 인식하였다.

회오리길은 코스별로 비슷한 득표가 많았으나 8표로 2위에 랭크되었다. 회오리길 또한 서울에서 흔하게 걸을 수 없는 골목길인데다가 길의 모양을 보고 주민들이 직접 네이밍한 길이란 점에서 창신동의 대표적인 장소로 인식하였다. 또한 가파른 경사지를 층층이 이루고 있는 주택들과 회오리길 중간 지점에 건립 중인 창신2동 주민공동이용시설 회오리마당이 어우러지는 가로경관을 인상 깊게 인식하였다. 가로경관에는 회오리길을 통행하는 오토바이의 모습들도 언급되었다. 특히 단순히 회오리라는 명칭뿐만 아니라 이곳에 위치하고 있는 해설사의 신혼집 앞에서 언급한 신혼 시절 이야기를 들으면서 80년대 당시 회오리길 일대 마을의 분위기와 주민들의 생활상을 상상할 수 있는 재미가 있다는 점도 이유로 나타났다.

이음피움 봉제역사관 역시 비슷한 득표가 많았으나 12표로 3위에 랭크되었다. 참여자들은 봉제라는 지역산업 콘텐츠를 활용하여 박물관을 조성하였다는 점에서 흥미를 느꼈으며 역사관 자체의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가 풍부하다고 언급하였다. 특히 이음피움 봉제박물관은 647번지로 들어서는 골목길에서 시작되는 봉제거리박물관이 이음피움 봉제역사관으로 가는 길을 더욱 흥미롭게 해주며 647번지 가장 꼬트머리에 위치하여 전시의 피날레를 장식하는 곳이라고 여겨진다는 답변이 많았다. 즉, 647번지를 따라 창신동의 이미지와 봉제산업의 생활상을 한눈에 볼 수 있다는 점을 가장 매력요소로 꼽았다. 따라서 참여자들은 봉제거리박물관 역시 흥미로운 가로구간으로 인식하였다. 또한 4층에서 절개지와 돌산 밑 마을을 비롯한 창신동 전경을 바라볼 수 있다는 점

에서 봉제산업의 집적지뿐만 아니라 창신동의 우수한 조망점으로 인식하였다. 이전에 창신동을 방문했던 참여자는 이전 방문 시와 도시재생사업 이후 가장 큰 차이를 느꼈던 장소라고 언급하였다.

이외에도 창신소통공작소는 창신동 중앙에 위치하여 창신동의 전체적인 전경을 볼 수 있는 장소로서 3위에 응답 수가 많았다. 또한 창신소통공작소 맞은 편으로 아기자기한 입면을 가진 카페건물이 있어서 관광객 입장에서 창신동 관광 시 유일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여겼다. 창신소통공작소는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여러 공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도보관광 해설 시에는 직접적인 체험이 어려워 창신소통공작소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흥미롭게 인식하고 있지는 않았다.

000간2은 1위와 2위에 고르게 득표가 많았으나 상위에 랭크되지는 못했다. 000간은 창신동 코스 초반에 위치해있고 건축물이 완만한 경사지를 활용하여 9칸의 출입구가 모두 다른 높이로 계획되어 있으며 대부분이 가내수공업 봉제 공장 형태여서 창신동 이미지를 잘 담아내고 있다고 언급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창신동 코스 초반 구간인 축대마을 ~ 000간2 ~ 뽕지도서관을 흥미로운 가로구간으로 응답하기도 했다. 또한 000간의 취지에 대해 봉제산업을 새로 유입된 청년들이 부흥시키는 상징적 공간이고 자투리천을 활용하여 업사이클링 제품을 만든다는 점에서 흥미를 느낀다고 응답하였다.

라디오방송국 덩이 흥미로운 코스라고 언급한 참여자들은 자신의 동네에 애착을 갖고 있는 주민들이 모여 주도하는 사회적 기업 중에서도 실제로 운영이 원활하고 커뮤니티가 활발한 지역 자생 방송국이라는 점에서 인상 깊다고 언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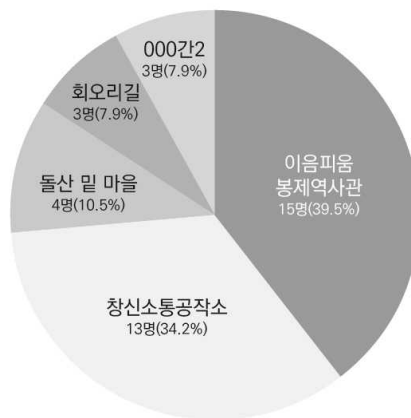
축대마을의 경우 돌산이었던 곳을 채석하여 남은 공간에 경사지에 적응하고자 축대를 쌓아 지었다는 역사적 배경을 흥미롭게 인식하였다.

■ 재방문 선호 장소

창신동 코스에서 참여자들이 가장 재방문하고 싶은 장소는 이음피움 봉제박물관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음피움 봉제박물관이 지난 4월 11일에 개관하여 방문객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방문하였기 때문에 향후 박물관 프로그램 및 이용 행태가 활성화되면 재방문하고 싶다는 의사가 많았다. 이음피움 봉제역사관에서는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니셜 자수 새기기, 캐릭터 티셔츠 만들기, 강아지옷 만들기, 아기옷 만들기, 나만의 바지 만들기 등 주로 봉제실습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공작 프로그램을 체험하기 위해 창신소통공작소를 재방문하고 싶다는 의견도 많았다. 창신소통공작소에서는 목공 기초, 봉제 기초를 비롯해 칠판 서랍, 한복, 가죽 장지갑, 자수 손거울 등 단계별로 창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고 창작 페스티벌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리기도 한다.

이외에도 창신동의 지역 장소성을 대표하는 돌산 밑 마을, 회오리길, 000간2를 재방문하고 싶다는 의견도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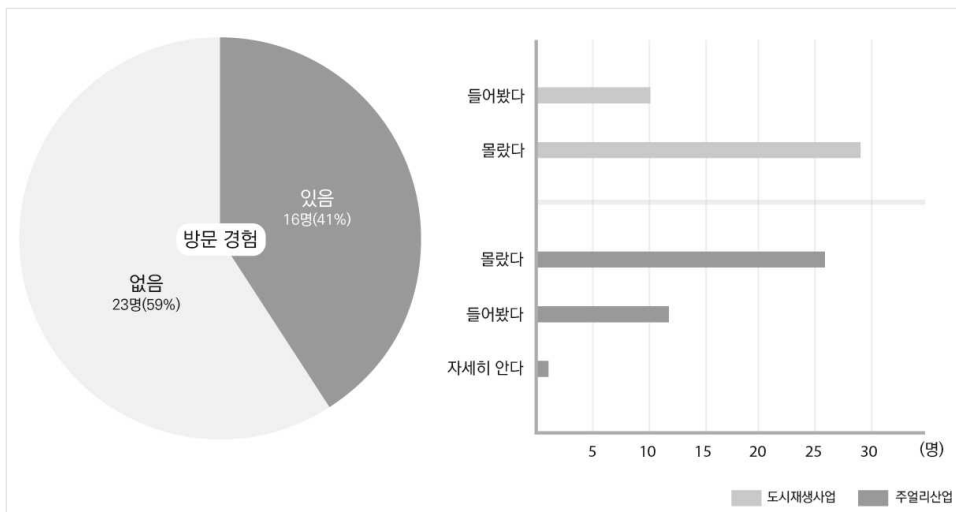
[그림 4-8] 창신동 코스 재방문 선호 순위

2) 익선동 코스

■ 지역 인지 여부

익선동 코스 참여자 39명 중에서 익선동 방문 경험이 있는 참여자는 16명(41%)이며 방문 경험이 없는 참여자는 23명(59%)으로 나타났다. 낙원상가·돈화문로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선정 및 사업 내용 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10명(25.6%)이 ‘들어봤으나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라고 응답했고 29명(74.4%)은 ‘모른다’라고 응답했다.

또한 주얼리산업 인지 여부는 26명(66.7%)이 ‘모른다’, 12명(30.8%)이 ‘들어봤으나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 1명(2.5%)이 ‘자세한 내용을 알고 있다’ 순으로 응답했다. 따라서 익선동 코스 참여자들은 주얼리산업보다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인지도가 더 높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림 4-9] 익선동 지역 인지 여부

■ 매력구간의 도시공간 특성

참여 후 도보관광 시 가장 흥미로웠던 코스를 빈도 분석한 결과, 익선동 한옥마을, 서순라길, 갈매기골목, 돈화문로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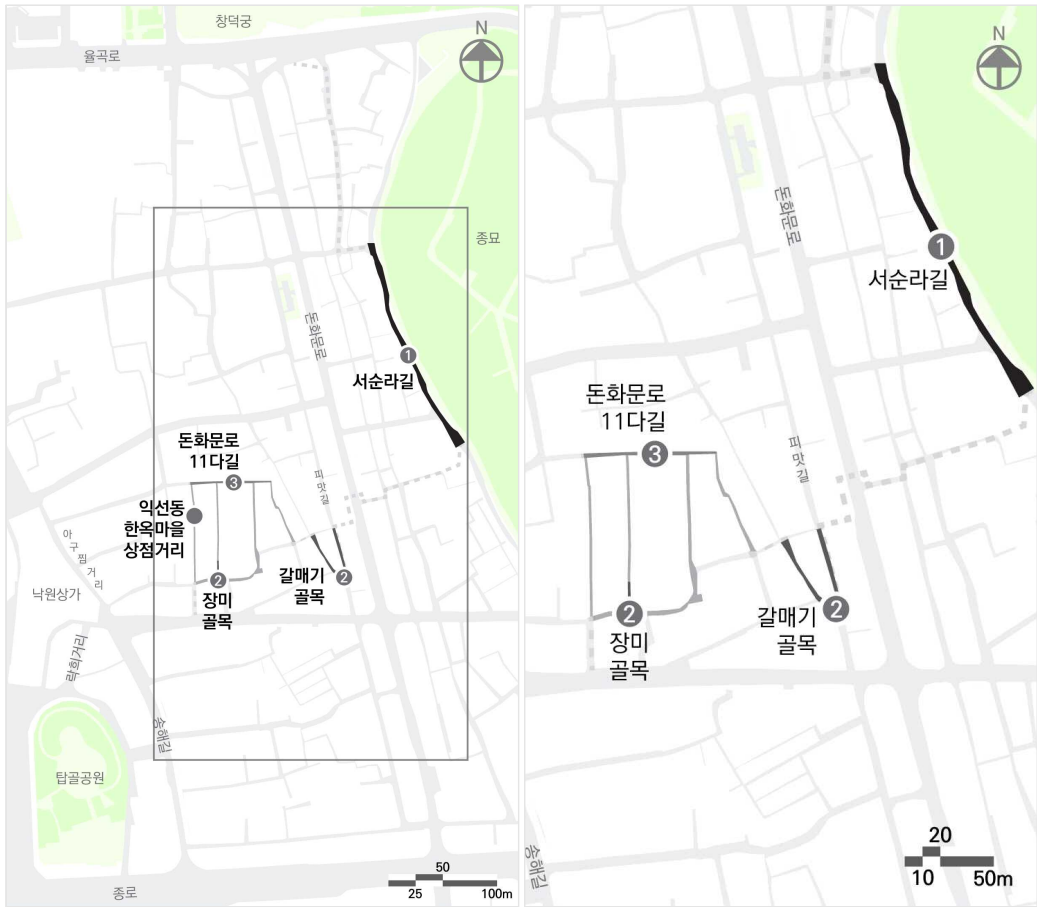


[그림 4-10] 익선동 코스 순위

[표 4-4] 익선동 코스 득표 결과

항목	1순위	2순위	3순위
익선동 한옥마을	■ (24표)	■ (7표)	■ (10표)
서순라길	■ (11표)	■ (11표)	■ (5표)
갈매기골목	-	■ (2표)	■ (10표)
돈화문로	■ (2표)	■ (8표)	■ (1표)
주민소통방	■ (2표)	■ (3표)	■ (3표)
주얼리지원센터	-	■ (4표)	■ (5표)
돈화문국악당	-	■ (4표)	■ (5표)
주얼리공방거리	■ (1표)	-	-

가장 흥미로웠던 가로구간의 경우 Mapping한 결과를 레이어드한 결과, 서순라길, 갈매기골목과 익선동 한옥마을 내 장미골목, 익선동 한옥마을 북측 안길 (돈화문로11다길), 익선동 한옥마을 안길 전체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11] 익선동 가로구간 순위

설문조사 시, 익선동 한옥마을을 작성할 경우 세부적인 상점의 용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상점명을 기입하도록 했다. 익선동 한옥마을 응답 시 나타난 상점들의 순위에서는 뜰안, 미담헌, 식물이 가장 많이 언급되었다.

[표 4-5] 익선동 한옥마을 내 득표 결과

항목	1위	2위	3위
뜰안	■ (5표)	■ (1표)	■ (3표)
식물	■ (4표)	■ (2표)	■ (2표)
미담헌	■ (5표)	■ (2표)	■ (1표)
거북이슈퍼	■ (2표)	-	■ (2표)
익선칼라	■ (1표)	-	-
동남아식당	■ (2표)	■ (1표)	-
만화가게	■ (1표)	■ (1표)	-
영클비디오타운	■ (3표)	-	■ (2표)

익선동 한옥마을은 코스에서 24표로 압도적으로 1위에 랭크되었다. 또한 흥미로운 가로구간으로도 다수 응답되었다. 참여자들이 익선동 한옥마을 거리를 흥미로워 하는 포괄적인 이유는 주택을 상점으로 개조하여 젠트리피케이션을 목격할 수 있고 아이디어가 돋보이고 디자인이 눈에 띄는 상점들이 많아서였다. 또한 기존 한옥마을과는 다른 분위기로 작은 상점들이 좁은 골목에 밀집해 있는 도시조직에 흥미로움을 느낀다고 응답하였다.

한옥마을 내에서도 가장 많은 득표를 얻은 미담헌은 전통한옥에 어울리는 공간과 기능으로 활용했다는 점이 참신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특히 담벼락이 낮아 좁은 안길에서 시야가 트이는 유일한 지점이어서 한옥 내부 중정을 볼 수 있다는 점을 흥미롭게 인식하였다. 뜰안은 익선동 한옥마을에 유입한 최초의 카페이며 일반 카페와 달리 전통차를 테마로 하고 있어 한옥에 더 어울리는 공간과 분위기를 자아낸다는 점이 언급되었다. 식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익선동 한옥마을이 알려지는 계기가 된 장소라는 점이 가장 매력 요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거북이슈퍼는 뜬겨진 담벼락 인테리어와 동네 슈퍼 역할을 함과 동시에 가맥집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상 깊었다는 의견이 나타났다. 익선칼라는 다른 상점과 달리 직접 참여하는 형태이라는 점, 동남아식당은 한옥

마을 내에서 유일한 2층 한옥이라서 주변을 내려다볼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고 언급되었다. 특히 잉클비디오타운과 만화가계는 외식 상권 위주의 상점 거리에서 즐길 거리가 있고 한옥을 접목하여 옛 추억과 감성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이 이유로 언급되었다. 이처럼 익선동 한옥마을은 북촌, 서촌, 인사동과 같은 도심 한옥마을에서 음식점, 카페 외에도 다양한 소재를 시도하고 도입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근처 인사동은 ‘인사동 문화지구 관리계획’에 따라 전통문화 권장 업종을 지정해 상권을 보호하고 있는 반면, 익선동은 아직 업종 제한이 없다는 점에 힘입어 다양한 업종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욱 흥미롭게 인식할 요소가 많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도시재생사업의 주체역할을 하고 있는 주민소통방이 익선동 한옥마을 상점거리 한가운데 자리하고 있고 유일하게 한옥의 원형을 볼 수 있는 점에 대해 의미가 깊다고 인식하였다.

“익선동은 낙후됐지만 쇠락하지는 않았던 한옥마을이에요. 상업화 과정에서 카페나 음식점같이 식음료 중심적인 상권 성격이 아니라 그래도 한옥과 어울리는 기능을 도입한 상점들이 다소 있어서 다행이죠.”

박경란 (창덕궁 앞 역사인문재생지역 코디네이터)

익선동 한옥마을 안길 중에서도 북측 안길인 돈화문로11다길은 남북으로 뻗은 수표로28길로 이루어진 안길들이 모이는 구간으로 다른 안길로 이동하기 위해 모이는 골목이라서 유동인구의 흐름을 볼 수 있는 특징적인 골목이라는 점을 흥미롭게 여겼다. 또한 한옥마을 내에서도 가장 흥미로운 구간은 익선동 174번지를 중심으로 조성된 장미골목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골목길 특성상 가로수가 거의 없는 익선동 내에서 유일하게 주민의 손으로 직접 심은 장미가 넉쿨을 이루어 좁은 골목길의 가로경관에 심미성을 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인상 깊게 인식하였다.



[그림 4-12] 익선동 한옥마을 확대

서순라길은 가장 흥미로운 코스 2위를 비롯해 가로구간에서는 1위로 나타났다. 우선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프로그램을 통해 서순라길의 존재와 역사를 처음 접하여서 답변에 ‘서울에 이런 길이 있는 줄 몰랐다’라는 내용을 대부분 포함하였다. 또한 600년간 가로 폭과 주변 건축물들은 다소 변하였지만 본질적인 형태가 그대로 보존되어 왔다는 사실을 인상 깊게 여겼다.

서순라길 가로경관에 대해서는 종묘 돌담길과 조화롭게 어우러져 특유의 고즈넉함이 주는 매력과 아직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아 한적함이 더해져 조용한 분위기와 공간감이 좋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가로수가 많고 울창하며 주얼리공방이 곳곳에 위치하여 여유롭고 산책하기 좋다는 점과 익선동 한옥마을 상점거리나 갈매기골목에 비해 길의 폭이 넓고 아직 무분별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도보 시 편리하다는 점도 언급되었다. 특히 서순라길에 대해서 참여자들은 익선동을 비롯해 창신동을 포함한 모든 코스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아름답다’, ‘고즈넉하다’, ‘평화롭다’ 등 다양한 형용사들을 활용하여 흥미로운 이유를 설명하였다.

갈매기골목은 서순라길 다음으로 가장 흥미로운 코스 3위를 비롯해 가로구간에서는 2위로 나타났다. 갈매기골목은 자연스럽게 형성된 특화골목으로 특히 600년 동안 유지된 피맛길을 지금까지도 서민들이 찾는 골목이라는 역사를 인상 깊게 여겼다. 또한 일반적인 고깃집 골목과 달리 영업을 하지 않을 때는 여느 골목길과 다르지 않은 모습이지만 영업을 할 때에는 골목길에 깡통테이블을 진열하여 골목길 자체를 테라스 영업장으로 활용하고 있어 서울에서 보기 드문 길거리문화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을 ‘사람 냄새가 난다’, ‘친화적이다’라는 표현으로 설명하였다.

돈화문로 역시 600년간 변하지 않은 어도라는 점에서 흥미롭게 인식하고 있었으나 코스 구간 상 돈화문로를 직접적으로 걷지 못하고 횡단하여 지나갔기에 같은 기간의 역사를 가진 피맛길과 서순라길에 비해 흥미롭게 인식하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도보관광 시에는 해설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도보를 하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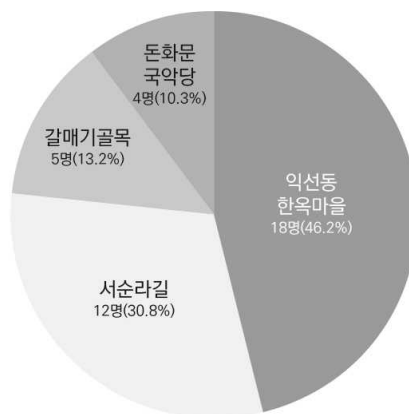
해설을 듣는 것과 잠시 도보를 멈춘 상태에서 듣는 것은 인식의 깊이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주얼리지원센터 2관 SPACE42에 대해서는 주얼리공방이 밀집해 있는 지역 특성을 잘 반영한 공간이라는 점과 도시재생사업 전략으로 서순라길 일대에 주얼리 공방거리 조성에 대한 기대감에 대해 흥미롭게 인식하였다.

■ 재방문 선호 장소

익선동 코스에서 참여자들이 가장 재방문하고 싶은 장소는 익선동 한옥마을로 나타났다. 이는 행동의도와 관련하여 익선동 코스 참여자들이 추후 자을 방문 의사가 높은 것으로 보아 여가 시간을 보내기 위해 익선동 한옥마을을 재방문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한적하고 조용한 서순라길과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갈매기골목, 국악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돈화문국악당 등 실질적으로 참여자들이 익선동 일대에서 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소를 재방문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13] 창신동 코스 재방문 선호 순위

3) 선호 해설 유형 및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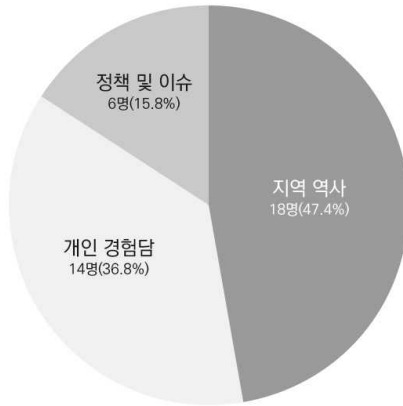
참여자가 선호하는 해설 유형은 매력구간 순위와 동일한 순서로 나타났다. 창신동의 경우에는 지역 역사(47.4%), 개인 경험담(36.8%), 정책 및 이슈(15.8%)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익선동은 지역 역사(41%), 정책 및 이슈(38.5%), 개인 경험담(20.5%) 순으로 나타났다.

우선 창신동 코스의 경우 장 인상 깊었던 해설 내용은 ‘채석장이 일제강점기 시절 경성의 대형 석조 건축물을 짓는데 사용되었다는 내용’, ‘채석장으로 인한 돌산 밑 마을 형성 과정’, ‘해설사 신혼집 에피소드와 봉제산업 종사 이야기’, ‘창신동 거리와 당시 풍경에 대한 설명’, ‘도시재생사업 및 사회적 기업의 활동에 관한 내용’으로 정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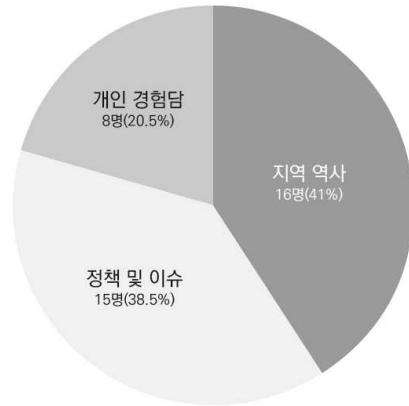
익선동 코스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해설 내용은 ‘서순라길, 돈화문로, 피맛길에 대한 역사’, ‘왕의 행차와 주얼리, 한복, 국악거리 생성의 연관성’, ‘익선동 한옥마을 상점거리의 변천사’ 중에서 특히 장미골목의 탄생 과정과 같은 익선동 주민에 대한 소소한 이야기, 뜰안과 식물 등 주요 상점의 배경으로 정리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해설 내용 구성에서, 창신동의 경우 해설사가 봉제공장을 운영한 경험이 있고 코스를 따라 자신이 거주했던 위치와 그에 관한 이야기를 자주 언급하였고 익선동의 경우에는 해설사 개인적인 경험담보다 익선동 한옥마을의 변천과정과 도시재생사업 및 주얼리산업에 대한 언급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도시재생사업 및 특화산업(봉제산업, 주얼리산업)과 관련하여 창신동의 경우에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코스가 모두 봉제산업과 연관된 장소이기 때문에 봉제산업에 대한 선호 해설 내용 비중이 더 높다. 익선동의 경우에는 주얼리산업과 관련된 코스들이 육성단계이기 때문에 도시재생사업의 주축이 되는 익선동 한옥마을 일대에 대한 선호 해설 내용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참여자들은 자을 방문 시에는 간과하게 되는 지역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비롯해 지역 주민이 아니면 해설할 수 없는 생활문화콘텐츠로 작용하는 지역 내부 이야기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인 경험담보다는 그 지역에 대한 맥락과 관련된 일반적인 정보들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14] 창신동 해설 선호 유형



[그림 4-15] 익선동 해설 선호 유형

설문조사 기타 의견에서 일부 참여자는 과거 사진 자료를 첨부하여 해설 시 활용하거나 해설 시작 전 지역 소개와 관련 사업 및 산업 내용들에 대한 개략적인 정보를 설명하면 더욱 이해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등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언급하였다.

제5장 결론

1절 결론 및 시사점

도보관광 프로그램은 도시 및 지역마케팅 방안으로서 나타나는 정책적 필요성과 새로운 관광 패러다임으로 인한 일반인의 새로운 취향을 배경으로 탄생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종로구 골목길 탐방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생활문화콘텐츠를 중심으로 스토리텔링을 전개하였으며 참여자가 인식하는 도보관광의 특성을 파악하고 매력구간을 도시공간적 특징으로 해석하였다.

우선 도보관광 운영 특성으로 본 연구의 대상인 종로구 골목길 탐방 프로그램은 주민이 직접 해설하여 단순한 역사적 사실 외에도 지역을 둘러싼 생활문화콘텐츠에 대한 내용을 접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프로그램은 주로 공무원과 학교 커리큘럼의 일환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다수로 나타났으며 도보관광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의무적, 비자발적 동기에 의한 방문에서 나아가 다양한 계층을 중심으로 자발적 동기부여가 되는 프로그램으로 육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도보관광에 대한 홍보가 선행되어야 하며 종로구 골목길 탐방 프로그램의 경우 코스 개발보다 기존 코스의 흥미유발성과 연계성을 고려하고 수요자 맞춤형 운영체계를 도입하는 등 프로그램의 질(質)에 집중하여 개선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현장조사 실험을 통한 참여자의 인식 특성 결과는 다음과 같다. 참여자들이 흥미로워 하는 코스와 가로구간의 결과에 따르면 참여자들은 도보관광 프로그램을 통해 새롭게 조성한 공간과 건축물보다는 기존에 그 지역의 도시형태와 지형적 특성을 잘 나타내는 공간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 특히 창신동의 경

우 도시경관을 볼 수 있는 조망점을 선호하는 경향이 컸다. 이는 연속적인 장면으로 도시경관을 체험하는 과정에서 시각적인 즐거움뿐만 아니라 기억과 체험, 정서적인 감응이 동반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Cullen, G. 1995).

그에 비해 재방문 선호 장소는 여가 시간을 보내기 위한 체험이나 관람 또는 카페, 음식점이 밀집한 보행자 중심의 거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창신동의 경우 이음피움 봉제역사관, 창신소통공작소와 같이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건립된 거점 시설에 대한 재방문 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창신동의 경우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시설이 재방문 선호 장소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익선동의 경우는 상업 위주의 공간적 성격이 재방문 선호 장소에 영향이 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해당 지역의 공간적 성격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이 효과적인 지역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바를 시사한다. 따라서 도시재생사업은 주민뿐만 아니라 외부 관광객을 유입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는 지역주민의 삶을 간접체험하고자 하는 관광트렌드가 반영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향후 창신동 및 익선동 지역 연구 및 도심 도보관광 관련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특정 코스인 창신동과 익선동을 대상으로 코스를 재편하였고 한정된 수단을 통해 모집된 참여자의 특수성으로 인해 사례 연구로서 연구 결과가 일반화되기 어렵다는 점을 지닌다.

참고문헌

단행본

- 김경민, 「건축왕, 경성을 만든다」, 서울: 이마, 2017.
- 김경희·김재석, 「관광학개론」, 서울: 도서출판 참, 2017.
- 김향자·유지윤(2000), 「도시관광 진흥방안 연구」, 한국관광연구원
- 김향자(2011), 「도시관광 활성화 정책 추진 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김향자(2014), 「도시재생 추진에 따른 도시관광 정책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메모리 K, 「익선동 166」, 2017.
- 문화체육관광부(2010), 「도보여행 활성화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
- 반정화(2012), 「서울시 도보관광 활성화 수립 연구」, 서울연구원
- 서울역사박물관(2012), 「창신동: 공간과 일상」
- 오성훈·남궁지희(2011), 「보행도시: 좋은 보행환경의 12가지 조건」,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최경은(2011),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 인증 및 법제화 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최경은(2013), 「문화융합형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Cullen, G.(1995), Concise Townscape, Architectural Press.
- Hall, C.M. & Page, S.J.(1994), The Geography of Tourism and Recreation: Environment, Place and Space, New York: Routledge.
- Hall, C.M. & Page, S.J.(2006), The Geography of Tourism and Recreation, Environment, place and space, Third Edition, Routledge.
- Law, C. M.(1993), Urban Tourism: Attracting Visitors to Large Cities, Cassell
- Page, S.(1995), Urban Tourism, New York; Routledge

Pearce D.(1995), Tourism Today: A Geographical Analysis, New York: Longman Scientific & Technical.

Shaw & Williams A.(1994), Critical Issues in Tourism: A Geographical Perspective, UK: Blackwell.

Solmit, R.(2000), “Wanderlust: A history of Walking” , USA: Viking Penguin.

학위논문

공자원(2011), “도시관광 활성화를 위한 역사문화자원의 관광자원 잠재력개발 평가지표 연구” ,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형준(2012), “도시관광콘텐츠 구성요인 개발에 관한 연구” ,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박철진(2002), “1930년대 경성부 도시형 한옥의 상품적 성격” ,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미현(2014), “도시 도보관광자의 시·공간 이동행태” , 강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손현수(2015), “문화관광해설사의 해설이 관광객의 감정반응과 만족,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엄완용(2014), “텔파이 김버을 활용한 문화관광해설사 자격제도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 계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윤조훈(2013), “제주올레 이용자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관특성 연구” ,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윤찬수(2015), “대안적인 도보관광을 위한 지역자원 분석과 활용방안” ,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진아(2017), “골목길 투어의 배경과 의미: 을지유람을 중심으로” ,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진영(2011), “문화관광해설사의 역량과 관광객 만족 재방문 및 추천의도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연중(2018), “을지로 제조업 밀집지역 관람대상화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진보라(2016), “문화관광해설사 제도변화의 경로의존성 분석”,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홍수연(2013), “전주한옥마을 문화관광해설사의 역할숙성에 대한 IPA분석”, 호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학술논문

- 강미희 · 정휘(2011), “도보여행자의 특성 규명”, 「한국임학회지」, 100(3): 382-391.
- 김소은 · 심연숙(2011), “서울시 도보관광 활성화에 관한 연구”, 「관광 · 레저연구」, 23(7), 43-60.
- 김인신 · 조민호(2011), “제주올레 관광지 속성, 도보관광객 편익, 그리고 지각된 가치 간 관계 분석”, 「관광연구논총」, 23(2): 127-154.
- 김준연 · 한영호 · 오상민(2011), “도보여행의 관광공간에 관한 사례연구”, 「한국공간디자인학회논문집」, 6(4): 49-56.
- 김현숙(1997), “보행관광을 유도하기 위한 관광정보제공체계의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 32(5): 137-154.
- 박충환(2016), “대구근대골목투어: 지붕없는 박물관과 스토리텔링의 정치적 지형”, 「지방사와 지방문화」, 19(2): 141-178.
- 변지혜 · 박경훈 · 최상록(2010), “물리적 보행환경이 보행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조경학회지」, 37(6): 57-65.
- 서정렬(2015), “도보관광을 통한 원도심 문화경쟁력 제고 방안 연구”, 「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논문집」, 51: 183-190.

- 서한림·박소현(2007), “주거지 내의 물리적 보행환경 특성에 관한 기초연구”, 「대한건축학회지」, 23(8): 191-199.
- 심창섭(2017), , “도시관광에서 현대적 진정성의 의미”, 「관광연구」, 32(2): 429-447.
- 이수창·정옥주(2013), “광역도보관광의 공정관광적 특성에 대한 연구”, 「농촌계획」, 19(2): 93-105.
- 장용운(2013), “서울시 도보관광 활성화 방안에 관한 탐색적 연구”, 「관광서비스연구」, 12(1): 65-80.
- 정철·노경국·문성중(2011), “도보관광객의 환경인식과 심리적 웰빙”, 「관광연구논총」, 23(1): 109-124.
- 정철·박태영·노경국(2010), “제주올레관광객의 방문동기와 사전이미지의 관계”, 「관광학연구」, 34(4): 13-33.
- 정철·정란수·이훈(2011), “도보관광 수요와 파급효과 분석”. 「관광학연구」, 34(4): 13-33.
- 최병길·이영관(2011), “도보관광지 이미지와 지각된 가치가 관광자만족에 미치는 영향”, 「관광학연구」, 35(7), 299-321.
- 이관표·권상미(2017), “도보관광의 동기와 만족에 관한 연구”, 「관광레저연구」, 29(4): 239-254.
- 정연중·조항만(2017), “도심부 도보관광을 통하여 본 을지로 제조업 밀집지역의 관광공간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논문집」, 59: 56-64.
- Jansen-Verbeke, M. (1986), ‘Inner city tourism, Resources, Tourists and 13. Promoters’, Annals of Tourism Research, Vol.13(1), 79-100.
- Law, C. M. (1992), ‘Urban Tourism and its contribution to Economic Regeneration, Urban Studies, Vol.29(3/4), 599-618.
- Murphy P. E.(1980), “Tourism Management using Land-use planning and

landscape design the Victoria experience” , Canada Geographer,
Vol.24(1), 60-71.

Pearce, D.(2001), An integrative framework for urban tourism research, Annals of
Tourism Research, Vol.28(4): 926-946.

정기간행물

견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견고싶은 도시」, 2012.7.8.월호

인터넷

강남구 홈페이지, “https://www.gangnam.go.kr/contents/culture_commentary/1/view.do?mid=FM010411” , (검색일 2018.4.5.)

기상청, “<http://www.kma.go.kr>” , (검색일 2018.4.1.)

서울 관광 홈페이지, “<http://korean.visitseoul.net/index>” , (검색일 2018.4.2.)

서울 도시재생포털 홈페이지, “<https://uri.seoul.go.kr/surc/main.do>” , (검색일 2018.4.20.)

서초구 홈페이지, “<http://www.seocho.go.kr/site/seocho/04/10404081200002017101702.jsp>” , (검색일 2018.4.5.)

송파구 문화관광 홈페이지, “http://songpa.go.kr/user.kdf?a=songpa.menu.MenuApp&c=1001&cate_id=AM0306001000” , (검색일 2018.4.5.)

아트브릿지 홈페이지, “<http://artbridge.or.kr/>” , (검색일 2018.5.18.)

열하나 동네 홈페이지, “<http://www.11dongne.com/>” , (검색일 2018.5.20.)

익선다다 홈페이지, “<https://www.iksundada.co.kr/>” , (검색일 2018년 5월 21일)

종로구청 홈페이지, “<http://tour.jongno.go.kr/tour/main/contents.do?menuNo=110805>” , (검색일 2018.4.3.)

중구 문화관광 홈페이지, “<http://www.junggu.seoul.kr/tour/>”, (검색일 2018.4.5.)

기타

종로구청 관광체육과 제공 자료 (종로구 골목길 탐방 프로그램 통계 내용)

익선동 주민소통방 박경란과의 면담. 2018년 5월 9일.

골목길 해설사 김금수와의 면담. 2018년 5월 13일.

골목길 해설사 남정숙과의 면담. 2018년 5월 14일.

부 록

창신동 및 익선동 설문지

【종로구 골목길 탐방 프로그램】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종로구 골목길 탐방 프로그램’에 관한 석사학위 논문을 작성하고 있는 대학원생입니다. 본 설문조사는 귀하께서 느끼시는 도보관광에 대한 생각과 종로구 골목길 탐방 프로그램 참가 후 인식에 대해 조사하여 도보관광 프로그램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조사 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장)에 의해 엄격히 보호되며, 개인 정보는 외부로 일체 노출되지 않습니다. 또한 모든 조사 내용은 학술연구 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절대 활용되지 않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구결과 도출을 위해 귀하의 정성이 깃든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송경민
010-9364-2838

【참여자 일반 사항】

성별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연령	<input type="checkbox"/> 10대 <input type="checkbox"/> 20대 <input type="checkbox"/> 30대 <input type="checkbox"/> 40대 <input type="checkbox"/> 50대 <input type="checkbox"/> 60대
거주지	<input type="checkbox"/> 종로구 <input type="checkbox"/> 종로구 외 서울 () 구 <input type="checkbox"/> 경기도 () 시 <input type="checkbox"/> 그 외 지역()시·도
직업	<input type="checkbox"/> 학생 <input type="checkbox"/> 회사원 <input type="checkbox"/> 공무원 <input type="checkbox"/> 상업·자영업 <input type="checkbox"/> 주부 <input type="checkbox"/> 기타

【도보관광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도보관광 프로그램은 도보로 관광할 수 있도록 조성한 코스에 관광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해설사의 스토리텔링이 더해져 별도로 홈페이지 또는 유선으로 신청하여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1. 도보관광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 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 ① 전혀 관심 없음 ② 관심 없음 ③ 보통 ④ 관심 있음 ⑤ 매우 관심 있음
2. 종로구 골목길 탐방 프로그램 외 **타 도보관광 프로그램**을 이용해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 ① 있다 → 프로그램명: _____ ② 없다
3. 도보관광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진 귀하의 **주요 활동**은 무엇입니까?
- ① 걷기 등 **신체활동** ② 지역문화 이해 등 ③ 사색·자아성찰 등 ④ 기타 ()
- 관광활동 정신활동**
4. 도보관광 프로그램의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개 선택)
- ① 새로운 지식 습득 ② 새로운 지역 경험 ③ 지역 문화·산업 체험 ④ 문화·역사적 장소 방문
(호기심 충족)
- ⑤ 지역주민의 삶 ⑥ 사람들과의 교류 ⑦ 스트레스 해소 ⑧ 기타 ()
간접체험
5. 종로구와 같이 **도심**을 중심으로 한 도보관광 프로그램의 **차별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우수한 접근성 ④ 개발 이슈에 놓인 장소들에 대한 새로운 가치 발견
- ② 일반적인 역사문화재가 아닌 도시를 탐방한다는 점 ⑤ 기타 ()
- ③ 지역주민의 삶 들여다보기

【만족도 및 행동의도】

6. 다음은 종로구 골목길 탐방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측정하는 항목입니다.

귀하의 생각을 잘 나타내는 곳에 체크(✓)해주세요.

(기대했던 것보다)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만족했다					
재미있다					
많은 것을 배웠다					
좋은 경험을 했다					

7. 다음은 종로구 골목길 탐방 프로그램에 대한 **행동의도**를 측정하는 항목입니다.

귀하의 생각을 잘 나타내는 곳에 체크(✓)해주세요.

	전혀 의사없음	의사없음	보통	의사있음	매우 의사있음
다음에도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이다					
다음에는 자율적으로 방문할 것이다					
다음에는 타 프로그 램에 참여할 것이다					
주변 사람들에게 추 천할 것이다					

【해설에 대한 인식】

8. 다음은 골목길 해설사의 **해설 서비스**에 관한 항목입니다.

어떠한 해설 내용이 인상 깊거나 유익했습니까?

- ① 해당 지역 역사 ② 해당 지역 관련 정책 및 이슈 ③ 해설사 개인 경험담

9. 가장 인상 깊었던 **해설 내용**은 무엇입니까?

【창신동에 대한 인식】

10. 종로구 창신동을 **방문**한 적이 있으십니까?

- ① 있다 → 이유: _____ ② 없다

Ex. 낙산공원에 왔다가 들림 / 학교수업 답사 등

11. 종로구 창신동이 **창신·송인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된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 ① 알고 있으며 자세한 사업 ② 들어본 적은 있으나 자세한 ③ 모른다
내용을 알고 있다 사업 내용은 모른다

12. 종로구 창신동이 **봉제산업**이 밀집한 지역임을 알고 계셨습니까?

- ① 알고 있으며 자세한 ② 들어본 적은 있으나 자세한 ③ 모른다
내용을 알고 있다 내용은 모른다

13. 다음은 탐방하신 창신동 도보관광 코스입니다.

가장 흥미로웠던 코스 **3순위**와 그 **이유**를 기입해주세요.

1순위: _____ 이유: _____

2순위: _____ 이유: _____

3순위: _____ 이유: _____

14. 가장 흥미로웠던 **가로구간**을 지도에 표시 후 그 **이유**를 기입해주세요.

15. 가장 **재방문하고 싶은 곳**은 어디입니까?



【익선동 일대에 대한 인식】

10. 종로구 익선동 일대(일명 열하나 동네)를 방문한 적이 있으십니까?

① 있다 → 이유: _____ ② 없다

Ex. 놀러옴 / 주얼리샵 구경 등

11. 종로구 익선동 일대가 **창덕궁앞 도성 한복판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① 알고 있으며 자세한 사업 ② 들어본 적은 있으나 자세한 ③ 모른다
내용을 알고 있다 사업 내용은 모른다

12. 종로구 익선동 일대가 **주얼리산업**이 밀집한 지역임을 알고 계셨습니까?

① 알고 있으며 자세한 ② 들어본 적은 있으나 자세한 ③ 모른다
내용을 알고 있다 내용은 모른다

13. 다음은 탐방하신 익선동 도보관광 코스입니다.

가장 흥미로웠던 코스 **3순위**와 그 **이유**를 기입해주세요.

(익선동 상점거리는 맨 뒷장 상점명 지도를 참고해 **구체적인 상점명**을 기입해주세요)

1순위: _____ 이유: _____

2순위: _____ 이유: _____

3순위: _____ 이유: _____

14. 가장 흥미로웠던 **가로구간**을 지도에 표시 후 그 **이유**를 기입해주세요.

15. 가장 **재방문하고 싶은 곳**은 어디입니까?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walking tourism of commentary perceived from the viewpoint of participants in a specific course(Changsin-dong, Ikseon-dong) of Jongno-gu alley route exploration program. For this purpose, the concept and trend of walking tourism are review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Jongno-gu alley route exploration program are described from the viewpoint of walking tourism, and the contents of life-culture contents including main course contents to be visited are archived in a storytelling format together.

The main research progress is made through field experiments. After participating in the program commentary for 10 times, we conducted a questionnaire survey to understand the walking awareness, overall satisfaction and behavioral intention, to explore the characteristics of walking tourism and to explain the characteristics of the space and the preferred commentary contents described in terms of urban space.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Participants regarded the advantages of walking tourism program as a key factor in exploring cities, not general historical and cultural properties, as a result of new regional experiences, knowledge acquisition, and differentiation of urban walking tourism programs. Respectively. In the case of satisfaction, the most favorable opinion was that they had a better experience than expected. The behavioral intention was the highest intention to self-visit in the case of Ikseon-dong, and Changsin-dong showed the highest intention to recommend to others.

As a result of comparing charm section and visiting place preference, participants showed higher preference for the space which shows the urban form and geographical characteristics of the area than the newly created space and architecture. On the other hand, it is found that the preferred places for return visit are the ones who spend their leisure time or prefer the street centered on the pedestrian streets with crowded cafes and restaurants. In particular, it was found that the intention to revisit the facilities built through the urban regeneration project, such as the Sewing History Museum and the Changsin Communication Workshop, was high. Therefore, the urban regeneration project can be utilized as an effective local marketing tool according to the spatial characteristics of the region, and it can serve as a means to attract foreign tourists as well as residents. This can be interpreted as reflecting the tourist trend to indirectly experience the life of local residen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the basic data that can be used in the planning and management plan of walking tourism program in Changsin-dong and Ikseon-dong area in the future.

- Keyword: Walking Tourism, Culture and Tour Guide, Living Culture Contents, Urban Space, Perception Survey
- Student Number: 2016-24844